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국제학석사학위논문

아시아 여성 농민들의 씨앗 지키기 운동

-한국의 전여농과 인도의 나바단야를 중심으로-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Snigdha Gupta

국문 초록

‘씨앗 지키기’라는 농업 관습은 전세계 농촌 사회에서 여성농민의 주역할이었다. 그러나 20 세기를 비롯해 식민화, 산업화, 녹색혁명, 세계화 과정 등에서 농식품제도가 변화하면서 전통 씨앗과 함께 이 관습도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관습을 되살리고 있는 한국 전국여성농민연합총회의 ‘토종씨앗지키기 운동’과 인도 나바단야의 ‘씨앗 지키기 운동’을 실행하고 있는 여성 농민들 대상해 현장 연구와 개인 인터뷰를 통해서 이 소위 ‘낙후된’ 관습을 되찾은 이유를 알고자 했다. 연구 결과, 여성농민들은 씨앗을 지키는 이유 중 첫째는 소득 보장이었다. 이는 여성농민들은 씨앗 지키고 농사 짓는 일의 토대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 운동은 하나의 소득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식량주권의 담론을 넘어 해당 단체의 현실적인 토종 판매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여성 농민의 지위 향상 또는 공동체 형성’이며 이는 농업에서 본 자리를 잃은 여성농민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여성들의 ‘차매애’로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파괴된 농촌 공동체를 되찾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세번째는 ‘토종씨앗 지키기와 여성 농민의 문화적 기억, 건강과 환경’이다. ‘문화적 기억’은 토종 농산물을 둘러싼 요리, 식생활, 관습, 농사 방식 등을 포함한 말이다. 이와 덧붙어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정의 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은 토종 씨앗을 지키게 된 이유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인도와 한국의 여성이 씨앗을 지키게 된 동기부여가 유사하게 나온 만큼 현재 농식품체제로 인해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농민은 어느 한 개발도상국에 있는 것이 아니며 소위 ‘낙후된’ 관습을 고도성장하는 인도 또는 급속한 개발과정 끝에 ‘선지국’으로 손꼽히는 한국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 현재

세계의 농민층, 특히 여성 농민이 취약해진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아시아의 두 가지의 여성농민운동이 보여주는 '농민 문제'는 초국가적 과정으로 인해서 생긴 것만큼 앞으로 나가야 할 대안의 길도 초국가적일 수 있다.

키워드: 여성운동, 세계농식품체제, 씨앗 지키기, 식량주권, 종자주권, 농민운동, 여성농민

학 번: 2017-27110

목 차

I. 서론 ····· 1
1. 중요성과 내용 ····· 1
2. 배경 ····· 10
i) 씨앗 지키기란? ····· 10
ii) 20 세기부터 아시아의 개발 과정과 농업 ····· 12
a) 산업적 농업과 식민지 시기 ····· 12
b) 세계 2 차대전 후 국가의 산업화와 녹색혁명 ····· 16
-인도의 녹색혁명 또는 토종 씨앗 ····· 18
-한국의 녹색혁명 또는 토종 씨앗 ····· 20
c) 식량 제도의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 25
iii) 식량주권과 종자주권 또는 비아 캄페시나 ····· 30
iv) 인도 나바단야의 씨앗 지키기 운동 ····· 32
v) 한국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 ····· 34
3. 선행연구검토 및 문제의식 ····· 36
i) 세계 식량 주권과 현재 농민운동 연구 ····· 38
ii) 한국과 인도의 농민운동연구- 식량주권과 현재 농민운동 ····· 43
iii) 한국 및 인도의 여성농민운동 연구 ····· 49
iv) 씨앗 지키기 농민운동에 관한 연구 ····· 52
v) 나바단야와 전여농의 씨앗 지키기 운동에 관한 연구 ····· 54
vi) 문제의식 ····· 56

II. 방법론 ····· 58
III. 분석 ····· 61
1. 씨앗지키기와 여성농민의 소득 보장····· 62
i) 전여농의 토종씨앗 지키는 여성 농민과 소득 보장의 관계····· 62
a) 씨앗 지키기의 담론 ····· 62
b) 씨앗 지키는 여성들의 삶의 현실-시장 경제와 담론 ····· 64
c) 농산물 판매 네트워크의 차이- 정부 수매와 언니네텃밭 ····· 67
d) 언니네텃밭 외에 토종 농산물 판매 네트워크 형성 ····· 75
ii) 나바단야의 씨앗 지키는 여성 농민들과 소득 보장의 관계····· 76
a) 씨앗 지키기에 관한 담론 ····· 76
b) 소득과 담론 사이에 배치된 여성농민 ··· 77
c) 나바단야의 토종 농사 판매 네트워크 형성과 여성농민들의 소득 ····· 82
d) 나바단야의 토종 농사 네트워크 외에 여성농민들의 소득 보장 방안 ····· 85
iii)여성농민 소득 보장에 관한 나바단야와 전여농의 정책 지향····· 86
2. 씨앗 지키기와 여성농민들의 지위 향상 및 공동체 형성 ····· 89
i) 농촌 노동의 성분업····· 89
ii) 여성농민의 지위 향상과 씨앗 지키기 운동···· 91

iii) 여성농민의 공동체 형성과 씨앗 지키기 운동……96
3. **씨앗 지키기와 여성농민들의 문화적 기억, 건강과 환경** …… 104
i) 씨앗 지키기와 문화적 기억 …… 104
a) 전여농의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과 문화적 기억 …… 105
b) 나바단야의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과 문화적 기억 …… 110
ii) 토종 씨앗 지키기와 건강과 환경 …… 115
a) 전여농 여성농민의 토종 씨앗 지키기와 건강과 환경 …… 116
b) 나바단야와 토종 씨앗 지키기와 건강과 환경 …… 119

IV. 결론 …… 123

참고문헌 …… 128

Abstract …… 138

Acknowledgement …… 141

표목차

표 2-1 전여농 인터뷰 목록 ····· 59
표 2-2 나바단야 인터뷰 목록 ····· 60

I. 서론

1. 중요성과 내용

씨앗은 생명의 시작이다. 농민은 수천년 동안 씨앗을 심고, 또 수확하면 씨앗을 선정하여 다음 농번기까지 조심이 보관했다. 이는 "씨앗 지키기"라고 하며 전세계에서 농업과 함께 시작된 것임으로 12,000 년전부터 이 전통적 관습이 유지되어 왔다. 특히 아시아는 농업과 깊은 역사를 맺고 있다.[1]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또는 동아시아에서 밥을 주식으로 삼아 사회와 문화는 농업을 둘러서 만들어진 것이다. 농촌사회의 성분업도 농사를 바탕으로 삼았다. 남성은 논에 가서 괭이질했다면 여성 농민의 주역은 씨앗을 지키는 데에 있었다. 씨앗을 어머니나 시어머니부터 물려받고 수확 후에 씨앗을 선정하고, 말리고,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 또는 전통 먹거리 요리법까지 모두 대대손손 배웠다. 씨앗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에서 농민들이 나누어서 써왔으며 그렇게 씨앗도 토양과 기후에 토착화 되었다. 그러나 유럽 산업화과정을 비롯해 19 세기 또는 20 세기부터 이러한 농촌사회들은 많은 변화를 가지면서 토종 씨앗 또는 그것을 둘러싼 문화, 공동체 또는 소농 자체가 멸종위기에 이르렀다. 20 세기에는 75%의 식물 유전자 다양성은 멸종되었으며 현재 전세계 식량의 75%는 오직 12 개의 식물변종과 5 개의 가축변종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2]

본 논문의 대상인 아시아 국가 인도와 한국도 이러한 근대화 과정들을 걸쳐왔으며 전통 농법은 변화가 되었다. 인도와 한국은 식민지

---

[1] 19 쪽. C. Fry. (2016) Seeds: A Natural Hist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2] UN FAO; <What is Happening to Agrobiodiversity?> http://www.fao.org/3/y5609e/y5609e02.htm; 접속일: 2019.08.10

시기를 거치면서 산업적 농업을 처음 마주하여 식민지의 토종 유전자자원은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기도 하고 국외 유출되는 형상이 생기기도 했다. 인도에서 식물변종의 이전 또는 돈벌이작물의 단작 대량 농사로 인해 토양의 질이 낮아지고 토종 먹을거리 작물이 없어짐으로써 기아가 이루어졌다면 한국에서는 20 세기초에 영국을 비롯해 일본과 미국까지 종자자원이 국외로 유출되어 많은 토종 품종이 없어지게 되었다. 독립 및 세계 2 차대전 후 한국과 인도가 독립을 하면서 산업적 농사로 인해 생산된 잉여농산물을 가진 미국으로부터 식량원조를 받았다. 미국은 냉전 시기에 신생국가들의 농촌에서 공산주의의 뿌리를 뽑기 위한 식량원조 또는 1960 년대부터 '녹색혁명'이라 불리는 산업적 농업방식을 수출했다. 인도에서는 미정부 또는 록펠러 재단과 같은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필리핀에 있는 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량된 쌀의 품종인 IR8 를 대중 보급하였고 이는 '녹색혁명'의 시작이었다. 처음으로 인도에서 잉여농산물도 생기고 맬서스주의적 기아의 예상을 피하였다. 당장 식량생산이 높였으나 대신에 산업적 농업은 농민 삶뿐만 아니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식물다양성과 토종 씨앗이 없어지게 한 원인이기도 하고 단일 품종을 계속 심으면서 토양의 질이 급격히 낮아져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더 많은 화학물질인 농약과 비료를 써야 하며 농민과 소비자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농민에 부담도 커지고 빚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도 목격되었다. 1960 년대 박정희 정부에게는 농민의 문제 또는 수출지향적인 공업화를 이끌기 위한 노동인구를 유지하는 데에 식량생산이 시급했다. 그만큼 박정희정부는 '녹색혁명'에 과심을 가지며 필리핀의 IRRI 과 협정해 한국 토양과 입맛에 맞는 쌀 변종인 '통일벼'를 개량해 보급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쌀생산이 높아지고 잉여농산물을 수출했다는 것을 정부에서 홍보되었다. 그러나 '통일벼'로

비롯한 개량화된 작곡 종료들은 전국 논밭을 지배하여 토종씨앗이 점점 없어지며 화학물질 많이 들기 시작하고 농사 짓는 것만으로 살아남는 것이 힘들어져 농민의 이촌향도적 이동이 급증했다. 세번째 큰 변화는 식량 제도의 세계화, 자유무역의 시작 및 신자유주의이다. 80 년대부터 미국과 다른 선진국은 WTO 과 World Bank 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시장 개방을 원하여 SAP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를 권유했다. 국제기관들은 개발도상국의 농업분야를 경제적 가능성 있는 것으로 평가했고 많은 경우에 신생국가들에게 국가채무가 높아서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이 시기에 인도도 1991 년 IMF 과 세계은행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였다. 1990 년대부터 인도의 농업은 점차 개방되어가며 농가 소득이 낮아지고 농산물 수확량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3] 90 년대부터 몬산토, 가르길, 등 큰 종자회사 또는 농사산업 회사(agribusiness corporations)들은 인도에 시장 진입하면서 농민들이 자본 집약적인 농사 또는 GM 종자의 수확의 실패로 치명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한국은 1997 년에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IMF 으로부터 자금 자원을 받았다. IMF 사태 이후에 한국의 농업 시장이 개방화되면서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고 쌀과 같은 민감한 농식품의 의무수입량 높아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한국 시장을 들어오면서 현재 한국의 수입산 곡물 의존률이 77%에 달한다. IMF 사태 이후 한국의 1~4 위 종자회사들은 해외로 넘어가면서 다국적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순식간에 14%에서 65%로 커졌다. 다른 나라에 지급하는 종자 로열티는 2006～2015 년 1 천 457 억 원에 달했다. 반면 한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로열티는 1%도 안 되는 9 억 5 천만 원에

[3] Ghosh, Madhusudan. (2017) WTO, Trade Liberalization and Indian Agriculture. Indian Agriculture Under mult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petitiveness and Food Security Concerns, Edition: First, Chapter 2, Centre for WTO Studies, and Bookwell, pp.19-43

그쳤다.[4] 과거에 지역 내 섭취를 위한 먹거리위주의 주로 소량농사가 이루어졌으나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시기에서 계절과 관계없이 전 세계 대상으로 생산되는 농사가 대부분이다. 이는 세계농식품체(global agrifood system)이라 불렸다. 식량 공급망을 통제하고 있는 자는 초국적 기업들이다.

인도는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여겨지지만 한국은 20 세기 초속도로 공업화와 개발 과정을 걸쳐 1990 년대 중반에 OECD 국가로 선정되고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WTO 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지키고 있다. 이에 이유는 오직 매우 취약한 농업분야이다. 현재 한국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가는 있는 와중에 농민이 계속적으로 치열한 반대를 표출하고 있다. 왜냐하면 'WTO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기존 17.3%에 대한 관세감축 범위가 4%로 바뀌게 되므로, 그만큼 농산물 시장 대부분을 개방해야 하고 국내 농민이 또 다시 피해자가 될 예상이 있기 때문이다.[5] 그러므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프레임은 임금격차가 심한 현재 사회에서 전국민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인지의 관해서 생각이 필요한 것이며 그러한 국가 프레임을 떠나서 전세계 개발과정에서 취약해진 집단으로써 농민층에 관해서 초국적인 관찰이 중요하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20 세기에 이 3 개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토종 씨앗과 그것을 지키는 관습이 없어지고 산업적 농사법이

---

[4] 연합뉴스. (2016) [마이더스] 종자는 '농업의 반도체'… 금값 2 배 이상도 https://www.yna.co.kr/view/AKR20180330170700980; 접속일: 2019.09.10

[5] BBC. (2019 년 10 월 25 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앞으로 달라지는 것들>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0177839 접속일: 2019.10.20

대중화되었다. 산업적 농사는 농사에 많은 자본의 투자, 새로운 품종의 잡종 종자 개량 및 화학 비료와 농약의 이용, 과대한 논밭에 단일 품종 농사(단작농사), 관개 시설, 심기와 수확의 기계화 등을 말한다. 2009 년에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라 작물 중 26%가 재래종이었으며 74%의 토종 작물을 잃어버렸다는 듯이다.[6] 인도에서는 녹색혁명 뒤에 생산량이 낮았던 밀과 쌀이 급증하고 솔검, 수수 등은 생산이 뚝 떨어졌고 쌀의 토종 품종도 1960 년대 전에 기록된 종료 100,000 종에서 현재 6000 종 밖에 남지 않았다.[7] 이제 씨앗은 농민 손과 흙을 거쳐서 토착화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연구로 통해 만든 개량된 씨앗이며 이는 더 이상 나누어 쓰이는 공동체의 자연자원이 아닌 시장에서 구매하고 판매되는 것이 되면서 씨앗 지키기는 것이 미발달의 낙후된 관습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 씨앗 지키기가 주역이었던 여성농민은 농업과 농촌에서 본 자리를 잃었다. 한국의 경우에 젊은 여성 농민은 도시로 이동하여 “여공”이 되어갔거나 농사 외에 다른 일을 찾아야 되었고 생계가 어려워졌다. 남성도 도시로 이동을 하여 현재 농촌 대부분은 60 세 이상이며 농업인 가운데 여성 비중은 1970 년 28.3%에서 매해 증가하였고 2017 년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은 52.7%에 달했다.[8] 인도에서도 현재 전체 농업인 중 50~65%가 여성농민이다.[9] 인도에서도

---

[6] 57 쪽. 제작팀. (2014)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KBS 스페셜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시대의창.

[7] The Hindu. (2012) From <1,10,000 varieties of rice to only 6,000 now.>India; http://www.thehindu.com/news/national/karnataka/from-110000-varieties-of-rice-to-only-6000-now/article3284453.ece 접속일: 2019.08.20

[8] 중앙일보. (4 월 2019 년) "여성 농업인이 52.7%인데 지위낮아"…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전담팀 올해 상반기내 구성” 접속일: 2019.08.25

[9] The Wire.(2018) The Centre Is Barely Serious About Recognising Women as Farmers; https://thewire.in/women/women-farmers-agriculture-rights; 접속일: 2019.08.25;

여성이 씨앗을 놓치면 자신의 전문 지식과 가정에서 협상력은 잃게 되고 공사, 살림 노동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씨앗을 지키고 또는 토종 농사, 인도에서 '자이빅' 농사로 불리는 친환경 농사는 현재의 농업분야에서 세계의 흔하지 않는 몇몇 농민단체들은 소농들을 동원하여 다시 잊혀진 토종 씨앗을 어렵게 수집하고 재배해서 보관하고 있고 많은 단체들을 여성이 이끌어가고 있다. 이 중에 잘 알려진 운동 두 가지를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여성농민단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의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 또는 인도의 비정부기관 나바단야의 여성들이 주도하는 '씨앗 지키기 운동'.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씨앗을 지키는 일이 '미발달된' 것으로 여겨지고 '낙후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이 단체들의 회원 여성농민들은 어떤 이유로 씨앗을 지키고 있는지가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이다.

연구 질문을 답하기 위한 본 논문은 나바단야와 전여농의 총 15 명과 개인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해당 단체의 소재를 검토하였다. 인터뷰는 한국의 횡성과 거창 지역 또는 인도의 우타라칸드주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대상자들은 전여농과 나바단야의 회원 여성 농민과 활동가들이었다. 인터뷰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나바단야와 전여농 여성들의 씨앗 지키는 이유를 3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1) 여성농민들의 소득 보장; 2) 여성농민들의 지위 향상 및 공동체 형성; 3) 여성농민들의 문화적 기억, 건강과 환경.

-164 쪽. Srivastava, Nisha, and Ravi. Srivastava. (2009) "Women, Work and Employment Outcomes in Rural India." Paper presented at the FAO-IFAD-ILO Workshop on 'Gaps, Trends and Current Research in Gender Dimensions of Agricultural and Rural Employment: Differentiated Pathways out of Poverty'; FAO, Rome; 31 March-2 April.

첫 이유인 소득 보장은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의 식량주권 및 자급자족에 대한 담론과 여성농민들의 현실 간에 차이를 보여주었다. 한국에서 만난 여성농민들은 특히 토종 씨앗을 지키는 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표출하였다. 많은 경우에 토종 농사만 지어서 생계를 지키기가 어려워서 잡종씨앗을 쓰는 대량농사와 토종 씨앗으로 하는 농사 두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도 목격했다. 인도에서는 대상자들은 오직 토종 농사만 하여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과 같이 농업 외에 다른 분야 (공사 등)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인도와 한국에서 약간의 차이를 지냈으나 모두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오직 토종 농사만 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토종농사를 계속하는 데에 해당 단체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였다. 나바단야와 전여농은 토종 농사가 경쟁적인 농산물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게끔 하는 대안 경제적 네트워크를 형성시켰다. 큰 기업에서 점령한 시장인 데다가 토종 농산물의 정부 수매가 제안된 곳에서 전여농의 언니네텃밭 제철 꾸러미 사업 그리고 다른 공정거래 판매 네트워크를 형성해 여성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였다. 나바단야도 인도에서 가장 큰 유기농 판매 네트워크를 형성한 만큼 회원 여성농민들의 토종농산물을 도시 또는 지방 주민들과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목격하였다. 전여농은 농민들에게 실제 소득 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 농민의 소득에 관련 정책적인 요구도 꾸준히 하고 있다.

두번째 이유는 여성들의 지위 향상 및 공동체 형성이었다. 토종 씨앗의 없어짐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놓친 농민 여성은 토종 씨앗을 되찾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향상하는 데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터뷰와 단체들의 정책 지향으로 통해 볼 수 있었다. 토종 씨앗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만 아니라 여성 농민들 사이에 씨앗을 주고 받으며 이촌향도인구이동으로 공동체가 파괴된 농촌에서 다시 차매애로 통해

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볼 수 있다. 나바단야에서 이 공동체에서 여성들이 같이 토종농산물 관한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하여 농약 없는 노동집약적 토종농사를 하는 데 서로를 도와준다. 한국에서는 지역 전여농센터가 공동체의 공간이 되어 아이를 돌봐주는 공간도 마련하고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세번째 이유는 여성농민들의 문화적 기억, 건강과 환경이다. 인도와 한국에서 만난 토종 씨앗을 지키는 대상자들은 토종 씨앗을 왜 지키는지에 질문의 답으로 자주 언급한 것은 문화와 식생활 또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지식을 지키고 싶은 것이었다. 이 지식은 토종 씨앗을 보관하는 법부터, 문화적 중요성, 토종 농사를 하는 기술 또는 요리하는 법까지 포함한다. 토종 씨앗과 함께 이에 관련 지식을 주고받으며 씨앗의 소유권과 지식이 UPOV 과 같은 지적 재산권법으로 토종 씨앗에 관한 농민의 권리가 위협받는 시기에서 토종 지식으로 맞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여농에서 고령화된 여성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종 씨앗을 발굴해 나가며 그에 대한 정보를 책으로 발간하여 초국적 기업으로부터 저작권으로 통해 보호받고자 한다. 그리고 토종 요리법도 책자로 실리며 문화적 기억도 같이 담고자 한다. 한국과 인도 여성농민들은 아이들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토종씨앗을 선택한 것으로 답을 하였다. 또는 화학물질 집약적 산업적 농업으로 인한 자신이 지내는 환경에서 직접적인 부정적 변화를 본 것에 대한 우려하여 먹거리위주의 토종 농사로 이전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나바단야는 지난 30 년 동안 환경과 건강을 중요시하면서 교육활동을 진행했으며 정책적 자원에서도 세계 GMO 종자를 반대하는 제일 유명한 단체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인 여성농민은 소위 '낙후된' 씨앗 지키는 관습으로 되돌아가게 된 이유들이 현재 농업/먹거리 제도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첫 이유인 '여성농민과 소득 보장'

부분에서 본 듯이 현재 농산물에 대한 제값 받는 것이 힘들며 농업은 안정적인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볼 수 있었다. 두번째 이유에서 본 것은 공업화 또는 산업적 농사로 인해 농촌이 고령화되고 여성화되어 농촌의 공동체 또는 씨앗을 둘러싼 여성의 정통적 가치가 파괴된 것이었다. 세번째 이유에서도 산업적 농업으로 인해 소멸된 문화적 기억 또는 악영향을 받은 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이 언급되었다. 지식재산권법으로 토종 씨앗을 개량하여 농민들에게서 로얄티를 받고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므로 씨앗 지키기 운동은 이러한 문제들을 맞서고 있고 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운동이다.

한국과 인도의 여성농민들이 이끄는 '씨앗 지키기 운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20 세기의 신생독립국가들에서 생기는 농민 삶의 문제와 토종 씨앗의 소멸에 대한 여성농민들의 대항은 서로 다른 (개발도상국/선진국) 나라에도 불고하고 매우 유사한 이유로 동원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발 과정에서 농법에 관한 변화와 농민 삶, 특히 여성농민의 삶에 미친 악영향은 어느 한 개발도상국의 경험인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산업적 농업과 녹색혁명, 자유무역 등 초국적 과정들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고도성장하는 개발도상국 인도의 녹색혁명의 경험이나 현재 선진국 한국의 농촌 개발의 역사가 '개발 모델'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현재에도 인도와 한국에서 소위 "미발달적인" 씨앗 지키기 운동과 같은 식량주권운동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 배경

i) 씨앗 지키기란?

"농부아사(農夫餓死) 침궐종자(枕厥種子)"- 정약용 <이담속찬>

위 인용문이 다산 정약용이 편찬한 속담집인 <이담속찬>에서 쓰여진 한국의 옛말이다. 이는 농민이 기근으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듬해 뿌릴 씨앗을 남겨 머리에 베고 죽는다는 뜻이다. 농민에게 씨앗은 목숨과 바꿀 정도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10] 농업에서 매년 일년생 (채소, 작물, 허브, 꽃 등)과 다년생(건과, 교목 열매, 장과류 등) 식물에서 씨앗과 다른 생식물질(덩어줄기 등)을 선정하고 보관해서 지키는 것이 '씨앗 지키기'라고 한다. 전세계에서 씨앗을 지키는 것은 농업과 함께 시작돼 12,000 년전부터 이 전통적 관습은 유지되어 왔고 전세계 농촌사회에서 이는 주로 여성들의 역할이었다. 한국에서 씨앗을 모으는 것을 채종(採種)이나 자가채종(自家採種)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1]

아시아에서는 특히 쌀 중심 농업이 이루어졌다. 현재에도 세계 쌀 생산의 90%가 아시아인 것이다. 아시아 곳곳에서 쌀의 수많은 품종들은 존재했으며 아시아의 밥을 둘러싼 식생활 또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현재 씨앗과 함께 이 관습은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1900 년대부터 1999 년까지 75%의 식물 유전자 다양성은 멸종되었으며 세계 농민들은 다양한 로컬 변종을 놓치면서 유전적으로 균일한 다수확품종 씨앗을 선택했다.현재 전세계 식량의 75%는 오직 12 개의

[10] 중앙일보; (2012년) "우리가 개발한 고추 종자, 외국서 수입 왜?" 접속일: 2019.09.20
[11] C. Fry (2016)

식물변종과 5 개의 가축변종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12] F-1 잡종 씨앗은 안정하지 않아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채종이 불가능하여 매번 농민이 씨앗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거나 정부에서 받아야 한다. 그리고 흔히 알려진 '터미네이터' 종자는 genetic use restriction technology (GURT)를 이용하기 때문에 종자 다음 세대에는 생식력이 없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유전자변형 (GMO) 종자는 한 종의 DNA 를 다른 종에 삽입하는데 이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식물 DNA 에 완전히 다른 품종 ,예를 들어 bacteria (bt)를 삽입시킬 수 도 있다. GMO 씨앗을 지키는 것은 잡종씨앗과 같이 힘들뿐더러 특허법에 걸릴 수 있다. 그럼으로 이 모든 개량 종자는 결국 계속적으로 구입해야만 한다. 이 모든 씨앗들은 농약과 비료와 함께 이용해야 다수확을 할 수 있고 종자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GMO 씨앗에 관해서 아직 연구가 진행중이며 대부분 나라의 소비자들은 GMO 농산물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농자재 중심 농업 방식은 기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 세기에 씨앗이 어떤 원인으로 없어지게 되었는지가 중대한 질문이다. 이번 부분에서 이 질문을 답하려고 하면 20 세기의 개발 역사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아시아의 여성농민들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를 둘러싼 20 세기의 중요한 과정들을 살펴보며 씨앗과 씨앗 지키는 관습의 없어지는 것에 대한 원인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12] UN FAO; "More than 90 percent of crop varieties have disappeared from farmers' fields; half of the breeds of many domestic animals have been lost. In fisheries, all the world's 17 main fishing grounds are now being fished at or above their sustainable limits, with many fish populations effectively becoming extinct. Loss of forest cover, coastal wetlands, other 'wild' uncultivated areas, and the destruction of the aquatic environment exacerbate the genetic erosion of agrobiodiversity." 접속일: 2019.08.10

이는 본 논문의 배경이 되어 여성 농민들의 씨앗을 다시 지키게 될 이유에 대한 맥락을 부여한다.

ii) 20 세기부터 아시아의 개발 과정과 농업

토양 생물의 다양화가 없어지는 것 즉 토종 씨앗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역사적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토종 씨앗이 소멸되는 것과 국가 개발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관련된 과정들임으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기는 다음과 같다-

a) 산업적 농업과 식민지 시기
b) 세계 2 차대전 후 국가의 산업화와 녹색혁명
c) 식량 제도의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a) 산업적 농업과 식민지 시기

산업적 농업은 영국 산업 혁명과 동시에 탄생했다. 영국의 농업 혁명은 16 세기부터 19 세기 중반까지의 농업의 개발 과정을 말한다. 이 기간에는 농업 생산력과 정미의 생산량을 급격한 증가를 목격하였다, 이는 인구의 증가를 지원하였고, 또는 더 많은 노동력을 공업 분야로 이동하도록 만들며 산업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13] 질소, 포타슘, 인의(nitrogen, potassium, phosphorus- NPK 로 알려지는) 발견은 식물 성장에 중대한 요소로 개발되며 화학 비료의 제조로 더 집중적인 생산으로 이어졌다. 20 세기의 세계 2 차 대전에 개발된 화학물질은 농약으로 사용되었다.

[13] Mark Overton, (2011). Agricultural Revolution in England 1500 - 1850. BBC. 접속일: 2019.09.25

영국은 200 년 동안의 제국주의 시절에서 산업적 농업과 같이 농업의 시장화를 인도로 수입했다. 무역을 위한 아편, 차, 쪽과 같은 돈벌이작물을 집중적으로 인도에서 생산하여 인도의 재래종 작물이 일부 파괴되었고 토양에 영향 등으로 먹을거리 부족이 곧 벵골 지역에서 1770 년 또는 1943 년에 큰 규모의 기근을 불려왔고 1000 만명 또는 400 만명이 사망했다.[14] 아편 농사의 예를 들자면 19 세기 영국 제국의 가장 수익성 높은 아편은 인도의 130 만 농가들에서 생산되고 있었다. 양귀비 농사는 많은 경우에 강제적이었으며 농민들은 소득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적 빚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15] 아편, 고무, 차 농사는 노예와 다름 없는 연기 노동자들이 한 경우가 많았다 아편 농사 때문에 토양의 질이 낮아지고 자급농업이 없어지는 것과 함께 많은 먹을거리 식물변종도 없어졌다. 아편이 집중적으로 생산된 벵골 지역에서 먹을거리 농사의 부족으로 여성농민들은 양귀비 씨앗을 갈아서 먹을거리로 만들기도 했으며 이는 현재 벤골 음식에 남아 있다. 인도의 광대한 영토, 다양한 기후 또는 풍부한 노동력은 영국에게 제국 간에 식물변종 이전을 (intra-empire plant transfer) 기회였다. 예를 들어 고무는 남미 브라질에서 인도로 이전되며 인도의 토종 식물다양성을 파괴시켰다.[16] 아시아의 대부분 나라들이 식민주의를 겪었으며 식민지 시대에는 식물변종이 멸종되는 것은 인도와 유사하다. 영국과 프랑스는 한반도의 근해 섬에서 식물수집하기 시작한 것이 19 세기부터였다. 영국의

---

[14] 39 쪽. Amartya Sen (1981). Poverty and Famines: An Essay on Entitlement and Depriv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978-0-19-828463-5.

[15] BBC.(2019) 'How Britain's opium trade impoverished Indians'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49404024 접속일: 2019.10.15

[16] 이석하. (2014).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 종자는 누가 소유하는가 / KBS 스페셜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제작팀 지음 ; 장경호 엮음. Print.

어니스트 윌슨 (Ernest Henry Wilson; 1876-1930)은 1914 년에 조선의 자생 식물의 종자를 수집해 가며 이를 비롯해 일제강점기였던 1920 년대 도쿄대학교 나카이 다케노신(1882-1952) 교수도 조선총독부에서 2 개 증대 병력을 지원받아가면서 한반도의 전역의 식물의 유전자를 수집했다.[17]

한국에서 1900 년대 초까지 수천년 동안 재배되어 온 다양한 자생 종자가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종자가 국외 유출됐다.[18] 국내에서 토종 씨앗을 지키는 데에 오래 활동해온 안완식 박사(한국토종연구회)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때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토종 종자가 일본에 의해 훑어졌다며, "당시 군인 신분이던 일본 대학 교수가 탄통에 전국의 보리, 밀 종자를 모두 반출해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학은 이후 400~500 점의 보리 종자를 보유한 세계적 보리유전자원센터(국제식물유전자원연구소)로 선정됐다.[19] 또는, 토종 식물인 복주머니난, 섬말나리,변산바람꽃이 등 한국에서 보기 힘들지만 일본에서 대규모로 팔리고 있다.[20]

일본 다음에 미국의 의한 많은 토종 씨앗은 유출되기도 했다. 1904 년부터 자생수목 260 여종이 미국 등 서양 나라로 반출되어 최근에 조경수로 역수입되고 있다.[21] 콩 종료가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이 세계적인 콩 수출국이 된 것도 콩 원산지 나라인 한국 또는 중국에서 가져간 콩 종자 때문이라는 게 농업전문가의 분석도 있다.[22] 1906-

---

[17] 이석하; 장경호 엮음 (2014)
[18] 중앙일보 (2007)<국내 멸종 토종 씨앗 34 종 반세기 만에 돌아온다> 잡속일: 2019.10.20
[19] 한겨래. (2006 년) <한반도 종자사냥> 일.미 차례로 쓸고 지나가> http://www.hani.co.kr/arti/PRINT/177396.html 접속일: 2019.10.27
[20] 이형규. (2005 년 4 월) <세계는 종자전쟁 중-녹색 황금 노리는 식물 사냥꾼> 과학동아.
[21] 6 쪽. 농림수산식품부. (2010) <이슈분석보고서 제 2 호 종자산업>
[22] 안철환 (2016) <호미 한자루 농법, Volume 1> 들녘 출판사

1917 년 여행가 프랭크 메이어 (Frank N. Meyer)당시 미 농무부의 의뢰를 받아 조선, 중국과 러시아의 다양한 식물 채집하고, 1929-1932 년 도셋과 모스 (Dorsett and Morse)가 이끈 본격적인 첫 콩 원정대 (동양농업탐사원정대- Oriental Agricultural Exploration Expedition)가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콩원정대가 동아시아에서 수집해간 종료는 총 4471 점이었고 그 안에 한국의 것이 약 3500 점이었다(약 76%). 1984 년부터 1989 년까지 5 년동안 배리 잉거 (Barry R. Yinger)를 비롯해 미국 수목원 관계자들이 3 차례를 걸쳐 한반도 전역의 희귀한 식물들을 채집했다. 모은 종자는 미국 대두산업의 중요한 모태가 되었다. 현재 미국 유전자원보존소에 보관된 한국의 토종 콩은 4000 여 전에 이른다. 한국 농촌에서 볼 수 없는 콩은 상당수다. 모두 PI (Plant Introduction)로 시작되는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어 식물종을 나타내고 미국의 특허권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농민은 이를 쓰려면 종자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미국 기업에게 로얄티를 지불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미국이 수집한 식물자원이 전체 약 65 만 종에 이른다. 미국은 세계 1 위인 식물종자원 보유국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 종자는 민간 기업이 연구용으로 써왔으며 이 중 일부 역수입되고 있다. 역시 GMO 종자도 아시아 또는 다른 제 3 세계 나라에서 수집된 자원으로 개발된 것이다.[23]

그러므로 18 세기부터 시작된 식민지 시기는 제 3 세계 나라들의 토종 식물변종을 멸종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도에서 제국간에 식물변종 이전 또는 돈벌이작물 단일 품종의 대량 농사로 인해 토양의 질이 낮아지고 토종작물이 없어짐으로써 많은 비극이 이루어졌다면 한국에서는 영국제국으로 비롯해 일본과 미국까지

중앙일보 (2007)<국내 멸종 토종 씨앗 34 종 반세기 만에 돌아온다>

[23] 이석하. 장경호 엮음 (2014)

종자자원이 국외로 유출되어 6.25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토종 품종이 없어지게 되었다.

b) 세계 2 차대전 후 국가의 산업화와 녹색혁명

1930 년대부터 1980 년대까지 선진국 정부들은 세계 식량 경제를 가꾸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지난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 비롯하여 모든 서양 나라들은 20 세기 초반까지 산업적 농업을 개발하여 전체적으로 채택하였다. 연구실에서 발달한 이 농업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 접근은 미국에서 17 세기 중반부터 촉진하였다. 미국에서 정부가 지원한 랜드그랜트칼리지에서 농업생산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시작이 되며 그 결과 현재 흔히 보이는 산업적 농업이다. 이는 많은 자본의 투자, 새로운 품종의 잡종 종자 및 화학 비료와 농약의 이용, 과대한 논밭에 단일 품종 농사(monocropping), 관개 시설, 심기와 수확의 기계화의 채택 등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적 농업의 선택은 1930 년대 뉴딜 (US New Deal) 경제 정책에서 1929 년 대공황 (Great Depression)을 맞서기 위한 특히나 보강하였고 이와 함께 미정부는 농업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강화시켰다. 농민 생계가 보장된 뿐더러 국가의 식량안전도 보장되었다. 당시 다른 선진국도 미국 예를 따르며 영국을 비롯해 다른 서유럽 나라들 또는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모두 이러한 농업 보호주의적 정책을 확립하였다. 세계 2 차 전쟁 이후 1950-1960 년대에 미국과 캐나다 또는 다음에 유럽에서도 작물 과잉이 많아져 국가에게 그 잉여 작물을 보관하는 것이 비싸서 국내 식품 가격을 낮추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재빨리 내보는 것이 중요했다. 그럼으로 새롭게 독립되고 형성된 제 3 세계 국가들은 미국에게 좋은 대상이었다. 인구도 많고 기아가 널리 퍼져있어 1940-1950 년대의 한국과 인도와 같은 제 3 세계 나라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식량원조의 대상국이 되었다. 미국의 식량원조

프로그램은 1954 년에 시작되어 제 3 세계에게 작물을 '혜택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 아래 개발도상국들에게 미국의 작물, 대부분 밀, 구매를 위한 시중금리보다 낮게 전기대여금을 부여하는 제도였다. 개발도상국에게 수출은 원조로 받아 드려져 왔으나 실제로 원조와 판매 사이에 놓여 있으며 애매하다. 1963 년에 세계 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그리고 1967 년에 식량원조규약(Food Aid Convention) 국제기관도 함께 확립되었다. 미국에게는 인도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식량원조로 통해 명백히 개발도상국에서 더 넓은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냉전시기에서 공산주의의 경로를 막는 데에도 식량원조가 쓰여지는 것이었다. 1970 년대에 미국의 절반의 작물은 수출되고 있었다. 이 30 년동안 제 3 세계 국가들은 미국에게 식량수입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24]

식량원조로 제 3 세계의 기아를 보강하지 못해 미국은 서양식 산업적 농업- 잡종 씨앗, 화학 농약-비료, 기계, 단일품족 또는 관개- 이 조합을 제 3 세계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도 식량원조와 같이 냉전 시기 때 공산주의를 막는 방법으로 쓰여지며 미국은 배부른 인구가 공산주의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 과정을 '녹색혁명'라고 불렀다. 1960 년대에 녹색혁명이 가장 널리 펼쳐졌지만 1940 년대부터 록펠로재단(Rockefeller Foundation) 또 다른 민간기업과 함께 수출되기 시작되었다. 녹색혁명 연구에 가장 핵심적인 농학자는 노먼 볼로그(Norman Borlaug; 1914~2009)이었다. 1960 년대에 볼르록의 연구는 일본에서 수입된 씨앗으로 키가 작은 밀을 개량해 비료와 농약과 같이 쓰면 다수확을 하는 '기적의 종자'로 불리는 잡종 씨앗(High Yielding Variety-HYV seeds)을 만들었다. USAID (미국 국제 개발처)와 다른 민간 재단은 제 3 세계의 '녹색혁명' 또는 을 자자간원조로

[24] 32~35 쪽. Clapp, J. (2016). <*Food*> 2nd Edition. Polity Press. UK.

격려했다. 현지 기후에 맞는 씨앗을 개량하기 위한 현지 연구원을 설치해 아시아에서 주로 먹는 쌀과 같은 작물을 개량했다. 또는 이 민간 조직들은 종자 씨앗과 함께 필요할 비료와 농약을 구매하기 위한 농사신용을 제공했다.[25]

- **인도의 녹색혁명 또는 토종 씨앗**

인도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결과는 복잡했다. 1947 년 에 인도가 독립이 되었을 때 90% 인구가 600,000 개의 농촌마을에서 살고 있었고 농업으로 생계를 지켰다. 인도에서 쓰여지는 토종 씨앗은 수천년 동안 토착화되어왔다. 인도에서 실천 프로그램은 포드재단 (Ford Foundation)의 지원으로 출시된 Intensive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 (IADP)로 불렸으며 1960-1961 년에 근대적인 HYV 잡종 씨앗, 농약과 비료의 구매를 위한 농민들에게 대출을 주는 조직이었으나 1965 년에 미국과 식량원조의 조약이 소멸되고 인도에서 급격한 가몸과 기아가 찾아와 미국은 인도에게 추가 식량원조의 공급은 본격적인 '녹색혁명'의 지지에 달려 있는 조건부를 내자 "짧은 밧줄" 접근법 (short-tether approach)을 활용했다. 그럼으로 인도는 미국의 압박감과 개발의 의지로 인해 펀자브 지역으로 비롯해 녹색혁명을 이루어지게 했다.[26]

녹색혁명은 인도의 농업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인도는 처음으로 작곡 자급률이 높아졌고 잉여 작물이 나서 처음으로 수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작물 수출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1960 년대가 끝나기도 전에 녹색혁명의 문제점들이 들어나기 시작하였다. 제 3 번째 'All-India Rural Labour Enquiries' (1963-64) 와 제 4 번째의(1974-75)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임금노동의 평균총일수는

[25] 38 쪽. 같은 자료.
[26] 39 쪽. 같은 자료.

남자에게 1 년에 235 일에서 210 로 줄어들었고, 여성에게는 153 일에서 143 일로 줄어들었다. 실제 임금은 남성에게 전체의 3 의 1 이 줄어들었으며 여성에게는 거의 절반이 되었다.[27] 녹색혁명은 인도 전체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한 임금격차가 발생함에도 불고하고 녹색혁명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도 농민들은 심한 부채의 악순환에 빠지곤 했다. 인도는 물부족국가이며 산업적 농업에 쓰이는 잡종씨앗은 관개 집약적이고 비료와 농약 집약적이다. 이는 관개 기계와 농자재를 구매할 자본을 필요로 하다. 그것을 갖기 위한 농민이 빚을 내야 되며 지난 수확의 실패로 이미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이 불가능해 개인 대출업체로 빚을 내는 경우가 많다.[28] 1960 년대 말에 이미 다수확 쌀 품종과 같은 HYV 잡종씨앗의 획득형질(acquired traits)의 불안정과 환경파괴는 정기적으로 수확과 작곡 품질의 저하를 시켰다.[29] 그래서 떨어지는 수확량과 값비싼 농자재와 관개 기계 등 사이에 농민이 놓여있었다.

그러나 산업적 농업은 농민 삶뿐만 아니라 환경에 심한 악영향을 미쳤다. 단일품종 종자를 쉼 틈없이 심으면서 토양의 질이 급격히 낮아져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더 많은 화학물질인 농약과 비료를 써야 하며 농민과 소비자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을 파괴시키고 독하게 만드는 것이다.[30] 그리고 이는 자연히 식물다양성 또는 토종 씨앗이 없어지게 한 원인이다. 전세계에서 토종 씨앗으로 개량화 되어서 만든 HYV 잡종

---

[27] 4 쪽. Patnaik, U. (1983). On the Evolution of the Class of Agricultural Labourers in India. Social Scientist, 11(7), 3-24. doi:10.2307/3520354

[28] NPR News.<'Green Revolution' Trapping India's Farmers In Debt> (2009) https://www.npr.org/2009/04/14/102944731/green-revolution-trapping-indias-farmers-in-debt; 접속일: 2019.09.22

[29] 349 쪽. Ashraf AM, Lokanadan S. (2017) A review of rice landraces in India and its inherent medicinal values -the nutritive food values for future. Int J Curr Microbiol App Sci.6(12):348-35

[30] The Government of Punjab *(2004).* Human Development Report 2004, Punjab. 접속일: 2019.10. 31 Section: "The Green Revolution", pp. 17-20

씨앗은 서서히 토종씨앗을 교체했다.[31] 현재 녹색혁명이 이루어진 지역(펀자브, 하르야나 등) 식물다양성이 가장 파괴된 것이다. 토종 씨앗의 수확량은 잡종씨앗보다 덜하더라도 농약과 비료 집약적이지 않아서 토양의 질을 파괴시키지 않는다. 다수확을 위한 농약과 비료의 남용은 자연미생물을 바꾸며 토양의 알칼리성과 염분을 높이며 물질적과 화학적 저하를 일으킨다. [32] 녹색혁명 전에 재배된 식물은 쌀, 기장, 솔검, 밀 그리고 보리의 많은 품종이었다.[33] 녹색혁명 뒤에 생산량이 낮았던 밀과 쌀이 급증하고 솔검, 수수 등은 전에 집-집 마다 섭취되었으나 70 년대 되자 생산이 뚝 떨어졌다.[34] 쌀의 토종 품종도 1960 년대 전에 기록된 100,000 종에서 6000 종 밖에 남지 않았다.[35]

- **한국의 녹색혁명 또는 토종 씨앗**

앞부분에서 확인한 듯이 냉전시기에서 미국은 새로 독립된 국가에게 식량원조 또는 농촌의 절대 빈곤을 해결하여 산업화를 위한 기본적 자원을 확보하고 공산주의를 농민층에 스며들지 않는 것을

---

[31] Harlan, J.R. (1975) *Crops & Man.* 2nd Edition, American Society of Agronomy, Crop Science Society of America, Inc., Madison.; Wilkes, H. (1977). Hybridization of Maize and Teosinte, in Mexico and Guatemala and the Improvement of Maize. *Economic Botany, 31*(3), 254-293.

[32] 82 쪽. Singh, R.B. (2000).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 case study from the Green Revolution state of Haryana, India. *Agriculture, Ecosystems & Environment*.. 97-103.

[33] 13 쪽. Hall WF. *Agriculture in India.* Regional Analysis Division, Economic Research Servic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1964. https://archive.org/details/agricultureinind64hall.

[34] Eliazer Nelson, A.R.L., Ravichandran, K. & Antony, U. (2019) The impact of the Green Revolution on indigenous crops of India. *Journal of Ethnic Foods* 6:8; Dec. 2019. https://doi.org/10.1186/s42779-019-0011-9

35 The Hindu. (2012) From 1,10,000 varieties of rice to only 6,000 now. India; http://www.thehindu.com/news/national/karnataka/from-110000-varieties-of-rice-to-only-6000-now/article3284453.ece 접속일: 2019.08.20

기대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 후의 미국의 대외 식량 원조 계획인 'Food For Peace' (FFP) 아래 한국은 미국의 식량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 [36] 미국은 키가 작은 밀 (dwarf wheat)를 이어 1960 년대 중반에는 필리핀의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 에서 "기적의 쌀"로 알려진 IR8 품종부터 (인도 녹색혁명에 쓰여진) 시작해 여러 가지 키 작은 벼를 개발하여 쌀을 주식으로 삼는 아시아 나라들에게 새로운 품종을 보급했다.[37]

박정희 정부는 신생국가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이 녹색혁명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에서도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먹는 쌀은 "자포니카" 품종과 비슷한 짧고 차진 쌀이었으나 대만과 일본 외에 아시아에서 IR8 의 "인디카" 품종의 쌀- 길고 찰기 없는 쌀을 주식으로 먹는다. 그럼으로 인도에서 보급된 IR8 는 한국에서 쓸 수 없었던 것이었다. 한국에서 녹색혁명 이루기 위한 한국 입맛에 맞는 다수확 잡종 씨앗을 개량할 필요를 느꼈다. 박정희에게 이 사업은 얼마나 중요했는지 개량 시행착오 과정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았던 품종 '희농' 쌀에의 자신의 이름에서 '희'자를 떼어 썼는데 결국 한국의 기후에 맞지 않아 쓰지 못했다. 결국 성공을 얻은 계기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허문회가 1964 년에 IRRI 에 벼 육종을 연구하러 갔을 때였다. 미국 벼 육종의 최고 권위자였던 헨리 비첼(Henry Beachell)에게 벼 육종을 배우고 2 년 동안 IRRI 의 품종 개량에 참여했다. IRRI 에서 연구결과 1966 년에 키 작고 이삭이 크지만 온대 기후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낸 것이다. 이것을 박정희 정권에서 "통일벼"라고 불렸다. 이는 기존의 자포니카 품종보다 30% 수확량이 높아 1970 년에 농가에

[36] 33 쪽. Clapp. J (2016)
[37] 1~5 쪽. 김태호 (2009) <통일벼와 1970 년대 쌀 증산체제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통일벼가 찰기가 없어서 맛없다는 비판이 많아져 박정희는 자신이 국무회원의 시식회에서 맛이 좋다는 의견을 남겼다. 1973 년부터 통일벼 재배 면적이 급증하였고 “유신”, “조생통일”과 같은 다른 후계 잡종 씨앗들이 만들어졌다. 1977 년에 이미 전국 논은 통일벼로 채워졌다. 1977 년에 녹색혁명 성취가 선언되었고, 쌀의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넘어 해외에 수출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통일벼 품종은 새마을 운동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농민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기도 했다. [38]

녹색혁명에서 개발된 품종은 생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매우 많은 다량의 투입물을 필요로 하였고 화학 농약과 비료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품종이었으며 이러한 다비성 품종은 각종 병해충에 약하게 되면서 자연히 농약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 품종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대의 환경문제와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를 동시에 가져온 것이다.[39] 녹색혁명 과정에서 쌀의 다른 품종은 역시 또는 쌀 이외의 작물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집-집 마다 먹는 작물들은 이제 낙농과 축산에 사료용으로도 쓰여지지 않아 통일벼로 인한 쌀 자급을 발표되었던 1977 년의 전체 곡물 자급률은 60% 전후로 떨어졌으며 2010 년에는 30%밖에 되지 않았다. [40]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래 여러 품종 재배되던 벼농사를 통일벼로 단순화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에 통일벼는 도열병과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했으나 냉해에 취약했다. 1978 년 또는 1980 년에 냉해를 입어 수확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쌀 국제 시장에서 3 배 가까운 가격으로 쌀을 수입해야 했다. 종자의 단순화는 식량위기로 이어진

---

[38] 19~22 쪽. 같은 자료.
[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년) <녹색혁명과 녹색성장>
[40] 21 쪽. 김태호. (2009 년)

것이다. 쌀뿐만 아니라 콩의 수많은 토종 종류의 광교 콩으로 단순화는 괴저 바이러스에 취약해 콩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41] 이 시기에 많은 토종 품종들이 없어져 말았고 '유전자 침식'(genetic erosion)이 이르렀다. 한국의 토종 작물의 관한 우려가 커지자 2009 년에 농촌진흥청에서 토종 작물의 수의 변화를 관찰해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국가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고추, 수수, 기장 등은 더 이상 재래종이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는 조사한 작물 중 26%가 재래종이었으며 74%를 잃어버렸다는 듯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 언급한 재배 품종의 단순화때문인 것이다.[42]

토종 씨앗의 소멸과 함께 그 씨앗을 지켜왔던 소농도 없어지기 마련이다. 녹색혁명은 단작 (단일작물농사)을 하려면 판매가 잘되는 몇몇 종료를 선택해서 대량적인 농사를 해야했고 토양의 질이 나빠질수록 농자재를 많이 사야 하고 수확량이 떨어져 돈이 많이 드는 산업이었다. 그리고 어떤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되면 토종 농사에서 많은 종료를 같이 심기 때문에 손실이 크지 않는 반면에 만약 단작 농산물의가격이 폭락되면 한꺼번에 모두를 잃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농사가 농민의 자급자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한 규모가 클수록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소농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다.[43] 한국은 1960 년대에 수출지향적인 공업화 중심의 개발을 고속도로 추진하였고 1962 년부터 5 개년계획을 진행하였으며 제 2 차와 제 3 차 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제 1 차 산업인 농업은 뒤쳐진 것이었고 박정희의 정부의 모든 농업에 관련 정책은 농민이 농사로 생계를

[41] 57 쪽. 제작팀. (2014)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KBS 스페셜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시대의창.
[42] 같은 자료.
[43] 같은 자료

유지할 수 없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44]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소득 공업 노동자였으며 농사 지어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된 농촌인구는 도시로 이동하면서 대대로 받아온 씨앗, 농업 또는 농촌 조차 떠났다. 1970 년대의 새마을운동도 농민의 삶을 개선하였다는 주장도 주지의 사실로 알려지지만 1970 년대 내내 이촌향도 인구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마침내 한국의 농가 인구는 1990 년 715 만 명에서 2011 년에 296 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소농이 줄고 농촌 인구가 없어지면서 농촌 공동체가 파괴되었다. 그와 함께 대대로 지켜왔던 토종씨앗 또는 농촌 고유의 문화 파괴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명절도 모두 농촌문화에 바탕을 찾는데 점점 같이 사라지고 있다.[45]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촌은 고령화되었고 여성화되었다. 농촌 대부분은 60 세 이상이며 농업인 가운데 여성 비중은 1970 년 28.3%에서 점차 증가해 2017 년 여성농민은 52.7%에 달했다. 매해 증가하는 수준을 보였다. [46]

그럼으로 전 세계로 확산된 녹색혁명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자급률이 높여지자 미국 또는 유럽의 잉여 농산물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농업을 국가안보만큼의 중요한 것으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는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수입 농산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실시했다. 그리고 자국의 잉여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1980 년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에게 농산물 시장 개방을 권유하고 자유무역을 추진했다.[47]

---

[44] 3 쪽. 응웬티탄타오. (2015) <1960 년대 박정희 정부의 농업정책 분석> 석사하귀논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45] 113 쪽.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46] 중앙일보. (4 월 2019 년) "여성 농업인이 52.7%인데 지위낮아"…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전담팀 올해 상반기내 구성" 접속일: 2019.08.25
[47] 113 쪽.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c) 식량 제도의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80 년대부터 세계의 식량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개발도상국의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이었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 나라들은 자신의 식량 시장을 계속 보호하였으나 80 년대 되자 신생국들에게 계속적으로 시장 개방을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은 WTO 또는 세계 은행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시장 개방을 원하여 SAP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를 권유했다. 80 년대 국제기관들은 개발도상국의 농업분야에게 경제성장의 가능성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또는 많은 경우에 국가채무가 높아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이 나라들에게 권유한 SAP 조건은 변동환율, 통화의 평가절하, 투자와 무역 정책의 자유화 또는 정부 지출 축소 등이었다. 이 모든 정책 변화는 개발도상국의 농업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왔다. 농업분야에 투자가 떨어졌고, 생산은 부진해졌고, 식량 수입은 시장을 점령했으며 부채 수준이 계속적으로 높아졌다.[48] 미국은 20 세기 내내 자신의 농업분야를 조성산업으로 여기고 있으며 보호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니 1947 년에 확립된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서 국가 농업분야의 보호에 대한 아무런 규칙이 없었으나 미국의 농업분야는 1980 년대 중반에 위기에 이르렀고 새로운 수출할 시장이 필요해서 1994 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후 Agreement on Agriculture (AoA) 아래 농업 무역 자유화는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은 이미 SAP 로 취약해져 있었고 선진국들은 높은 수준의 보호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개발도상국의 시장에 수입되어 지역에서 농산물은 경쟁에서

[48] 65~67 쪽. Clapp. (2016)

뒤쳐졌다. 시장 진입의 허용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차지하는 세계 농산물 시장의 몫을 크게 늘리겠다는 예상을 하였으나 35%에 부진하고 있다. [49]

이 시기에 인도도 1991 년 IMF 과 세계은행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였다. 1990 년대부터 인도의 농업은 점차 개방되어가면 농가 소득이 낮아지고 농산물 수확량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50] 이는 지역간 또는 농촌 사회에서 심한 임금격차로 이어졌다. [51] 한국은 1997 년에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IMF 로부터 자금 자원을 받았다. 이 "IMF 사태" 이후에 한국의 농업 시장이 개방화되면서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고 쌀과 같은 민감한 농식품의 의무수입량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하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최근 3 개년(2015~2017 년) 평균 23%에 그쳤다. 사료용 곡물을 포함해 한국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77%가 외국산이라는 뜻이다.[52] 그럼으로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유엔(UN·국제연합)의 세관통계 자료인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7 년 기준 한국의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181 억 300 만달러로 집계되며 세계 6 위에 있다는 것이다.[53] 세계화 시기에서 개발도상국의 더 취약해진 농민층은 조금이라도 소득을 많이 벌고 생계를 지키는 것이 제일

---

[49] 78 쪽. 같은 자료.

[50] 19 쪽. Ghosh, Madhusudan. (2017) WTO, Trade Liberalization and Indian Agriculture. Indian Agriculture Under mult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petitiveness and Food Security Concerns, Edition: First, Chapter 2, Centre for WTO Studies, and Bookwell, pp.19-43

[51] 332 쪽. P. Eashvaraiah (2001) Liberalisation, the state and agriculture in Indi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1:3, 331-345

[52] 농민신문. (2019) 곡물자급률은 '세계 최하위'…농약 사용량은 '선진국의 10 배'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12279/view 접속일: 2019.08.25

[53] 같은 자료.

중요해졌고 다수확 잡종 씨앗을 선택하여 정부 수매와 시장의 공급에 따라 농사를 지어 씨앗을 지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90 년대에 시장 개방화되면서 급격한 이촌향도적 인구이동이 일어나며 젊은 세대 또는 남성은 도시로 떠나며 농촌이 여성화되었고 현재 인도의 농업인 가운데 50-65%가 여성농업인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농업분야에 일하고 있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Srivastav & Srivastav 은 이것을 'creeping feminization'으로 표현하였다.[54]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민에게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지적재산권협정(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이었다. 이 협정 아래 식물품종을 특허법 또는 개별법 등으로 보호하도록 하여 품종보호제도는 WTO 가입국가의 의무사항을 말한다. 이는 많은 농민단체들에서 씨앗 권리에 관한 치매로 여겨지고 있다.[55] 생명공학 다국적 기업이 계속 요청해온 것이었고 농민들이 선정-보관해온 기존에 존재하는 종자를 식민지 시기 또는 그 다음에도, 지역에서 수출해가 개량을 하여 특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세계 많은 농민단체들의 반대가 일어나며 '식량주권'과 함께 '종자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전통 식물, 예를 들어 인도의 '님' 아니면 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국의 '청양 고추' 등을 토대로 쓰고 개량하여 특허를 한다면 수백년 동안 종자를 지키고 토착화시켜온 농민들에게 아무런 인정이나

---

[54] The Wire.(2018) The Centre Is Barely Serious About Recognising Women as Farmers
https://thewire.in/women/women-farmers-agriculture-rights; 접속일: 2019.08.25;
164. Srivastava, Nisha, and Ravi. Srivastava. (2009) "Women, Work and Employment Outcomes in Rural India." Paper presented at the FAO-IFAD-ILO Workshop on 'Gaps, Trends and Current Research in Gender Dimensions of Agricultural and Rural Employment: Differentiated Pathways out of Poverty'; FAO, Rome; 31 March-2 April.

[55] 국립종자원. <제도 도입 배경과 의의>
http://www.seed.go.kr/seed/962/subview.do

보상을 받지 못해 오히려 역수출이 될 때 농민이 로얄티를 내게 된다. 이것을 흔히 생물 자원 수탈(biopiracy)라고 한다. 1995 년에 WR Grace 라는 기업과 미국 농무부는 인도의 토종 식물변종 '님'으로 개량된 가공품에 유럽특허청에 특허를 했으나 10 년동안 법적 싸움 뒤 2005 년에 인도 나바단야의 회장 반다나 시바, 유럽의 녹색당 또는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IFOAM)과 함께 인도정부는 이 법정 소송에서 승리하였다.[56] 나바단야는 이러한 biopiracy 에 반대하여 법정소송에서 계속적으로 인도의 토종 변종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이 중에 인도의 바스마티 쌀 또는 강황도 있다. 한국에서 수출된 종자자원 중 토착 생물자원인 미스킴라일락 등이 역수출되고 있으며 식민지 시기 부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농업과 먹거리 관련 기업은 세계의 첫 초국적/다국적 기업들이었다 (네덜란드와 영국 동인도회사). 80 년대 또는 90 년대 먹거리/가공 대기업 ('Big Food'), 농자재 기업 (잡종/유전자변형 종자, 화학 비료, 농약, 잡초제 등) 또는 식품소매 기업이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이 시작했다. 이 3 개 분야의 다국적기업은 빠르게 통일되고 있는 형상이 보인다. 오늘날의 세계 작곡 무역의 70%가 4 개의 다국적 기업이 정령한다- Midland, Bunge, Cargill 그리고 Louis Dreyfus (ABCD 기업으로 알려진다).[57] 농자재 상위 10 개의 기업에서 개량된 (특허법으로 보호된) 잡종 또는 유전자변형 종자는 세계 전체 종자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 상위 3 개-몬산토, 두폰트,시젠타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90 년대부터 몬산토, 가르길, 등 큰 종자회사와 농사산업 회사(agribusiness corporations)들은 인도를

[56]BBC. (2005) India wins landmark patent battle. http://news.bbc.co.uk/2/hi/science/nature/4333627.stm; 접속일: 2019.10.01

[57] 113 쪽. Clapp (2016).

큰규모 시장으로만 여겼고 시장 진입하였다. 2010 년부터 2015 년까지 인도의 잡종종자 시장이 매해 20.59%로 성장하고 있다.[58] IMF 사태 이후 한국의 1~4 위 종자회사들은 해외로 넘어가면서 다국적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순식간에 14%에서 65%로 커졌다. 현재 다국적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나 다른 나라에 지급하는 종자 로열티는 2006～2015 년 1 천 457 억 원에 달했다. 반면 한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로열티는 1%도 안 되는 9 억 5 천만 원에 그쳤다.[59] 그럼으로 대부분의 생산자들 종자를 다국적기업에서 구입해서 농사 짓고 있다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 전여농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로열티를 지불해야하는 기업의 씨앗의 이윤을 높이기 위한 한번 밖에 발아하지 못합니다. F1(잡종 1 세대)품종,'터미네이터'와 '트레이터' 등은 1 회성 품종이기 때문에 매년 농민들이 새롭게 구입해야하는 씨앗입니다. 또한 생명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해 그에 맞는 농약을 살포해줘야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60] 그리고 토종씨앗을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는 시작이 되리라" 믿는다고 한다.[61]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인 토종 씨앗 지키기를 하는 전여농 소속 여성농민뿐만이 아니라 현재 농민 모두가 치열한 경쟁에 쳐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인도에서 Bt 면화 GMO 종자를 선택한 수많은 면화 농민들은 자본 집약적인 농사의 부담, 가몸 또는 GM 종자의 수확의 실패로 매해

---

[58] 2 쪽, Indian Council of Food and Agriculture report. <Indian Seed Market> https://icfa.org.in/assets/doc/reports/Seeds.pdf

[59]연합뉴스. (2016) [마이더스] 종자는 '농업의 반도체'… 금값 2 배 이상도 https://www.yna.co.kr/view/AKR20180330170700980; 접속일: 2019.09.10

[60] 언니네텃밭 웹페이지. <소개> http://www.sistersgarden.org/?act=info.page&seq=1; 접속일: 2019.09.08

[61] 같은 자료.

늘려가는 부채를 대면하는데 많은 면화 농민들은 치명적 선택을 한 것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인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GMO 에 관해서 우려하는 시민 또는 농민 단체가 많다. 나바단야는 GMO 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단체이며 GMO 의 진입을(Bt. Banana, Bt. Brinjal 등) 막기 위한 계속적 활동하고 있다. 전여농의 씨앗 지키기 운동도 GMO 반대운동부터 시작된 것이다. 한국 시장에 아직 GMO 종자는 진입되지 않았지만 연구 단계에 있으며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 년에 국내에서 승인된 GMO 는 총 960 만 t(21 억 달러 규모)이다. 사료 및 시험 또는 연구용으로 수입된 GMO 는 76%, 식용은 24%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량의 87.6%(841 만 t)는 옥수수가 차지했고 대두(104 만 t), 면화(15 만 t) 등이 뒤를 이었다.[62] 2014 년 한국은 일본과 맞서고 있으면서 GMO 식용 수입량 세계 1-2 위였다. 옥수수와 콩은 전체 수입물량 가운데 80-90%가 GMO 로 수입 신고될 만큼 압도적 비중으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한국과 인도의 소비자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GMO 관련 완전표시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63]

iii) 식량주권과 종자주권 또는 비아 캄페시나

오늘의 세계농식품체계(global agrifood system)를 반대하는 세계 식량주권 운동들은 그것의 주된 문제들에 대한 저항한다. 식량주권운동은 농식품제도 안에 권리를 주장하는 광범위한 농민운동을 말한다. 이는 농민, 공동체, 구가의 자신의 특정 맥락에 맞는 식량 정책을

---

[62] 과학동아.(2018) <작년 GMO 수입량 줄었지만…연구용 전년 대비 24% 증가>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3480; 접속일: 2019.10.08

[63] 환경일보.(2019) <수입 콩·옥수수 80~90% GMO… 이력관리는 깜깜>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881 접속일: 2019.10.08

선택할 전체적인 주권을 권유하고 지역 소비자들의 충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다. 식량안전은 한 국가에서 문화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영양이 있는 먹거리의 공급을 말하는 것인데 그 먹거리가 어디서 생산되고 오는지가 제외되어 있어 식량주권과 매우 다른 개념이다. 식량주권은 지역적 생산과 지역적 소비를 강조한다. 식량주권 개념을 처음 세계무대에서 소개한 집단은 세계적 농민 단체 "비아 캄페시나"이고 1996 년 로마의 세계 식량 정상회에서 WTO 우루과이 라운드 AoA 에 직접적 저항으로 시작되었다. 농민들은 스스로 잘못된 세계 농식품시장에 의지를 줄이고 지방 자급자족을 강조하고 농민의 자급자족을 중요시하는 대안적 농식품체제를 말한다.[64] 비아 캄페시나는 대외적 경제와 개발을 주장하는 '조직들의 조합' 운동이다. 이는 전세계 81 개국에서 182 개 조직을 연합한 것이며 한국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멤버로 속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나바단야 운동도 비아 캄페시나와 동시에 출범하여 협력 조직이다. 비아 캄페시나의 주목적은 토양, 물, 식량 또는 종자에 권리는 모든 공동체에게 있다는 것이다.[65] 종작주권은 특허법으로 보호되지 않고 유전자변종되지 않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종자를 자가채종을 하여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운동으로써 씨앗을 지키는 것은 나바단야가 전세계 첫 운동 중 하나다. [66] 전여농도 나바단야와 비아 캄페시나의 이 종자주권 또는

[64] 180~190 쪽. Clapp (2016)

[65] Via Campesina. (2018) <Food Sovereignty Now! European Coordination> https://viacampesina.org/en/wp-content/uploads/sites/2/2018/02/Food-Sovereignty-A-guide-Low-Res-Vresion.pdf 접속일: 2019.08.15

[66] Navdanya. Seed Sovereignty. https://www.navdanya.org/earth-democracy/seed-sovereignty 접속일: 2019.10.09

식량주권 개념의 언어를 자주 쓰이며 국제적인 운동과 연대를 맺는 모습을 담론의 표현방법에서도 볼 수 있다.

iv) 인도 나바단야의 씨앗 지키기 운동

나바단야 (Navdanya)는 인도에서 1987 년에 씨앗 지키기운동으로 시작하고 종자와 식량주권을 추구하는 여성중심 풀뿌리(grassroots) 비정부기구가 되었다. 나바단야는 인도에서 가장 큰 공정거래와 유기농직거래 네트워크를 확립했다. "나바단야"라는 단어는 힌디어로 '9 개 씨앗'을 의미한다. 이는 인도 전통 식생활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말이며 현재의 단일 작물로 이루어진 밥상보다 다양화된 음식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것이 토종씨앗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본다. 나바단야의 창립자 반다나 시바는 전세계 유명한 환경보호 활동가이며 인도 또는 다른 나라에 유전자변형에 진입을 반대하고 자연자원을 독점하려는 많은 초국적기업과 조직들을 반대하는 운동을 이끌어왔다. 시바는 1970 년대 우타라칸드 지역 산에서 삼림 발채를 저항한 집코운동 (Chipko Movement) 농민여성들과 함께 참여했으며 그 경험의 기반으로 마리아 마이스와 함께 섭얼턴 (subaltern) '에코페미니즘'을 학계에서 전개하였다.

나바단야는 지난 30 년동안 인도의 17 개 지역의 씨앗 지킴이들과 친환경 생산자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며 111 개 공동체 종자 은행(community seed banks)을 만드는 데 공헌했다.이 종자 은행은 모든 농민들이 토종 씨앗을 '빌릴' 수 있으며 수확을 하고 다시 지킨 씨앗을 돌려줘야 될 공동체 기관이다. 나바단야는 뉴델리에 본사가 있으나 나바단야의 토종 논밭은 우타라칸드주 데라둔 도시 근처에 위치한다. 여기 자리한 종자은행은 벼 500 종, 토종밀 150 종, 보리 11 종, 피

(barnyard millet) 5 종, 귀리 10 종, 손가락조 6 종, 조 (foxtail millet) 3 종 그리고 겨자 7 종 등을 보관하고 있다. 나바단야는 현재까지 인도 전체에서 쌀 3000 종을 보호하였다.

나바단야는 자급자족을 목표로 두며 500,000 명의 농민들을 종자/식량주권 또는 자급자족 농사에 관해 트레이닝을 해왔다. 나바단야의 회원수는 6.5 만명 넘으며 5000 개 '토종 마을 회의'를 구성하고 모두 자신만의 공동체은행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 씨앗 뿐만 아니라 농사 지식과 지역의 식물다양성에 대한 기록도 함께 하고 있다. 우타라칸드주의 나바단야 논밭에서 '씨앗 학교'도 운영하며 여기 전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씨앗 지킴이' (Bijak)가 되며 학교에서 식물다양성, 생태농업, 에코페미니즘 등을 배우고 나머지 시간은 나바단야 논밭에서 농민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나바단야에는 모든 농민이 회원이 될 수 있으나 나바단야는 여성들이 이끄는 여성-중심 조직이며 인터뷰에서 볼 듯이 대부분 농민여성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마을 마다 '여성 마을 단체'를 구성하여 토종 농사 트레이닝, 창업 지원 등 여성농민들 위한 여러가지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나바단야는 공정거래 네트워크르를 확립하여 인도 대도시들에서 토종 농산물 또는 가공 제품 아울렛과 카페를(Navdanya Slow Food Cafe) 직접 운영하기도 하여 파트너 친환경 기관들 통해서 토종 씨앗을 지키고 농사하는 농민들의 생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바단야는 GMO, 토종 농사, 식물 다양성, 토종 요리법 등 주제들에 대한 연구하고 책을 출판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67]

[67] Navdanya: An Overview; https://www.navdanya.org/about-us/overview 접속일: 2019.09.10

v) 한국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

전여농은 2019 년에 창립 30 년을 맞이했다. 80 년대 말 조직화가 이루어지며 1990 년대 전국 여성농민 조직이 설립된었다. 1989 년 3 월 '여성농민 조직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로 활동이 시작이 되었고 1989 년 12 월에 '전국여성농민위원회' 이름으로 여성농민운동의 대표 조직이 확립되었다. 1990 년대 들어서 여성농민운동은 전여농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전여농은 씨앗 지키기 또는 '여성'농민에 관한 문제에 나서지 않았고 당시 쌀 값 폭락, 수입개방반대 등 세계화로 인한 생긴 농민의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 집회 등 하고 있었다. [68]

2008 년 한국에 미국산 식용 GMO 옥수수 5 만 7 천여 t 가 첫 수입되었다. 이 당시 전여농은 GM 전당분 수입에 반대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토종옥수수지키기 사업은 시작하여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때 전여농에서 첫 토종 씨앗 수집을 하러 나갔다. 마을 할머니들의 댁을 찾아가 씨앗과 함께 모든 정보를 기록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작년에 전여농의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도 10 년을 맞이했다.[69] 씨앗지키기운동의 첫 현장 활동은 2005 년부터 지역별 토종 씨앗 실태 조사였고 간략한 종자현황을 파악한 조사도 있었고 체계적으로 여성농민들이 직접 조사한 결과물을 보고서와 책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90%의 토종 씨앗을 여성들이 보호하고 있었다. 두번째 현장 활동은 공동 채종포 사업이다. 이는 여성농민들은 함께 씨앗을 심고 수확하기를 반복하는 것만이 아닌 토종에 대한 공동체의 지식을 늘릴 수 있는 연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횡성 같은 경우에 공동 채종포는 소비자와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체험

---

[68] 268 쪽. 김효정 (2011). 여성농민의 토착지식에 기반한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의 특성 과 과제. 농촌사회, 21(2), 263-300

[69] 20 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2017) <전여농 토종씨앗지키기 10 년 자료집: 생명을 담은 토종씨앗, 함께 지켜요!>

프로그램 실시되기도 하다. 또는 세번째, 2008 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1 농가 1 종자 지키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채종포 보다 더 확대된 형태다, 이는 각 농가에서 하나의 종자를 받음으로써 계속 순환되는 사업이다. 이 이외에 토종축제, 전시회 또는 씨앗 나눔 등 토종 씨앗의 중요성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사업들도 열린다.

전여농은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워크샵, 포럼,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했다. 2008 년부터 전여농 활동가, 간부들에게 GM 종자, 식량주권, 여성농민의 역할, 토종 씨앗 등에 대한 교육활동이 시자되고 우리텃밭 (현, 언니네텃밭)은 2009 년에 시작된 후 생산자들이게도 교육이 이루어졌고 또는 시민사회에 토종 씨앗에 대한 알리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2013 년부터 지역별 전여농 토종 학교가 열리고 있다. 강원도, 경북도, 경남도, 광주전남,전복, 제도, 충남북 지역에서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 후원 활동 중에 '만원의 행복' 사업이 있으며 이는 1 구좌의 만원으로 모금 받아 토종 씨앗을 키우는 기금으로 사용하고 모금한 소비자에게 그 토종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와 생산자 실천적으로 함께하는 식량주권 운동으로 의미를 가진다. 언니네텃밭은 토종의 소지를 확산시키는 사업이며 여성농민 1 인은 3 가지의 토종씨앗을 심고 나온 토종농산물을꾸러미로 통해 안정적인 소비를 한다. 또는 여성농민 1 인 1 가지의 토종농산물을 생산하여 언니네장터로 통해 판매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토종씨앗을 지키는 데에 핵심활동으로 설정되고 토종 씨앗을 지키는 여성농민의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다. [70]

[70] 129 쪽. 같은 자료.

3. 선행연구검토 및 문제의식

농업문제 (‘The Agrarian Question’)란 것이 정치경제학에서 고전적인 주제이다. 전통적으로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에서 농업문제는 다음과 같은 관련 문제들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이는 농업 위주 사회에서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로 변천하는 데에 소농민층 (Peasant class) 또는 비자본주의적이나 자본주의 이전에 생산관계의 운명, 농업분야에서 자본주의의 설정, 산업화 과정을 지속시키는 데 농업의 역할 등이 있다. 19 세기부터 유럽 마르크스주의 학자 또는 자본주의 학자 모두 농업문제의 해결을 개발주의의 목적론적이고 직선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다른 말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소농민층의 자연스러운 파경이 소농민 문제의 (Peasant Question) 논리적인 끝으로 여겨졌다. 더 깊이 보자면 19 세기 학자들에게 유럽 산업화 시기에서 개발주의가 중심 관점이며 전통 사회는 단순하고 미분화된 농촌으로 유형화 되었으며 (gemeinschaft) 근대 사회는 분화된 복합적 공업적 도시-중심 (gesellschaft) 사회로 분리되었다.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로 소농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산업화 동시에 발달한 대규모 농업 기술이 소규모 농업의 가치를 떨어드리며 농민은 노동자로 변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도 같은 ‘소농민층의 일시적인 성격’(“transience of peasantry”[71]) 논리가 개발되었다. ‘gemeinschaft’에서 ‘gesellschaft’ 사회로 변천하는 목적론적 과정에서 마르크스는 소농민층이 자신을 대표할 수 없어 “미래

[71] Araghi, F. (1995). Global Depeasantization, 1945-1990. *The Sociological Quarterly, 36*(2), 337-368

없는 계급"이라고 표현했다.[72] 이 목적론적 근대화의 맥락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소농민 "사라짐 논제"(disappearance thesis)가 나타났다. 이는 (유럽) 국가들의 지방 지역에서 계급 분화(differentiation)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농민 계급의 사라짐이 논리적 결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73] 엥겔스도 같은 생각을 드러냈다- "모든 옛날 생산관계의 생존처럼 소농민도 희망 없이 망할 수 밖에 없다. 그는 미래의 프롤레타리아이다."[74]

오늘날까지 학계에서 일어나는 농업 문제에 대한 분쟁도 자본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환원주의 경제학(Reductionist Economics)적인 소농민층의 '사라짐 논제' 프레임으로 정해진다. 20 세기 개발주의 학계에서 소농민은 가난함과 원시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세계 2 차 대전 이후 농업위주 사회인 제 3 세계를 개발시키기가 우선적으로 여겨지면서 대규모 농업 기술이 새롭게 이름치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며 농업이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에 흡수되어야 한다는 경제체제가 우루과이 라운드 통해 확립되었다. 이 냉전시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녹색혁명'은 특히 제 3 세계로 다수확 농작물의 이전으로 공산주의를 막는 방법으로도 사용되었다.

---

[72] 99 쪽 Karl Marx,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Napoleon, Dodo Press. Gloucester. (2009 Trans. D.L. D.DL.)

[73] Araghi (1995) "…a thesis that argued for the necessary dissolution of the peasantry as a logical consequence of the advancing process of class differentiation in the rural areas of (European) nations."

[74] 75 쪽. Mouzelis N.P. (1978) Capitalism and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Modern Greece. Palgrave Macmillan, London: "….in the works of Marx, Lenin and Kautsky: the well-known thesis that, with the growth of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CMP), agriculture will tend to follow the same path of development as industry, i.e. that there will be land concentration, the emergence of large-scale enterprises, the elimination or proletarianisation of small landowners etc. - these processes leading eventually to the narrowing of the gap between town and countryside, between industrial workers and peasants."

i) 세계 식량 주권과 현재 농민운동 연구

필립 맥마이클이 2006 년 소논문 “Reframing Development: Global Peasant Movements and the New Agrarian Question”에서 이러한 목적론적 ‘농민 문제’ 관점을 비판하여 ‘비아 캄페시나’ 운동 예로 소농민층의 여전한 생존 또는 저항을 강조하며 현재에 제 3 세계 농업 문제 또는 그의 대외적 해결을 소개한다. 맥마이클은 농민 문제의 개발주의 목적론적 해결 (사라짐 논제)는 유럽 식민지 시기 때 구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한다.[75] 유럽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내 필요한 먹을거리/식량 생산은 식민지로 외탁 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해결책이었다. 저자는 식민지 시기 때 구성된 권력의 불균형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시기까지 유지되면서 오늘날의 ‘대기업 식량 정권’으로 인해 일어난 제 3 세계 농민 문제는 국내 프레임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맥마이클은 아시아, 미국, 남미, 유럽 또는 아프리카의 농민연합들이 손을 잡아 시작된 전세계 비아 캄페시나 운동의 대외적인 해결책을 선보였다.[76] 1993 년 시작된 비아 캄페시나 세계 곳곳의 수백만 소작농, 중소농민, 농토 없는 노동자, 여성농민, 원토착민, 이주민, 농업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국제적인 운동이다. 중심 목표는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파괴적인 신자유주의화를 막는 것”이다. 비아 캄페시나는 식량주권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에 해치지 않고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이라고 정의한다.[77] 자본주의에서 불필요한 존재라는 정의에서 벗어나 ‘소농민 방법(peasant way)’을 밟으면서 소농민의 연대감의 효력을 발휘하는

---

[75] 475 쪽. Philip McMichael (2006) Reframing Development: Global Peasant Movements and the New Agrarian Question, *Canadia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 Revue canadienne d'études du développement,* 27:4, 471-483,

[76] 476 쪽. 같은 자료.

[77] 비아 캄페시나 공식 사이트. <소개> https://viacampesina.org/en/who-are-we/ 접속일: 2019.07.28

것이라고 저자가 설명한다.[78] 이 논문은 이론적으로 풍부하며 소농민의 여전한 존재 및 '소농민' 범주의 유지에 대한 중요한 주장을 하며 방법론적으로 비평적 담화분석을 선택했다. 이 논문에서 본 듯이 '식량 주권'은 세계 새로운 농민 운동에서 중요한 카테고리로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농민 운동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1973 년에 확립된 학술 저널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Critical Perspectives on Rural Politics and Development 은 농민, 농촌 정치 또는 개발 중심으로 월 2 회 출판되고 있으며 전국 농민 운동에 대한 연구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량 산업이 계속 세계를 연결시킬 수록 농민운동들을 초국가적 자본이나 초국가적 연대의 테마와 함께 연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남미에서 일어나는 21 세기 새로운 농민운동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 편이다 (Soper (2016)- 에콰도르; 강경희, 강수정 (2006)- 멕시코; Robles, Veltmeyer (2015)- 브라질; Pena (2017)-아르헨티나, Fabricant (2010)- 볼리비아, Boyer (2010)- 온두라스; Rosset, Sosa, Jaime, Lozano (2011)-쿠바 등).[79] 남미의 새로운 농민운동 연구들 중에

---

[78] 477 쪽. McMichael (2006)

[79] Soper, Rachel (2016) *Food Sovereignty on the Ground: Export Agriculture, Peasant Communities, and the Indigenous Movement in Ecuador*. UC San Diego: Sociology; 강경희, 강수정 (2006). *신자유주의, FTA, 그리고 새로운 농민운동*. 이베로아메리카, 8(2), 105-124; Robles, Wilder, Veltmeyer , Henry (2015), *The Politics of Agrarian Reform in Brazil: The Landless Rural Workers Movement.* New York : Palgrave Macmillan US : Imprint: Palgrave Macmillan, 2015; Pena, Mariela (2017). "Las políticas de la vida cotidiana en el Movimiento Campesino de Santiago del Estero - Vía Campesina, Argentina". En: Boletín de Antropología. Universidad de Antioquia, Medellín, vol. 32, N.º 53, pp. 210 - 231.; Fabricant, Nicole (2010) Between the Romance of Collectivism and the Reality of Individualism: Ayllu Rhetoric in Bolivia's Landless Peasant Movement *Latin American Perspectives*, July 2010, Vol.37(4), pp.88-107; Jefferson Boyer. (2010) Food security, food sovereignty, and local challenges for transnational agrarian movements: the Honduras cas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7:2, pages 319-351.; Peter Michael Rosset, Braulio Machín Sosa , Adilén María Roque Jaime & Dana Rocío Ávila Lozano (2011) The Campesino-to-Campesino agroecology movement of ANAP in Cuba:

거의 모두 한 나라의 운동 위주로 깊은 분석을 진행했으며 모두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영향을 발견했다. 그러나 현재 세계 농민들의 문제는 어느 한 나라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 전세계 일어나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 농민층이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농민들의 문제 또는 그들의 운동의 깊은 연구가 중요한 만큼 초국가주의적 연구 방법으로 로컬 문제의 글로벌 함축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전에 언급된 맥마이클의 2006 년 연구에서는 이러한 초국주의적 방법을 추구하여 비아 캄페시나 전세계 농민운동을 연구했다. 마르티네즈 토레스와 로제트의 논문 'La Via Campesina: the birth and evolution of a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에서도 소농민층이 사라지지 않고 초국화되었다는 것을 맥마이클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80] 지난 20-30 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정책들은 농민과 농촌 가정을 지원하는 기관들을 파괴시킴으로써 농민들의 정부,정당정치 또는 세계 금융기관에게 신뢰가 없어졌으며 농민들이 토지에 대한 권리, 생산 권리, 생존 권리 등의 주제들 중심으로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저자의 중요 주장은 이 농민운동들은 국가 차원에만 있는 것보다 국제주의적 관점으로 제 3 세계와 제 1 세계의 범의를 넘어서 연대를 맺어 인정을 받고 효력 있는 운동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 비아 캄페시나가 그러한 운동을 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여 한국은 인도와 경제적 개발 방식과 속도가 다르다고 현재 농민들의 문제들이 완전히 다르지 않으며 같은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문제들을 겪는다고 본다.

---

social process methodology in the construction of sustainable peasant agriculture and food sovereignty,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8:1, 161-191

[80] María Elena Martínez-Torres & Peter M. Rosset (2010) La Vía Campesina: the birth and evolution of a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7:1, 149-175

그러므로 이 두 곳의 농민 운동을 분석하는 데에도 제 1 세계와 제 3 세계의 범의를 넘어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마르티네즈 토레스와 로제트의 논문과 달리 본 논문은 국제주의적 논의만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인도와 한국의 맥락 안에서 국제적인 것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finding the global from within the local). 남미에서 초국가적 관점으로 본 농민운동 관한 연구는 세계의 다른 지방보다 많이 발달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알티리와 토레도의 2011 년 연구 'The agroecological revolution in Latin America: rescuing nature, ensuring food sovereignty and empowering peasants'[81] 는 브라질, 안데스 지역, 멕시코 또는 쿠바의 농민운동을 신자유주의적 기업식 농업을 들이대는 '농업생태학적인 혁명'으로 본다. 남미의 농민운동의 비교적 연구 결과 농업생태학의 5 가지의 특성을 주장했다. 맥케이, 네링, 왈쉬-딜리의 2014 년 논문 'The 'state' of food sovereignty in Latin America: political projects and alternative pathways in Venezuela, Ecuador and Bolivia'[82]에서도 남미의 3 개의 대표적인 농민운동을 가진 나라-볼리비아,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 이른바 '핑크 타이드' 나라들을 비교하여 어떻게 '식량 주권'이 담론 차원을 넘어 정책적 차원에서 실시되는지 연구하고 있다. 각 국가의 정책 분석으로 연구가 이어졌으며 저자는 3 개의 나라에서 농업생태학을 실시하는 데에 헌법적 변화를 주목했다. 헨더선의 멕시코 또는 에콰도르에 관한 2017 년 연구 'State-peasant movement relations and the politics of food sovereignty in Mexico and Ecuador'도 전 논문과

[81] Miguel A. Altieri & Victor Manuel Toledo (2011) The agroecological revolution in Latin America: rescuing nature, ensuring food sovereignty and empowering peasants, *Journal of Peasant Studies*, 38:3, 587-612

[82] Ben McKay, Ryan Nehring & Marygold Walsh-Dilley (2014) The 'state' of food sovereignty in Latin America: political projects and alternative pathways in Venezuela, Ecuador and Bolivia , *Journal of Peasant Studies*, 41:6, 1175-1200

유사하게 국가-농민 간의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다른 국가의 예로 해명했다.[83] 제 1 세계 영미권 나라의 농민운동 간에도 초국가적 연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셔키의 2015 년 논문 'Transnationalism and Diffusion: A Study of the Food Sovereignty Movements in the UK and Canada'이 있다. [84] 이 논문에서 한 나라의 농민운동의 생각과 가치들은, 예를 들으면 식량주관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다른 나라의 농민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방산이 되는지를 살펴본다. 초국가주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의 맥락에서 농민에 관한 초국가적 연구는 남미보다 적다. 이는 아시아의 농업의 수천년의 역사 또는 상대적으로 최근 녹색 혁명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케이스다. 최근에 아시아 농민 저항에 대한 나온 연구 중에 터너와 가우에트의 2009 년 연구 'Agrarian Angst and Rural Resistance i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리시어이에서 농촌 생계의 글로벌 시장에 진출,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접근권, 생계 안전, 농법, 생산에 영향을 저항하는 농민들의 다양한 방법을 actor-oriented 또는 역사적 고찰을 동시에 함으로써 다규모적 (multi-scalar)- 개인, 로컬, 국가적, 초국가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85] 본 논문도 이러한 다규모적 분석을 시도한다. 한국과 인도의 농민 운동을 개인, 국가, 지역 (아시아)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

[83] Thomas Paul Henderson (2017) State-peasant movement relations and the politics of food sovereignty in Mexico and Ecuador,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44:1, 33-55,

[84] Noha Shawki (2015) Transnationalism and Diffusion: A Study of the Food Sovereignty Movements in the UK and Canada, *Globalizations*, 12:5, 758-773,

[85] Caouette, D. (Ed.), Turner, S. (Ed.). (2009). Agrarian Angst and Rural Resistance i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London: Routledge,

ii) 한국과 인도의 농민운동연구- 식량주권과 현재 농민운동 중심으로

1970 년대 세계 식료품 가격 위기 동시에 '농민'은 학계에 논쟁점이 되었으나 현재 자유시장 시기에서 또다시 농민운동에 대한 학계에서 관심이 떨어졌다.[86] 전세계 역사에서 농민운동은 정치적 변화를 이루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는 한국의 근대 역사에서 특히 잘 볼 수 있는 것이다. 2019 년에 125 년이 된 동학 농민 운동은 이에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서도 역사의 흐름을 바꾼 농민 운동이 벌어졌다. 인도의 경우에 영국식민지반대운동이 농민 운동부터 시작한 예도 있다. 아시아의 대부분 나라들은 근대 시기에 제국주의를 경험하게 되며 그 전까지 주요 경제 활동은 소규모 농업이었다. 8.15 해방 이후에도 전체 인구 77%가 농민이었으며 한국 산업화 동안 흔히 말하는 '농업포기정책'의 시기 때 한국 농민운동 관련 연구가 몇개 존재한다.[87] 주로 이 논문들은 21 세기 들어서야 쓰여진 논문들이다. 이 중에 2003 년에 출판된 <한국 농업.농촌 100 년사 논문집-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와 발전>제 2 집의 제 2 절- "농촌 사회조직과 농민 운동의 변화" 아래 정명채 저자의 논문 <해방 이후의 농민운동>이 있다.[88] 이 논문은 절차적으로 1945 년~1950 년대부터 90 년대 이후까지의 농민운동과 운동단체의 활동 과정을 분석했다. 본 논문이 중심으로 두는 90 년대 이후의 농민 운동에 대한 저자는 농민운동단체들이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타결여부가 농정의 최대 관심사였으며, 따라서 농민운동단체의 모든 활동도 여기에 집중되었다고 발견했다. 그리고

---

86 24. Amin, Shahid. (1984) Of Peasants and Peasant movement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19, No. 1 January 7 1984. Pp. 23-27

[87] 215 쪽. 정명채 (2003). 해방 이후의 농민운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215-254

[88] 같은 자료.

80 년대 말에 분리되어 있던 농민단체들이 활동 방법도 개별 조직별로 추진하기보다는 공동으로 또는 연합한 형태로 대부분 전개되었다고 밝혔다. [89] 같은 방식으로 농민운동사를 탐구하는 논문 몇개 더 있다. 정성환의 2010 년 논문은 50 년대부터 70 년대까지 집중적으로 농민운동의 전개를 분석하여 50~60 년대에 왜 농민운동은 농촌에서만 집중되었는지 사회경제학적인 접근으로 검토하였다.[90] 권영근의 2006 년 논문 <해방 후 농민운동의 전개와 성격>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50 년대부터 80 년대 이후의 농민 운동을 단계별로 분석하며 특히 본 논문의 관심사 1980 년대 이후의 농민운동에 대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다- "오늘의 농업 현실은 여전히 녹색혁명 농업 하에 있고, 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제국주의를 상대로 하고 있다." 이어서, 대규모의 상경 투쟁과 해외진출 투쟁을 하는 사이 '농촌의 근거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 그는 더 이상을 투쟁해야 할 농민들의 '농업' 개념 자체의 폐쇄를 우려하고 있다.[91]

신농민운동을 다루는 데에 다른 논문들도 같은 문제를 염려하고 있다. 예를 들며, 윤병선의 논문 <대안농업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유기농업운동과 생협운동, 지역먹거리운동을 중심으로>에서는 저자가 신농민운동 아래 포함될 수 있는 '대안 농민운동' 3 가지를 분석하였다. 농촌의 생태계의 파괴와 농촌공동체의 괴멸 또는 농업생산에서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현대의 세계농식품체계…화석연료와 화학비료, 농약에 기반을 둔 산업형 농업과 공장형 축산에 의존"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한

---

[89] 223 쪽. 같든 자료

[90] 장상환 (2010). 해방과 전쟁, 그리고 전쟁 이후의 농민운동. 농촌사회, 20(1), 7-46

[91] 86 쪽. 권영근 (2006). [특집/한국의 농업과 농민을 위한 변론] 해방 후 농민운동의 전개와 성격. 내일을 여는 역사(23), 69-86

저자는 유기농업, 생협운동, 지역먹거리운동을 분석한 후 3 가지의 대안적 해결체를 제시했다. 그 3 게 모두 지방 경제와 국내 소싱에 기반을 둔다.[92]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씨앗 지키기 운동도 '대안 농민운동' 속 하나로 여길 수 있으나 여기서 언급 받지 못했다. 주류의 농민운동과 대립관계를 설치하는 '대안 농민운동'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이는 현재 농식품체제에 대안으로 존재하는 것일 듯 하다. 윤병선 저자와 송원규 저자의 또 다른 논문 '식량주권의 제도화와 농민권리 선언에 관한 고찰' (2017 년) 에서 저자들은 식량주권을 운동차원에서 정책차원으로 이전시키는 것 또는 이는 더 이상 국민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국제수준의 운동에서 국내 정책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93] 이 논문은 국제에서 식량주권이 제도화되는 사례들을 분석하여 한국내의 식량주권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고자 했다. 본 논문도 이와 마찬가지로 국제-국내 차원 모두를 같이 살펴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인터뷰한 여성농민 활동가도 UN 사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및 제도화를 식량주권의 열쇠로 여겼다. 한국 농민운동은 초국적 영역으로 운동을 확장하여 오늘날의 세계화 위기를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공석기 저자의 2014 년 논문 '한국 농민운동의 초국적 전략'은 한국 농민운동은 '밥도 인권이다'의 슬로건 아래 농민을 넘어서 어떻게 환경,인권,소비자 운동과의 만남을 하며 초국적 네트워크, 캠페인 그리고 사회 운동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전국농민연합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분석으로 이어졌다. 저자가 최근에 전농과 전여농은 '식량주권'이라는 프레임을 덜 추상적인 프레임으로 변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바로

---

[92] 윤병선 (2010). 대안농업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농촌사회, 20(1), 131-160

[93] 송원규, 윤병선 (2017). 식량주권의 제도화와 농민권리 선언에 관한 고찰. 농촌사회, 27(2), 7-43

‘먹거리기본권’이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전농과 전여농은 한국 시민사회와 연대감을 확립하려고 한다. 또 국제 차원에서 두 조직은 반세계화 운동과 비아 캄페시나 운동을 동시에 벌이고 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94] 이 논문은 몇 안되는 현재 한국 농민운동을 초국적 입장에서 분석하는 논문 중 하나이며 가치가 있는 연구이다. 이 논문은 방법론적으로 전농과 전여농의 자료와 2 차자료를 비평적 담화분석을 했다. 저자가 중요하게 여긴 초국적 전략은 조직의 운동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계의 연구분야에서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의 경우의 이러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윤병선, 김철규 또는 김홍주의 2012 년 연구 “한국과 일본의 식량주권운동에 관한 비교연구”는 한국과 또 다른 나라의 신농민운동을 비교하는 유일한 케이스다.[95] 이 논문은 세계 농식품체계에 편입된 한국과 일본은 매우 유사한 낮은 식량자급률로 인해서 식량위기에 그 어느 나라보다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화하여 한국과 일본 모두 식량주권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다른 주체들과의 적극적 연대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발견하여 구체적인 식량주권 확립방안 모색이 농민단체 뿐만 아니라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러한 비교방법은 국제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요한 연대감을 들어내고 식량주권 운동과 제도화를 확립하는 데에 발생하는 걸림돌과 그의 여러가지 해소 방안과 그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서명하게 판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체제의 식량위기는 동아시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비교분석이

---

[94] 공석기 (2014). 한국 농민운동의 초국적 전략.국제개발협력연구 제 6 권 제 2 호: 73-97

[95] 윤병선, 김철규, 김홍주 (2012). 한국과 일본의 식량주권운동에 관한 비교 연구. 농촌사회, 22(2), 233-269

전세계의 또 다른 식량위기 또는 농업 구조, 농민 권리의 폐쇄를 주목하고 있는 나라와도 가능한 것이며 국내에서 농민권리 하락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과 정책결정에서 효율적인 연구방법이라고 본다.

인도의 역사에서 농민운동이 많은 만큼 농민운동에 관한 연구도 많으나 본 논문의 관심사 현재 농민운동에 관한 연구는 실제 큰 농민운동과 함께 90 년대부터 줄어들고 있다. 90 년대에 인도에서 복합적인 이유로 큰 농민운동이 감소되기 시작했으나 운동들이 없어지는 것보다 폭이 좁아지며 구체적인 요구에 기반하여 농촌 소농과 농촌 엘리트 모두를 동원하고 있는 편이다. 2012 년에 출판된 박사학위논문 "The Political Ecology of Food Sovereignty in Neoliberal India"에서 저자 엘리자베스 루이스는 인도 반건조지대 텔란가나(Telangana) 지역에서 현장 연구와 인터뷰 방법으로 정치생태학 연구를 실시했다.[96] 그는 델렌가나 지역에서 식량주권을 응호하는 NGO 와 소속 농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소속 농민들의 삶은 비아 캄페시나와 같은 국제 농민운동 및 현지 NGO 에서 말하는 '식량주권'을 추상적이라고 느껴 따르지 못해 식량주권과 시장원리 중간에 교섭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견했다. 농업.농산물 영역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농민들은 시장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이상적이며 농민들은 우선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현재 인도에서 농민운동을 이끌어가는 NGO 시민사회 조직과 농민들 간에 상호관계와 목표의 차이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논문이라고 본다. 공석기 저자의 2014 년 한국의 전농과 전여농 관한 논문에서도 식량주권 개념이 한국사회에서 매우 추상적으로 느껴져 한국 사회와 연대감을 위한

---

[96] Louis, E. C. (2012). *The Political Ecology of Food Sovereignty Movements in Neoliberal India* (Doctoral dissertation, [Honolulu]:[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먹을거리 안전’과 같은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다. 델렌가나 지역의 농민운동과 조직화를 관하여 논문들이 인도 다른 지역 보다 더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편적으로 80 년대 인도 정부가 SAP 를 한 뒤 신자유주의 새력들이 개입하면서 인도 농촌 안에서 또는 도시-농촌 간에 임금격차가 심해졌다. 이로 인해 농민은 농사를 두고 도시로 이촌향도 이동하는 형상이 벌어졌고 남아 있는 농민은 소득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해졌다. 농사와 함께 그 전문성 또는 지켜온 종자 모두 놓치게 된다. 최근에 인도의 식량운동에 관한 출판된 책 중에 트렌트 브라운의 ‘Farmers, Subalterns, Activists- Politics of Sustainable Agriculture in India’가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브라운은 마르크스주의 학자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바탕으로 인도의 3 가지의 식량주권운동을 분석해봤다. 저자는 식량주권 및 생태농업 운동에 헤게모니를 반대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생태 농업 운동가조차도 어떻게 헤게모니를 따르게 되는 경우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도 같이 표하였다. 이 책도 루이스의 박사학위논문과 유사하게 현실과 담론 간에 차이를 지적했다. 연구가 분석한 사례는- 펀자브 지역의 Kheti Virasat Mission (KVM), Tamil Nadu Organic Farmers Movement (TOFarM) 또는 우타라칸드주의 Save Seeds Movement (BBA[97])이였고 이 모든 조직들이 중산층 도시 활동가들과 함께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풀뿌리 운동으로서의 독립성을 잃게 하고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헤게모니’에 제대로 맞설 수 없게 된다는 저자의 주장이다. 본 논문의 ‘소득보장’ 부분에서도 단체의 담론과 농민의 현실 간에 차이를 목격했으나 약간의 다른 주장을 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이 분석한 식량주권 운동인 전여농과 나바단야는 실제 여성들의

[97] *Beej Bachao Andolan* 의 준말

삶에서 담론과 차이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단체들은 농민들 삶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사실이다. [98]

iii) 한국 및 인도의 여성농민운동 연구

농민 여성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만큼 그들에 관한 연구도 제안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엄영애 저자의 <한국여성농민운동사: 농민생존권위기와 여성농민의 조직적 투쟁> 가장 먼저 떠오른 만큼 중대한 책이다. 이는 여성농민사 연구 분야에서 몇 안 되는 대표적인 책 중 하나이다. 일제시대부터 1990 년대까지 여성농민운동을 펼쳐내며, 당시 활동했던 여성농민운동가들의 소장 자료, 현장 여성 농민운동가들과의 인터뷰 사례, 저자가 직접 참가하였던 경험을 (1970 년-1993 년) 토대로 농민운동과 여성농민운동권에서 생산된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였고 본문은 먼저 산업화 이전의 농민여성의 삶에 대한 고찰 그 다음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피폐화, 농촌여성 문제, 농촌 부녀회 실태, 여성농민운동의 목적, 생존권 위기와 농민대투쟁, 농촌여성의 의식화 교육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여성농민운동을 이끄는 조직화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아 전여농 여성농민후원활동, 농촌탁아운동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한국만의 농민여성운동 관해서 깊게 알고 싶은 자에게 좋은 연구이다. [99] 그러나 여성농민의 역사가 1993 년까지만 이어져있어 신농민운동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끝났다. 특히 전여농의 토종 씨앗 운동에 관한 고찰은 없고 또 다른 신자유주의 시기의 농민운동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이다. 90 년대 이후의 여성농민운동을 연구한 논문은 몇개 없다. 그 중에 최근에 출판된 논문은

---

[98] Brown, T. (2018). *Farmers, Subalterns, and Activists: Social Politics of Sustainable Agriculture in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99] 669 쪽.엄영애. (2007) <한국여성농민운동사: 농민생존권위기와 여성농민의 조직적 투쟁>나무와숲.

정경숙 저자의 <여성농민운동에 관한 연구- 경북지역 여성농민운동가 사례를 중심으로>이다. 이는 경북지역의 여성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여성이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운동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통해 살펴봤다. 여성운동가 15 명의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그들의 구술로 여성들이 경북의 가부장제도 또는 남성운동여역에서 어떻게 지내고, 여성운동으로 운동의지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100] 본 논문의 '지위 향상' 부분에서도 농민운동으로 통해 여성농민들은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행위자가 되는지에 관해서 비슷한 고찰이 있는 것이다. 여성농민에 대한 연구는 많은 경우에 가부장제도에서 여성에 지위향상에 머물려 있다. 여성들이 벌이는 운동에서 자연히 주체성 또는 지위는 중요한 주제이지만 여성 농민도 사회에 집단으로써 특히 소외된 집단으로써 그들의 위치를 더 광범위한 맥락 안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 농민을 탄압하고 있는 존재는 가부장적 남편과 남성운동권영역뿐 만 아니라 남성중심 국가 또는 초국적 세력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성의 개인 환경의 가부장제도를 넘어 남성중심의 세계농식품체제를 살펴보았다.

인도의 경우에 여성운동사에 관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최근 신농민운동에서 여성농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20 세기 인도의 여성농민운동사를 다루는 논문 중 대표적인 것은 게일 옴베트의 <Women and Rural Revolt in India>가 있으며 이는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 또는 농민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는 첫 논문 중 하나이고 여태까지 '농민'이라는 계급/집단은 학계에서 남성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01] 이의 다음 논문들은 로이의 1995 년의 <Peasant Movements and

[100] 정경숙 (2005). 여성농민운동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5(1), 59-101
[101] Omvedt, G. (1977). Women and Rural Revolt in India. *Social Scientist*, 6(1), 3-18.

Empowerment of Women> 논문처럼 인도의 신운동 영역 안에 농촌여성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하였다. 한국의 여성농문운동에 관한 연구와 약간의 유사한 점은 20 세기 말에 여성농민의 행위자로서 인식화 계기에 관한 서술이 많은 편이다. [102] 최근 연구들 중에 인도 농민여성들의 친환경 농사 운동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는 질적연구방법으로 인도 오디샤 지역의 여성농민운동을 분석하였고 찬환경 농사는 (토종씨앗을 지키면서)은 그를 둘러싼 담론에 되어있는 것과 같이 실제로 여성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이는 알텐뷰크너 등의 <Effects of organic farming on the empowerment of women: A case study on the perception of female farmers in Odisha, India>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건강, 식량안전과 소득에 관련 긍정적 변화를 목격하였다. 그러나 이 변화는 순수 친환경농사를 함으로써 생긴 것보다 해당 단체와 관련함으로써 생기는 것이기도 하다는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친환경 농사는 여성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지만 친환경 농사만은 더 남녀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다는 것이다.[103] 본 논문의 결과도 이 논문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왔다. '소득보장' 부분에서 볼 듯이 토종 친환경 농사만으로 소득 보장과 남녀평등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단체와 운동에 참여는 여성들의 삶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인도의 농촌여성 또는 부족여성들의 운동 관한 연구는 환경보존에서 여성의 역할 또는 여성 지위향상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에코페미니즘 연구는 인도의 농촌여성운동의 분석으로 시작된 것이며

---

[102] Debal K. Singha Roy. (1995). Peasant Movements and Empowerment of Rural Women.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30(37), 2306-2311. Retrieved from http://www.jstor.org/stable/440321

[103] C. Altenbuchner, S. Vogel, M. Larcher, (2017) Effects of organic farming on the empowerment of women: A case study on the perception of female farmers in Odisha, India,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Volume 64,Pages 28-33,ISSN 0277-5395,

(집코운동 등) 여성과 환경의 보존을 동일시한다. 그러나 이는 타니아 로이와 보로외아크의 논문 <Against Ecofeminism: Agrarian Populism and the Splintered Subject in Rural India>에서 이러한 이상적인 바이너리 (male/female, rural/urban,) 또는 여성은 순수한 자연의 보호자와 같은 상징적 철학은 오히려 농민여성들의 현실적 문제에 경험의 어휘를 대신하고 있다는 위험에 대한 서술했다.[104] 본 논문도 에코페미니즘에서 존재하는 상징적인 철학을 감소하고 실질적으로 농민여성들의 삶의 문제 또는 문제의 요인 사회적인 요소들을 분석하고자 했다.

iv) 씨앗 지키기 농민운동에 관한 연구

'종자주권'을 중심 목적으로 삼는 운동들에 대한 연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식물변종 다양성의 하락은 토종 씨앗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젠니 런던의 석사학위논문 <Seed Saving: A Comparison of Three Seed Saving Organizations in Support of Social-Ecological Resilience>는 씨앗 지키는 조직들울 비교방법으로 통해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 미국의 3 개의 조직 서로 문화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이 연구는 씨앗지키기에 대한 사회-생태학적인 관찰을 하였으며 사회 관습과 농사의 기술은 같이 발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105] 이 연구는 이 분야에서 매우 드문 비교방법의 선택으로 유사점으로 찾아 씨앗 지키기의 생태농업에서 중요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 논문은 환경연구학적 접근하였으나 이러한

---

[104] Roy, T., & Borowiak, C. (2003). Against Ecofeminism: Agrarian Populism and the Splintered Subject in Rural India. *Alternatives*, *28*(1), 57-89.

[105] London, Jennie. (2013) Seed Saving: A Comparison of Three Seed Saving Organizations in Support of Social-Ecological Resilience. M.A. Prescott College.

비교 방법은 씨앗시키기의 조직의 정치적인 것에 유사성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필립스의 책 <Saving More Than Seeds: Practices and Politics of Seed Saving>에서 캐나다의 씨앗 지키는 사람들과 인터뷰 또는 참여관찰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시기에서 초국적 기업은 종자시장을 점령하는 데에서 씨앗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관찰하였다.[106] 필립스의 연구는 본 연구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씨앗을 지키는 것이 농사에서만 필요한 관습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없어지는 사회 관습이기도 하며 오늘날은 씨앗만 지키는 것도 신자유주의 세력들에게 맞서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캐나다에만 집중하여 다른 나라의 농민층은 이 같은 세력들에게 저항을 같이 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를 보편화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제 3 세계에서 일어나는 씨앗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 또는 조직들도 점차 연구가 되고 있다. 이 중에 여성을 중심 씨앗 지키기에 대한 연구가 몇 편 안되지만 그 중에 브라질의 산타 카타리나 지역에서 여성들의 씨앗 지키기 운동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는 아다오 등의 <The peasant women movement and the seeding of new perspectives: the meanings of (re) production of creole seeds for women in the west of Santa Catarina>라는 연구이며 여성농민들의 토종 '크레올' 씨앗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인식에 관한 분석이었다. 인터뷰 자료 토대로 생산된 결과는 여성농민들은 이 운동으로 통해 그들의 사회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인식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었다.[107]

---

[106] Phillips, C. (2013). Saving More Than Seeds. London: Routledge,

[107] Nilton Manoel Lacerda Adão; Valmir Luiz Stropasolas; Maria José Hötzel. (2011) The peasant women movement and the seeding of new perspectives: the meanings of (re) production of creole seeds for women in the west of Santa Catarina. INTERthesis.8(2):160-198

v) 인도의 나바단야와 한국의 전여농의 씨앗 지키기 운동에 관한 연구

학계에서 씨앗에 관련 기본의 연구는 식품영양학, 축산학, 원예학, 자원식물학, 유전학적 접근에서 다수확성, 화학 성분 분석 등이 주요 다루어졌고 씨앗과 여성농민을 연관시켜 진행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108] 현재 하계에서 전여농의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관련 연구 중 김효정 (2011)과 박신규, 정은정 (2010) 정도를 검토하겠다. 김효정 (2011)의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을 통해 본 여성농민의 토착지식에 대한 연구>는 산업화 과정에서 씨앗과 함께 사라지는 여성 농민들의 토종 지식을 전여농의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으로 통해 재조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전여농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을 다루는 가장 중대한 연구이다. 토착 지식에 기반을 둔 전여농의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은 '비생산적' 또는 '전근대적'이기 보다 '생태순환적'과 '미래지향적'인 대안농업방향으로 주장했다.[109] 이러한 주장은 식량주권운동의 목표와 같다- 친환경/유기농/토종 씨앗 농업으로 통해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횡성 지역에서 목격한 토종 농사에 겪는 어려움- 경제적이거나 놓친 토착 지식에 관한 것은 본 논문의 대상자들의 답에서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와 다른 점이 있다. 본 연구는 소위 '전근대적인' 관습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기 전에 현 세계 농식품체제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관습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도, 또 다른 많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108] 김정희 (2017) 전남 토종농사를 짓는 여성농민들의 이야기. 제 6 호 동향과 전망

[109] 김효정 (2011).

박신규와 정은정 저자의 논문 <여성농민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여성농민운동의 발전>에서 여성농민의 1960 년 부터 '배우는 농촌여성'으로 계몽의 대상이 된 것부터 1970 년대-80 년대

여성농민운동도 사회의 한 부문운동으로 발전하고 농촌이 여성화되면서 농업현실의 당사자임을 인식하면 서 '농민'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성차별 농촌구조를 직시하면서 '여성'의 정체성도 동시에 힉득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급격한 세계화 시기에서 '외세와 가부장제' 이중적인 억압세력들 맞서고 자주적 여성농민이란 정체성을 구현해내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리고 2000 년대부터 '씨앗을 지키는 여성농민'을 내새움으로써 투쟁만으로 아닌 대안을 내미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여성농민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계기라고 한다.[110] 이것이 매우 중요한 관찰이며 여성농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구축했다. 본 노문에서 그 결과로부터 한 발짝 더 앞서가면 한국 여성농민에게 씨앗 지키는 것은 이러한 '대안'적 패러다임 넘어 현실적으로 "운동적 자원"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대상자들은 앞날에 토종농사는 대안적인 길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의 개방된 시장의 경쟁 속 어려움을 대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바단야는 오래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큼 기존 연구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바단야는 여성중심 운동에도 불고하고 씨앗과 여성을 연관시킨 논문은 반다나 시바 지신의 논문들 외에 매우 적다는 것이었다. 그 중에 판데이 (2013) 또는 우니얄 등 (2015)의 연구를 검토하겠다.

판데이 (2013)의 <Globalization and ecofeminism in the South: keeping the 'Third World' alive>에서 저자는 '제 3 세계' 프레임은 오늘의 신자유주의

[110] 박신규, 정은정 (2010). 여성농민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여성농민운동의 발전. 농촌사 회, 20(1), 89-129

세계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나바단야에서 2004 년에 현장 연구를 함으로써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저자는 세계화에 긍정적인 영향은 제 3 세계의 가장 취약한 층- 여성농민들에게 '트리클다운'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여성농민들은 대안적인 토종 씨앗을 지키는 길로 나섰다고 주장하였다.[111] 이 논문은 검토한 모든 논문 가운데 한국의 전여농의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을 나바단야와 함께 언급을 하였다. 깊게 비교는 안했으나 'Global South' 운동으로 언급한 것만으로도 한국의 여성농민층은 세계적으로 아직 '선진국'의 일부로 받아지지 않고 다른 제 3 세계 여성농민운동과 연대를 맺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이론적으로 본 논문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나 연구대상은 인도 나바단야에만 머물러 있어 '제 3 세계' 큰 틀을 착용하는 데에 비교에 상대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니얄 등 (2015 년) 나바단야의 여성농민에 관한 연구는 씨앗을 포함한 '자연자원'의 관리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는 나바단야 여성들에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봤다. 이 연구의 결과는 토종 농사는 식물다양성과 환경, 건강 또는 식량 자급자족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나왔다. 이 연구는 로컬 여성농민들에게만 집중하여 이 운동의 국가 아니면 국제적은 함축에 관심 두지 않았다.[112]

vi) 문제의식

위와 같이 선행연구검토에서 관찰되는 것은 대부분 한국과 인도, 또는 다른 나라에서 실시된 연구들이 국내의 식량주권 또는 종자주권 운동에 집중하였다는 것이었다. 모든 연구에서 농민층에 취약성에 대한

---

[111] Anupam Pandey (2013) Globalization and ecofeminism in the South: keeping the 'Third World' alive, Journal of Global Ethics, 9:3, 345-358,
[112] Uniyal, Bhagwati & Uniyal, V. & Bhatt, Vinod. (2007). Empowering Rural Women for Sustainable Livelihoods through Natural Resource Management in Garhwal Himalaya, Uttarakhand, India.

서술이 있었으나 이는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과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을 다루지 않았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연구는 여성농민운동사와 농촌여성 실태조사, 여성농민의 지위 형성과 정체성에 머물러 있다. 또 한편에 농민운동을 국제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연구는 산업화 이후 세계화 '트리클다운 경제'의 세계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농민의 문제'의 재구성을 보편적이고 얄팍한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하며 '소농의 길'이라는 답에 대한 '비아 캄페시나'와 같은 국제적 운동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은 너무 추상적일 수 있어 비아 캄페시나에 속한 개발도상국의 운동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 로컬성 있는 글러벌 함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개발도상국의 여성농민은 세계화의 이익에서 가장 소외된 존재 중 하나이며 그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학계에서 드물다. 특히 초국적으로 다루어진 여성농민층에 대한 연구는 더 이루어졌으면 세계적으로 농식품체제에서 존재하는 문제들이 더욱 서명하게 보일 것이라고 본다. 여성농민들의 많은 풀뿌리 운동들 중에 씨앗을 지키는 운동을 선택한 것도 씨앗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과학적이거나 다수확성을 높이려는 것에 관심을 두지만 씨앗 지키기는 사회에서 특히 농민여성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다루는 논문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세계의 농업구조에서 산업화 또는 세계화의 변화는 여성 농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을 '싸앗지키기'라는 '미발달적' 관습을 다시 선택한 여성농민들의 운동으로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다. 이를 위한 20 세기에 개발과정을 거친 인도와 한국의 여성농민들의 풀뿌리 조직을 선택한 것이다. 인도와 한국 여성들의 씨앗 지키기 운동들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것에도 불고하고 현재까지 함께 분석한 논문이 없다는 것이었다.

II. 방법론

본 연구는 풀뿌리 운동을 분석하고 소위 “낙후된” 관습인 씨앗 지키기는 어떠한 이유로 여성농민들이 다시 하게 되었는지의 답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질적인 현장 연구를 선택하였다. 여성농민 및 활동가들의 개인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답을 얻고자 하여 현장 연구 아래 개인 인터뷰 및 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도에서 나바단야 논밭과 본사가 위치한 지역 우타라칸드주를 선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강원도 횡성 또는 경남 거창을 선택하였다. 우타라칸드주는 나바단야의 씨앗지키기운동의 시작한 지역으로써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연구에 선택되었고 한국의 횡성 지역도 전여농의 토종씨앗지키기 운동의 첫 지역 중 하나로써 토종씨앗지키기를 시작한 뒤에 오래 시간 동안 자신의 삶에 변화를 목격한 여성 농민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였다. 거창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횡성과 다르다. 거창에서 만난 분들은 농업을 오래동안 하신 분들이지만 토종씨앗지키기운동을 시작한지 2 년밖에 안되어서 거창 여성농민들은 현재에도 매주 수요일 씨앗을 수집하러 다니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토종 농사를 시작하는 여성 농민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며 어떤 이유로 생각에 전환이 되어 운동을 시작했는지 알 수 있어 이 지역을 선택하였다. 나바단야는 인도의 많은 지역에서 활동 중이지만 우타라칸드주에 위치한 나바단야 생물다양성 논밭은 전여농의 횡성처럼 가장 오래된 센터이다. 주변 마을 여성 단체들은 오래동안 활동하고 있어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래된 만큼 회원들 시대도 바뀌어서 젊은 여성- 딸과 며느리들도 같이 다녀 운동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는 대상자들과도 대화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그럼으로 지역과 토종 씨앗 지키기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자들이 선택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는 총 15 명이었으며 대부분 여성농민이었으나 한국에서 1 명 또는 인도에서 4 명은 여성농민들과 밀접하게 농촌에서 토종씨앗 지키는 활동을 하는 단체 활동가들이었다. 한국에서 대상자 연령대는 40 대에서 80 대였으며 인도에서는 20 대부터 50 대였다.

모든 인터뷰는 2019 년 7 월부터 8 월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 장소는 횡성 여성농업인센터, 거창 '아줌마 날다' 카페 (토종 씨앗 지키는 거창 여성농민들의 회의 장소) 또는 우타라칸드주 데라둔시 근처 위치한 나바단야 생물다양성 논밭 (Navdanya Biodiversity Farm). 나바단야 여성농민 모든 대상자 중 2 명의 (대상자 11 과 12) 인터뷰는 전화통화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질문들은 반구조화된 것이었으나 인터뷰 대상자와 인터뷰에 흐름에 따라 추가적으로 정보나 설명이 필요할 때 질문을 덧붙었다. 인터뷰는 영어, 한국어 또는 힌디어로 진행되었고 힌디어 인터뷰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평균 1 시간에서 2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대상들의 익명성이 보장이 되었다. 본 연구의 두번째 방법은 나바단야와 전여농이 발간된 자료에 분석이었다. 인터뷰와 현장 연구에서 찾지 못한 정보를 단체 소재로 통해 보충하였다. 자료는 뉴델리에 위치한 나바단야 본사 및 서울에 위치한 전여농 본사에서 찾았다.

대상자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소속단체	역할
1	여	50 대	횡성	횡성 전여농	여성농민, 전여농 활동가- 여성농업인센터 임원; 언니네텃밭 횡성공동체 회원

2	여	40 대	횡성	횡성여성농업 인센터	여성농민회 센터 직원
3	여	80 대	횡성	횡성 전여농; 언니네텃밭 오산공동체	여성농민; 횡성 언니네텃밭 오산공동체 회원
4	여	40 대	횡성	횡성 전여농	여성농민; 토종 씨앗 제종포 담당; 언니네텃밭 횡성공동체 회원
5	여	50 대	횡성	횡성 전여농	여성 농민; 전여농 임원; 언니네텃밭 횡성공동체 회원
6	여	50 대	거창	거창 전여농	여성 농민; 토종살림 활동가
7	여	50 대	거창	거창 전여농	여성 농민, 거창 전여농 임원

[표 2-1] 전여농 인터뷰 목록

대상자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소속단체	역할
8	여	20 대	우타라칸드주	나바단야	나바단야 임원
9	여	50 대	우타라칸드주	나바단야	여성 농민; 나바단야 속 토종밭 관리인
10	여	50 대	우타라칸드주	나바단야	여성 농민; 나바단야 속 토종밭 관리인
11	여	50 대	우타라칸드주	나바단야	여성 농민; 마을 여성 단체 회원
12	여	30 대	우타라칸드주	나바단야	여성 농민; 마을 여성 단체 회원
13	여	20 대	우타라칸드주	나바단야	나바단야 임원
14	남	50 대	우타라칸드주	나바단야	남성 농민; 나바단야 임원
15	남	50 대	우타라칸드주	나바단야	나바단야 임원; 토양 분석실

[표-2-2] 나바단야 인터뷰 목록

III. 분석

이번 장에서 나바단야와 전여농의 15 명의 대상자 인터뷰와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연구 질문을 답하고자 한다. 배경에서 본 듯이 현재 대부분의 식량은 산업적으로 생산되는 세계에서 식량주권 운동들은 대안적, 먹을거리 위주의 농업을 추진하며 그 중에서 씨앗지키기운동은 산업적인 대량 농사에서 쓰이는 잡종 씨앗과 GMO 종자를 거부하고 토종/토착화된 전통 씨앗을 택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을 하는 한국 전여농의 여성농민과 인도 나바단야의 여성농민들이 주요의 농법을 반대하고 어떤 이유로 씨앗을 지키고 있는지가 이 논문의 연구 질문이다. 연구 과정에서 실시한 대상자와의 인터뷰 또는 자료들은 비치는 연구 질문의 답을 다음 3 가지의 테마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는 '토종씨앗 지키기와 여성 농민의 소득 보장'이며 이는 여성농민들은 씨앗 지키는 일의 토대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한다는 이유이다. 두번째는, '토종씨앗 지키기와 여성 농민의 지위 향상 또는 공동체 형성'이며 이는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 활동을 하면서 여성농민들은 자신의 지위를 향상되는 변화를 만나고 산업화 과정에서 파괴된 농촌 공동체를 되찾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세번째는 '토종씨앗 지키기와 여성 농민의 문화적 기억, 건강과 환경'이다. 이는 여성농민들의 씨앗을 지키게 된 결정에 영향을 준 '문화적 기억'에 관한 분석이며 '문화적 기억'은 토종 농산물을 둘러싼 요리, 식생활, 관습, 농사 방식 등을 포함한 말이다. 이와 덧붙어 세번째 장에서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정의 건강과 거주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은 토종 씨앗을 지키게 된 이유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1. 씨앗지키기와 여성농민의 소득 보장

i) 전여농의 토종씨앗 지키는 여성 농민과 소득 보장의 관계

a) 씨앗 지키기의 담론

전여농의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의 공식 사이트에서 토종씨앗 지키기가 '왜 중요한가요' 부분에서 5 점은 제시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다.

"하나, 씨앗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둘, 토종씨앗은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해결할 열쇠입니다.
셋, 토종씨앗을 지키는 것은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생태계를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넷, 토종씨앗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거나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여섯, 토종씨앗은 외국에서 수많은 돈을 주고 종자를 사와야 하는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113]

토종 씨앗에 관한 담론- 더 나은 미래의 '열쇠'와 비교되는 담론은 비아 캄페시나에서도 흔히 사용이 되며 예를 들어 "비아 캄페시나: 우리 씨앗, 우리 미래'라는 자료에서도 전여농은 씨앗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전여농의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에 관한 글이 포함되었다.

"When farmers buy seeds in a store, they simply ask when to plant and when to harvest. They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 seed companies. Therefore, they stop observing the plants for themselves. The example of maize shows that dependence on the industry has caused farmers to forget how to farm adequately. The farmers' eyes could no longer see the right time for harvesting. This problem is the result of farmers who become dependent on purchasing seeds, fertilizer and other chemicals, and even microbial cultures in organic farming. The result is a loss of knowledge, resources and autonomy…KWPA is reclaiming the seed rights of peasants, the best weapon for producing without chemicals. And women farmers continue working with non-farmers to find, select, and protect our native

[113] 전여농 공식 사이트. http://www.kwpa.org/index.php 접속일: 2019. 09.13

seeds. These are not only the seeds that will create food sovereignty. They are also the seeds to create a new society."[114]

여기서도 다국적 기업에게 농민들의 의존을 끊일 수 있는 방법으로써 토종씨앗을 중요시하며 토종씨앗은 식량주권 또는 나아가서 새로운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농민들은 씨앗과 함께 씨앗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기본 농업 지식을 함께 놓쳤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럼으로 씨앗을 다시 갖춤으로써 씨앗의 소유자가 되어 놓친 지식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본 논문의 여성농민들과 인터뷰에서도 씨앗 지키는 일이 본인에게 왜 중요한지의 질문의 답으로 여성 농민 겸 전여농 활동가인 인터뷰 대상자들은 녹색혁명, 정부의 농업정책, FTA 체결, IMF 사태와 다국적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배경으로 삼아 씨앗의 사라짐을 설명하며 현재에도 다국적 기업에게 농민의 의존을 우려하면서 농민에게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씨앗을 지켜야 될 이유로 삼았다. 다음은 횡성 여성농민회 소속 여성농민 겸 전여농 임원을 지니는 대상자 1 의 답이다.

"…토종 씨앗을 바꾸면서, 농법을 바꾸면서 우리의 씨앗이 아니라 대대로 되몰림 했던 그 씨앗이 아니라 기업의 종자를 사서 쓰면서 거기서부터 농민들이 다수확을 하지만 다수확된 품종들이 가격 폭락이 되고 또 그게 생산비에 모자라니까 빚을 내서 악순환에 빠지는 건데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뿌리 씨앗이라고. 여성농민들이 씨앗이라고 했던거고 씨앗을 여기까지 지켜왔던 여성농민이었다. 여성농민의 가치, 여성 농민들에 대해 가치를 높여내고 농업에 있어 악순환의 뿌리를 좀 끊어내는 걸로 씨앗을 잡은 거고…이게 농업의 지속가능성 이끌어가는 데 시작이고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했었던 거 같애요."(대상자 1)

대상자 1 은 다국적 대기업들이 한국의 종자산업 진출한 뒤 농민이 대기업의 다수확 개량된 씨앗을 구입하게 되면서 어떻게 빚의 악순환이 구성되는지 설명해본다. 최근 통계자료의 의한 2018 년말 기준 농가의 평균부채는 3,327 만원으로 전년대비 26.1% 증가한 것으로 보였다.

[114] 8-9 쪽. <La Via Campesina. Our Seeds, Our Future> (2013) https://viacampesina.org/en/our-seeds-our-future/; 접속일: 2019. 09.13

용도별로 농업용, 가계용, 겸업·기타용 모두 증가했으며, 농업용 비중이 4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115] 이는 현재 농민이 부담하는 빚이 가장 많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국의 농업 배경의 관한 장에서 언급 된 듯이 녹색혁명 이후로 한국 농업의 구조가 바뀌면서 다수확 목표를 가지고 농민들은 생산수단인 씨앗이 직접 채종하고 보전하는 것이 아닌 시장에서 구입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구입한 종자에 맞는 농약, 비료, 등을 외부시장에서 구입해서 농사짓게 된 것이다.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것이 많아진 만큼 수확도 반드시 높여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나 농민 모두 다수확을 하면서 대상자 1 의 답처럼 농산물 가격이 폭락되면 어쩔 수 없이 빚을 지어야 된 상황이 벌어진다고 나타났다. 여성농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종자회사나 정부에서 보급된 '잡종' 씨앗은 처음 쓸 때는 수확량이 많은데 다음 번은 어떤 형식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 자가채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씨앗도 또 다시 시장에서 살 수 밖에 없다고 제시했다. 이 계속 되는 과정을 대상자 1 은 악순환이라 불렸다. 이런 시점에서 전여농은 토종 씨앗, 기업의 씨앗이 아닌 옛날부터 농민들이 대대로 받아온 씨앗을, 채종해서 보관하고 농사지을 수 있으면 미래에는 농민이 이 악순환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전여농의 공식 담론에서 자주 마주볼 수 있는 것이다.

b) 씨앗 지키는 여성들의 삶의 현실- 시장 경제와 담론 사이에

전여농 여성 농민들에게 토종씨앗 지키기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물어본 결과 공식 담론에서 말하는 토종 씨앗의 중요성과 그들의 현실 간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횡성에서 10 년동안 대상자

[115]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18)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16

1 과 같이 활발한 토종 씨앗 수집을 해온 대상자 5 는 토종 씨앗 어떻게 없어지고 그것을 왜 지키고 있는지의 답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농민이 옛날에는 내 씨앗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였는데 잘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였어요. 정부는 거기에 ‘잘’ 자를 붙었어요. 너도 열심히 돈 벌어서 중상층 갈 수 있어. 다단계 판매 하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 하면 소농이 없어져요. 다품종 없어지고. 토마토를 막 비닐하우스를 한 천평 2 천평 대량으로 하는 농민이 생겨나고. 왜냐면 빚을 지어지고 조금만 하면 못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씨앗도 없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잘 사는가? 속으로 보면 빚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게 농법도 얘기했지만 전에는 내 노동력으로만 했지만 이제 제 노동력으로는 안되고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기계도 있어야죠, 남의 손도 빌려야 되고. 그래서 농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있고.” (대상자 5)

위에 대상자 5 는 정부의 정책을 의해서 토종 씨앗이 없어지는 과정과 대상자 1 이 말한 악순환을 설명했다. 그러나 토종 씨앗이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음과 같이 이어서 답을 한다.

“이게 악순환적이지만 이 토종씨앗이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요만 했다랬잖요 (토종 먹을거리가 작다는 말). 정부에서 맞추는 소득기준이 우리가 못맞춰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나의 소득기준이 어디에 있고 나의 삶의 기준을 어디 맞추는가가 중요한 것 같애. 그게 되지 않으면 많은 소득을 내야되고 토종 씨앗으로는 그만큼 소득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운동적인 자원에서 지키는 정도인 거에요. 그래서 횡성 농민회도 운동적인 상황에서만…저는 그래요. 사실을 농사 이거 해갖고 소득을 많이 내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나를 지키는 농민이니까 농민이 땅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씨앗도 갖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누구한테 말할 때 소득이 많이 난다 그렇지는 않고 그냥 지키는 데 의미가 있다. 원물이 있어야 좋은 종자는 만든대더라 이 원물 DNA 에서 빼가지고 새로운 슈퍼종자는 만든데더라. 근데 이 원무를 외국이 다 가져가고 있고 우리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거 지켜야 되지 않는냐. 우리 거라고. 이거 하나인 것 같애요. ” (대상자 5)

대상자 5 는 주로 잡종 종자와 농약이 많이 들어가는 대량 농사를 정부의 ‘다단계 판매’라고 부르고 다품종의 하락을 지적하면서도 현재 농민의 소득 수준을 강조했다. 대상자 5 의 말을 빌려서 쓴다면 ‘잘’ 사는 것도 아닌 그냥 먹고 사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토종씨앗을 지키는 자들에게도 토종 씨앗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소득 보장은 토종 씨앗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상자 5 의 의한 농민이 토종 씨앗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농민이 땅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씨앗에 대한 권리도 유지해야 앞으로 농민이 직접 좋은 씨앗을 가져서 기업에게 의존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강조했다. 대상자 5 의 답에서 본 듯이 토종씨앗을 지키는 농민은 자신의 생계 유지와 토종 씨앗에 대한 의무감 중간쯤에 뻐져 있다. 앞으로 대상자 6 은 거창지역에서 태어나 도시에 살다가 귀농한 여성 농민이며 그에게도 토종 씨앗 수집과 농사에 관해 물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답을 했다.

"서울에 아이를 키울 때 도시에서 주말농장을 했었어요, 조금한 텃밭에 다가. 어렸을때 기억으로 안하고 도시니까 시골이 아니고 씨를 뿌리는 거 보다는 파는 곳에 가서 모종을 사다가 심고 이런 게 대세였는데 어느 날은 완두콩을 사게 됐어요. 완두콩을 모종으로 팔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완두콩이 제가 아는 완두콩 색깔이 아니더라고요. 이 완두콩은 왜 이리 주황색이지? 씨앗 봉투를 찾아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온 씨앗인 거에요. 또 보니까 이탈라이에서 온 씨앗도 있고. 처음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여기서 (거창에서) 20 년 전에 나가서 (도시에) 살았다가 씨앗을 접하는 순간에 언제부터 씨앗이 외국산이 다 와서 우리의 이 밭을 점령하고 있는지. 왜 씨앗이 이렇게 코팅이 되어있는지 몰랐어요. 왜 약품처리가 되어 있는지 전혀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 이게 왜 그런가가 풀기 시작했을 때 토종 씨앗을 알게 된 거죠. 아 이런 (잡종) 씨앗이 다국적 기업에 위해서, 종자 회사들을 위해서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고 그때 관심의 시작이었어요." (대상자 6)

대상자 6 도 다국적 기업의 농업의 독점에 대한 우려하면서 개인 인생에서 씨앗에 관한 인식화계기가 왔다는 것이며 토종씨앗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다음, 대상자 6 에게 토종씨앗이 없어진 이유에 관해 물어본 뒤 그는 기업에 종자에 악영향을 지적하면서도 대상자 5 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농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중요시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량이 적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을 때 내가 수출할 양이 작아요. 이게 1 순위이에요…먹고 사는 문제 가장 취약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감자를 깼는데 10 개 나오는 거면 10 식구가 먹는 거랑 똑같지 심어서 한 20-30 개

나오는 감자로 10 식구가 먹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먹거리 문제에서 가장 밀려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량된 씨앗이 가장 크게 침투한 것이죠. 저장이 되기 때문에 계절을 넘겨도 식량 부족하지 않고 제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기반이 돼서 안정적인 어떤 먹을거리가 어느정도 해결된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다시 토종씨앗을 수집하러 다니면 '옛날에 너무 맛있었다, 이제는 토종 씨앗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만큼 맛보다는 양이 그때 중요했던 거에요. 질보다 양이. 지금은 이제 다시 생각이 나는데 이미 종자회사에서 다 물고 들어온 거죠. 2~3 개 끼워주니까 갖다 심어보고 내 씨앗이 사라지고." (대상자 6)

여기서 대상자 6 은 주장하는 것이 토종씨앗을 수집하려는 오늘의 여성 농민은 어느 정도의 생계의 안전을 가진 뒤에 이제서야 그 작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대상자 6 에게는 토종씨앗이 안전을 찾아주는 '열쇠'보다 지금 상황에서 안전을 다른 시장원리 안에서 찾아야 (대량 농사하거나 도시로 이전함으로써) 토종씨앗을 지킬 수 있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농민이 시장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c) 농산물 판매 네트워크의 차이- 정부 수매와 언니네텃밭

대상자 6 은 현재 경남 거창 지역에서 토종씨앗을 수집하는 작업을 하면서 매주 집-집마다 토종 씨앗을 찾고 있다. 그는 다른 여성농민들에게 토종씨앗 지키는 일이 제안했을 때 제일 많이 드는 답이 다음과 같다.

"반응들은요, 젊은 농부보다는 나이 드신 농부들은 농사를 훨씬 잘 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제안할 때 돈이 안된다고 하시고 이게 가장 큰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게 내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량화 된 씨앗을 받아드릴 수 밖에 없었고 정부 수매라든지 이런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짓는 토종 농사가 그만큼 대가 받을 수 없는거에요. 농민이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먹거리 해결하는 부분에서 내가 이 토종씨앗으로 먹을거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선택할 수 없죠." (대상자 6)

대상자 6 이 만나는 고령층 농민들은 먹을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여긴다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토종씨앗을 더 잘 지킬 능력이 가진 고령층 농민들은 그러할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목격했다.

토종 씨앗 농산물에 대한 정부 수매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은 수매가 가능한 쪽으로 농사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인터뷰들에서도 토종 씨앗 지키기를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이유는 대상자 6 이 주장한 듯이 소득의 보장이다. 거창 지역의 가장 큰 문제를 물어본 결과 대상자 6 은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

"거창 지역의 문제는 과수목이 가장 많다는 거에요. 일반 우리 농민들보다 대농 큰 과수농은 해서 그것으로 수입을 유지하고 먹고 오히려 그런 작은 작물을 키울 수 있는 밭들이 다 과수가 되고 사라졌어요. 이게 한 평에 내가 고추를 심으면 10 주 밖에 안 심고, 생산량 얼마나 될까요. 근데 사과 나무 1 굴을 심으면 소득이 몇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민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인거죠." (대상자 6)

거창 지역에서 사과가 유명하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주 먹을거리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의 이유는 대상자 6 은 소득이라고 주장한다. 농민들이 소득을 늘리기 위한 농민들은 모두 과수목을 심는데 지역 자급자족 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시장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농민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한우가 유명한 횡성지역에서 거주하는 대상자 4 의 집안은 소를 키우고 콩 농사를 대량으로 한다. 대상자 4 는 10 년전 전여농 활동을 시작하면서 대량 농사를 줄이고 토종씨앗 농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상자 4 의 집안에서 현재 두가지의 농사를 같이 하고 있다. 첫번째는 구입한 잡종씨앗으로 하는 대량 콩 농사이며 두번째는 스스로 씨를 받고 심는 먹을거리 위주의 토종 농사이다. 대상자 4 는 토종씨앗 지키는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

"여농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했다가 언니들이 '언니네텃밭' 횡성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본격 시작했어요…그때까지만 해도 여농을 했는데 농사를 크게 짓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들어가면서 대량 농사가 너무 편해 보여서 대량 농사를 우리 어머니가 짓고 있는 걸 다 교체를 했어요. 대량으로. 콩도 3-4000 평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제가 인도의 목화 씨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토종씨앗을 이렇게 해주는 것 (무료로 배포해주는 것). 소장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소장님은 토종 씨앗을 주었어요. 근데 그전에 저희 어머님이 토종씨앗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저희가 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없앴거든요. 지금을 와서 토종씨앗을 하자고 할 때 우리 어머님이 엄청 반대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도 길들여진 거에요. 제가 와서 대량 하니까 엄청 쉬운 거에요. 제가 처음 시집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토종을 하고 있을 때 이 밭 저 밭 종료가 다 달랐어요. 판매하는 데도 그렇고 돈 많이 못 만지지도 못하는데 콩- 이런 거는 정부에서 수매를 하니까 다 팔기도 편하고 그랬었는데 소장님 만나면서 조금 토종을 내가 조금 해야 되겠다의 생각이 드는 거에요…시행착오가 뭐냐면 시어머니가 도와주지 않다면 저는 씨를 못 받는 거에요. 씨 받기가 엄청 어려워요. 어렸을 때 배워서 하면은 쉬운데 저는 못해봐서 아직도 힘들어요…" (대상자 4; 괄호 안의 단어 추가되었다)

대상자 4 는 시어머니가 하던 토종 농사를 접고 잡종 씨앗을 구입해서 소득이 더 안정적으로 보인 대량 농사를 시작했다. 대상자 4 의 시어머니가 하던 토종 농사는 다양했으나 대상자 4 가 시작한 농사는 모두 대량 콩이다. 대상자 4 의 친정 집에서 모두 대량 농사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라 대량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바뀌기 시작한 계기는 인도의 GMO 목화 씨앗에 관한 다큐를 본 뒤라고 한다.[116] 이러한 경험은 위에 언급된 대상자 6 과 비슷하게 인식화 계기이며 대상자 6 과 유사하게 인식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중요시하면서

[116] Peled, Micha. (2013) *Bitter Seeds*: "Micha Peled's documentary on biotech (Bt) farming in India observes the impact of genetically modified cotton on India's farmers, with a suicide rate of over a quarter million Bt cotton farmers each year due to financial stress resulting from massive crop failure and the price of Monsanto's Bt seeds. The film also disputes claims by the biotech industry that Bt cotton requires less pesticide and promises of higher yields, as farmers discover that Bt cotton requires more pesticide than organic ≥cotton, and often suffer higher levels of infestation by Mealybug resulting in devastating crop losses, and financial and psychological stress on cotton farmers. Due to the biotech seed monopoly in India, where Bt cotton seed has become the standard, and organic seed has become unobtainable, thus pressuring cotton farmers into signing Bt cotton seed purchase agreements with biotech multinational corporation Monsanto." (출처: https://itvs.org/films/bitter-seeds) 접속일: 2019.07.25

대상자 4 는 콩 대량 농사를 하고 있고 그의 이유를 정부 수매가 잘 되어 있어서라고 했다. 한국은 1995 년 세계무역기구 (WTO)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여 매년 일정 수준('95 년 51 천톤 → '04 년 205 천톤 → '14 년 409 천톤)의 쌀을 저율관세로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1995 년부터 2004 년까지 TRQ 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해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2005 년부터 밥쌀 의무수입이 30%로 규정됐고 최근 5 개년 밥쌀용 쌀 수입 매년 규정에 따라 증가했다. [117] 최근 이러한 저율할당관세물량(TRQ)의 수입·판매 등은 WTO 규정을 받아드리고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경우에 국내 쌀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이 된다.[118] 정부는 이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노력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9 년에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유도해 쌀 생산량을 조절하고, 국산 콩 자급률을 높여 국산 콩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2019 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수매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으로써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1000 ㎡ 이상 재배할 경우 작물별로 1ha(1 만㎡)당 340 만원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119] 대상자 4 는 이러한 정부의 수매 정책에 때라 대량적으로 콩 농사를 짓고 있다. 정부 수매가 이루어지는

---

[117] 농림축산식품부. (2019.09.17) "밥쌀 수입 불가피…국내 쌀산업 영향 최소화 노력"
"밥쌀용 쌀 수입 현황 : ('14) 122,610 톤, ('15) 60,000 톤, ('16) 50,000 톤, ('17) 40,000 톤, ('18) 39,800 톤";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4702; 접속일: 2019.09.21

[118] 농림축산식품부. (2019.09.17) "밥쌀 수입 불가피…국내 쌀산업 영향 최소화 노력"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4702) 접속일: 2019.09.21

[119] 조선비즈. (2019.3.9) "정부,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한 콩 전량 수매키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6/2019030602683.html?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utm_campaign=biz; 접속일: 2019.09.21

항목 안에서만 농사를 지어야 안전한 소득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콩 다수확을 주장하는 잡종 씨앗과 화학물질을 선택할 수 밖에 없고 토종씨앗은 사라지는 형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대상자 4 는 정부 수매를 목표로 하는 대량 농사 외에 개인 가족 또는 '언니네텃밭' 사업을 위한 먹을거리 위주의 소량 토종 농사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에 본 듯 토종농사는 대부분 소득 보장을 하지 못한 경우에서 농민들은 토종농사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자 4 는 토종 농사를 대량 농사와 함께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전여농 '언니네텃밭' 사업을 뽑았다. '언니네텃밭'은 "전여농 식량주권사업단으로 시작해 250 여명 조합원들과 한국 17 개의 지역 공동체를 운영하며 토종 종자와 생태농업을 기반으로 한 체절꾸러미사업과 언니네장터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의 대안 길을 넓히고 있다"고 한다.[120]

언니네텃밭의 생산원칙은 4 가지이다- 생태농업, 제철 농산물, 토종씨앗, 공동 계획과 공동 생산. 언니네텃밭으로 통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은 큰 기업과 중간 상인을 배제하고 토종씨앗을 지키고 농사를 짓는 여성농민들과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언니네텃밭의 인터넷 사이트로 통해 원하는 지역의 토종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더 장기적으로 토종농사물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한번 배달이 되는 '체절꾸러미'를 신청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매와 같은 정책의 결여된 상황에서 전여농이란 비국가적 단체가 여성농민들 위한 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본다. 이러한 시스템의 존재 때문에 토종씨앗을 지키는 농민들은 보다 안전한 소득 또는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한국에서 인터뷰한 대상자들 중에 대부분은 언니네텃밭을 통해 토종씨앗 농산물의 사업을

[120] 언니네텃밭 공식 사이트. sisterskitchengarden.co.kr. 접속일: 2019.09.21

이루고 있다 (횡성에 거주하는 대상자 1, 대상자 3, 대상자 4, 대상자 5). 본 논문은 전여농에서 부여하는 안전한 직거래 시스템은 토종씨앗을 지키는 여성농민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본다.

특히, 언니네텃밭 횡성공동체는 전여농 언니네텃밭의 모든 공동체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다음 뉴스 기사의 의한 농산물 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보장이 없어도 언니네텃밭을 하고있는 "꾸러미" 농민들은 그런 영향 덜 받아 소속 농민들은 농산물 제값을 받는다-

"이제 횡성에서 횡성공동체를 모르는 농민이 없다. 배추가격이 폭락하면 제값을 못 받기 일쑤인데, 언니네텃밭은 꾸러미에 넣고 절임배추를 공동판매하면서 제값을 받아 관심이 집중됐다. 횡성여성농민회 이숙자 회장은 "꾸러미가 가격 폭락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내 마을에도 공동체가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횡성 여농은 한 달에 한 번 월례회의를 진행하는데 반드시 교육도 함께하고 있다. 고령화된 여성농민은 "나는 잘 몰라"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식으로 정리되지 않아도 적정 생산비 보장의 필요성, 전통농업, 토종씨앗 지키기 등을 삶으로 체득해 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121]

또는, 소속 회원들이 전여농에서 교육하는 종자주권, 식량주권, 안전한 먹을거리, 양성평등 등의 운동적 담론을 이해하지 못하여도 위와 같이 계속 적극적으로 언니네텃밭과 토종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다. 본 인터뷰도 연니네텃밭 횡성 오산공동체 회원인 고령화 80 대 여성농민 대상자 3 과 인터뷰를 실시했다. 대상자 3 은 농촌에서 태어나 25 살까지 부모님 따라 담배 농사를 했다. 횡성으로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께서 하시던 농사를 계속했다고 전했다.현재 농사일 모두 본인 혼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옥수수 씨앗 말고 농사일 모두 토종씨앗으로 한다고 알려준 것이다.

---

[121] 한국농정뉴스. (2012) <언니네텃밭은 농촌의 활력소>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6759 접속일: 2019.08.13

“옥수수만 사고요. 다른 거는 다 씨를 받아서 하는 거에요. 여기 와서는 시집 오니까 다양하게 감자 있고 강남 콩인데 다 씨를 받아서 하신 거에요. 이제는 옥수수, 감자, 강낭콩, 참깨, 그런 게 해 천평에… 저는 어려서 담배는 지신 있어요. 씨앗으로부터 심는 것. 삼세부터 담배 농사를 했으니까요,내가. 열살 때부터. 열살 때부터 담배 낄어 댕기고, 심으러 댕기고… 아마 한 스물여섯 까지는 한 것 같아요. 세끼 줄도 끼다가 말을 줄도 끼다가 집계를 집다가…” (대상자 3)

대상자 4 의 콩과 토종 농사의 분리와 같이 대상자 3 도 옥수수와 토종 농사를 분리해서 생계 유지를 한다는 것이 알 수 있었다. 대상자 3 과 대상자 4 는 모두 콩이나 옥수수 농사에서 화학물질을 많이 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토종씨앗 지키는 농민들은 현실과 이상적인 것 간에 조정하고 (negotiate) 있는 상황이다. 대상자 3 에게 비료와 농약을 구매하는 것이 큰 부담인 것 말했다. 역설적으로 언니네텃밭으로 벌고 있는 소득은 다시 또 옥수수 농사에 뿌릴 비료를 사는 데에 갈 수 밖에 없다고 전해주었다.

“내가 좋은 거는요. 내가 용돈을 받으니까 좋은거에요.(언니네텃밭) 그거 아니면 내가 돈을 못만지거든요. 그것 때메, 내 용돈때메 하는 거지. 근데 다 재료에 다 들어간 거죠. 거름 사고 비료를 사야 되니까 내가.” (대상자 3)

전여농과 함께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 이유를 ‘용돈’이라고 말한다. 토종씨앗지키기 운동의 공식 담론에서 언급이 많이 되는 대로 토종 씨앗 차제만이 현실적으로 농민을 기업의 종자에 대한 의존에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없더라도 전여농과 함께 하는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은 언니네텃밭과 같은 현실적인 프로젝트로 여성농민이 생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을 주목했다. 이는 비아캄페시나의 비시장경제적 담론을 따르기 보다 토종 씨앗이라는 것을 시장경제 안에서 상품화 시켜 정부 정책이 결여된 상황과 불안전한 농업 환경에서 소비자와 직접 연결시킴으로 전여농은 토종 농사 직거래 시스템을 통해 여성농민들의 소득의 원천이 되었다. 언니네텃밭 횡성 공동체를 오래동안 회원으로 일을 하며 80 년대 말 대학시절 때부터 농민운동을 하고 1992 년에 전여농 회원가입을 하며

활발하게 농민운동을 이끌어온 대상자 1 은 모든 농사를 유기농과 토종씨앗으로 하고 토종 씨앗 운동과 언니네텃밭에 가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나이를 들면 일을 말아야 하지 그러는데 한국의 한국 여성농민은 나이 들어도 일해야 되고 소득이 없어요. 어르신의 말을 들으면 힘만 있으면 일을 해야지 된다고 아파서 눕지 않는 이상 일을 해야지 해서 상황인 거죠…언니네텃밭 횡성 같은 경우는 함께 하면서 여성농민회가 조직이 늘어났어요. 그게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해서 소득이 벌어야 되니까 대량으로 못하고 소량을 하니까 판매 할때 도움이 되고 그래서…저희는 운동적인 자원에서 하는데 그건 것 같아요." (대상자 1)

전여농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은 생계유지 마저 어려운 고령화 여성농민에게 대량 농사를 못해도 토종 소량 농사로도 소득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부여한다. 이는 토종 씨앗을 지키는 데에 큰 이유가 된다고 본다. 대상자 2 는 여성농민이 아닌 횡성에서 거주하는 농촌 여성이며 여성농민회에서 행정 관련 일을 하여 농민회에 오는 여성농민들과 자주 소통을 하고 회계를 담당한다. 대상자 2 도 대상자 1 과 마찬가지로 소득 보장을 중요시하면서 여성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하는 제도로 언니네텃밭에 대한 얘기를 했다-

"소득 보장이 없으면 그분들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일을 연장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래도 기본적으로 네 삶이 먼저이기 때문에 삶의 보장이 안되면 끝까지 끌어 갈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죠. 다른 데 (다른 일)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보장이 안되니까 그래도 언니네텃밭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삶의 보장이 되는 거에요. 소득이 많지는 않아도 내가 어디 가서 설거지를 하든 다른 일을 하든 그거 보다는 나은 거죠. 여기서 원주까지 나가야 또 일이 있고 여기 내에 많지 않아요. 그래도 꾸러미는 꾸준한 고객이 있다 보니 소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대상자 2)

농민여성들은 많은 경우에 일을 2~3 개 해야만이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특히 고령화 여성들은 소량농사만으로 소득 보장이 안되어 집 도우미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상자 2 의 의한 원주와 같은 도시로 나가서 일을 하기 보다 토종 씨앗 농사로 여성농민들은 생계 보장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운동적 성공인 것이다.

d) 언니네텃밭 외에 토종 농산물 판매 네트워크 형성

언니네텃밭 공동체 확립을 앞두고 토종씨앗지키기 운동이 시작한지 얼마 안된 경상남도 거창지역에서는 토종씨앗을 지키는 여성농민들은 전여농과 전여농 연대 단체들 통해 비슷한 시스템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대상자 6 은 본인의 토종 농산물을 거창지역의 한 가게에서 가공제품으로 공급하고 있다. 작년에 검은 참깨 토종 농사를 하여 수확을 해서 한 친환경 아이스크림 가게가 그 토종 참깨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팔고 있다는 것이었다. 본인 개인의 경험 외에도 황성 전여농 토종 씨앗 지키는 여성들은 지역에서 순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거창에서 전여농의 토종씨앗 지키는 일과 판매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토종 씨앗은 이제 작년에 1 년 동안 지역에 수집하고 올해 지금 2 년 차 하고 있는데 수집한 씨앗이 한 200 여 정도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 다른 지역에서 얼마든 가지고 올 수 있었지만 이 지역에서 살아남았던 씨앗들인 거에요. 이 지역에서 살려나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죠. 그래서 목표로 무엇을 가졌냐면 연대를 해서 1 차 농산물을 언니네텃밭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우리는 판매하고 끝이 아니라 뭐가 이 지역에서 순환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한달 전에 저희가 팥, 이 지역에 팥 전문점이 있어요. 그 분도 여성 농민이시고 농민회 분이시거든요. 그 팥이 이 지역에서 토종 팥을 가지고 그 분한테 연결을 해드리면 서로 토종농사를 해서 순환을 시킬 수 있어요. 이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팥빙수를 팔게 되면 그 팥을 우리 토종 팥을 쓰게 될 점. 여기 건너편에 한살림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팔기도 해요 역 토종농사하는 분과 연결해서. 한살림도 이 지역애서 여성농민들이 만들어 놨어요. 한살림에도 얼마전에 여기 경남지역연합회에서 자체적인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서 자주매장에 토종 씨앗이 들어간 게 맞아요. 토종 작물을 이제 판매가 가능하도록 차차 다 연결할 생각이고. " (대상자 6)

대상자 6 을 인터뷰하는 장소가 거창 전여농의 소속 여성농민들을 위한 만든 공간이며 이름이 '어줌마 날다'인 만큼 여성 농민들 위한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공간도 마련해주고 토종농사물을 지역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가게이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지역내 토종씨앗 농산물 순환

방식을 지역 농민 단체 (한살림 등)와 지역 개인 가게 (아스크림 가게, 카페나 밭 전문 식당 등)와 연대를 맺어 토종농산물로 소득 보장이 가능한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부분에서 전여농은 여성농민들에게 토종씨앗에 관한 담론뿐 만 아닌 현실적인 토종 농산물 판매 네트워크를 부여함으로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ii) 나바단야의 씨앗 지키는 여성 농민들과 소득 보장의 관계

a) 씨앗 지키기에 관한 담론

인도 나바단야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씨앗 지키기 운동 중 하나인 만큼 강한 의지의 반자본주의적 담론을 갖고 있다. 이 단체는 씨앗이 모든 생명의 시작으로 보며 농민이 씨앗을 지켜야 자신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나바단야는 종자주권이 농민층의 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다음과 같은 반다나 시바의 인터뷰에서도 그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armers' seed sovereignty is at the heart of solutions to the epidemic of farmer suicides. Only when farmers have access to their own seeds will they be free of debt. And only through seed sovereignty can farmers' incomes be increased. Organic cotton farmers earn more by avoiding costly seeds and chemicals. Organic cotton is the future."[122]

---

[122] Navdanya International. https://navdanyainternational.org/seed-freedom-and-the-future-of-farming/;https://navdanyainternational.org/the-farmers-crisis/ ; 접속일: 2019.08.12
The following quote from 'Navdanya International' explains the belief about seed saving and organic farming as the solution to the farmers crisis well- "The way out of the epidemic of farmers suicides: LOWER COSTS : lower the costs of production to zero through natural, ecological, organic farming and saving, selecting, breeding, and exchanging indigenous open source seeds. INCREASE NET INCOMES: increase net incomes by saving on

여기서 반다나 시바는 인도의 목화 농사를 짓는 농민들 간에 높은 자살률을 언급하면서 빚의 악순환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종자 주권 즉 토종 씨앗을 지켜야 된다고 본다. 나바단야는 비아 캄페시나와 일치적인 식량 또는 종자주권에 관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전여농과 비교했을 때 더 강한 편이다. 한국의 경우에서 전에 본 듯이 이러한 담론은 실제 여성 농민들 삶에 운동적인 차원에서만 받아 드릴 수 밖에 없으며 활동가마저 생계 유지가 우수하다는 답을 했다. 왜냐하면 소득을 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전여농 농민여성들도 완전히 토종 씨앗으로만 농사하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거래 시스템의 존재는 이러한 거부감을 덜해주며 소득의 통로가 되어 이 농민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소득과 담론 사이에 배치된 여성농민

이번 부분에서 인도의 경우에 소득과 씨앗지키기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대상자 8 의 답이며 그는 나바단야 활동가로서 현재 벵골주(West Bengal), 오릿사주 (Orissa)와 마하라시트라주(Maharashtra)의 프로젝트 조정자 자리를 맡고 있다. 그에게 씨앗지키기에 관한 농민들의 반응을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답을 했다-

"It depends where we're going. For example, when we are in UP, UP is tough. Because UP has already been destroyed by the green revolution system. So there, the kind of conversation is very different. The market is

---

unnecessary expenses for toxics, including toxic seeds , and growing diverse , healthy, nutritious, chemical free crops for diverse markets. INCREASE CLIMATE AND MARKET RESILIENCE : In addition to high costs of chemical farming, chemical farming is making farmers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nd exposed to volatile money markets. Diversity creates resilience, both to an unpredictable climate and an exploitative market."

most involved there, they have all the cold storage units and the big land units. Their responses are not like the rest of the places. For example, if you go to West Bengal or Uttarakhand, it will be very different. They usually have their reasons. But in UP, if you tell them people are dying (or ask) 'do you notice that there are higher rates of diabetes and cancer?' They'll say yes, but they'll say 'let them die', you know. It's a very different response there. And many of the younger generations there have sold off the land many a times. And now they have got the money, the land rates are very high. They do single commodity farming- potato, sugarcane, wheat, rice for PDS. They lose money big time, there is a lot of debt. But those lands are high in richness and fertility, even though it is degrading now. It is true that they have the best canal systems running through the place. It is the Terai region. But it is difficult, you have to keep going back to the community. And there is a closeness to the metropolitan cities so their understanding for a need for trade is very different. They always see single commodity, diversity-based farming is no longer part of their system right now. It is such a big generation gap between those farmers who saved the seed and the farmers now. They'll reminisce but it's not received well. It's about money and it's also politicized a lot in UP" (대상자 8)

지역에 따라 농민들의 반응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대상자 8 의 활동 경험이다. 녹색혁명이 이루어진 우타르프라데시주 (Uttar Pradesh-UP), 펀자브주(Punjab), 비하르주 (Bihar) 등은 다른 지역들보다 나바단야 활동가들에게 접근하기 힘든 지역이라고 전했다. 이 지역에서 부채률 높은 것에도 불구하고 토종 씨앗을 선택하지 않다는 것이다. 모두 소득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량 농사만 하면서 갑자기 토종농사로 돌아가는 것이 UP 또는 다른 녹색혁면지역에서 생계에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느껴 확실한 공급 시스템이 없으면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량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에 정부 수매를 하는 PDS (Public Distribution System)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것을 선택하는 편이다. 인도 정부는 독립이후부터 빈곤퇴치, 빈곤층에게 기본·필수적인 식량 보장, 가격안정, 공급부족시 기본적인

식량 배급, 암시장 통제 등을 위해 공공분배시스템(PDS)을 도입을 했으나 현재 인도의 잉여 곡물 비축량이 세계 2 위로 (중국은 1 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1/5 의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농민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PDS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부정부패, 재정 부실, 낭비 등 때문에 빈곤층 또는 농민 모두 손해를 보는 것이다. [123] 그러므로 UP 주 농민들에게 토종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적 공급 시스템에 존재가 있어야 토종 농사를 택할 선택권이 생긴다. 이에 관해서 대상자 8 은 알려주었다-

"Some parts of UP are changing but that's also because monetary incentives are high. They are close to Delhi. So they can sell their produce-organic farming. Those who found their connection to the city usually are the ones to do so. Their final step has been found. So then, they are ok with it because they know they will make gains. Because you are talking about big farmers there. They are not small land-owning farmers. There are no small farmers in UP anymore. So those who have incentives will do organic farming." (대상자 8)

대상자 8 은 UP 주에서 소농은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하며 대량 농사하는 유지인 농민들은 유기농 농사를 선택해도 델리 도시에 네트워크가 있고 금전적 이득에 통로가 확실해야 그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 논문에서 인터뷰한 우타라칸드주의(Uttarakhand) 여성농민들과 약간의 차이를 지닌다. 앞으로도 볼 듯이 본 논문의 연구대상자인 여성 농민들도 소득이 씨앗 지키는 이유 중 하나이기는 하나 전통 식생활, 건강,환경 또는 공동체와 같은 이유들도 같이 존재했다. 인도 지역간에 이러한 차이점은 한국에서 본 것과 다르다. 한국에서는 여성농민들이 언급한 문제들은 경남 거창이든 강원도 횡성이든 비슷한

[123]New York Times (2012) "As Grain Piles Up, India's Poor Still Go Hungry" https://www.nytimes.com/2012/06/08/business/global/a-failed-food-system-in-india-prompts-an-intense-review.html; 접속일: 2018.08.12

것이었다. 한국 어디에서도 토종 씨앗 지키기를 받아드리는 사람들의 수가 적었다. 이는 한국에서 녹색혁명이 전체에서 이루어졌기에 생긴 결과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인도의 경우에 지역간 큰 차이점들은 볼 수 있어 본 논문에서 연구는 우타라칸드주에서 실시한 것은 다른 지역 보다 더 많은 여성들은 씨앗지키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타라칸드주 지역에서 만난 나바단야의 여성농민들은 한국에서 만난 전여농 여성들 비해 토종씨앗지키기에 보다 쉽게 받아드리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나바단야의 여성농민들은 왜 씨앗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물어본 결과 소득보다 다음 두 장에서 다룰 안전한 먹을거리, 전통 식생활, 여성/농민 연대와 공동체 등을 주로 많이 언급했다. 우타라칸드주는 아직 토종씨앗이 문화적으로 많이 받아 드려져 있는 것도 이유이며 우타라칸드주의 여성들은 나바단야 본사와 지리적인 가까움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토종 농사는 집안에 소득을 내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질문에 토종농사는 주로 본인 집에서 먹을 것을 위한 농사를 짓는데 남게 된다면 그것이 판매를 하긴 하되 주로 농사 외에 생산직 일을 하여 소득을 낸다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인도에서 현재 이촌향도형 인구이동이 일어나면서 남성 농민들과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이동하여 교육이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농촌의 여성화가 되어간다. [124] 특히 인터뷰한 여성들의 거주지역 우타라칸드주는 그러한 사회변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젊은 세대가 농촌을 떠나 농촌에서 남는 사람들도 아이들의 고육 또는 농업 외에 직업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인터뷰한 여성들 중에 대상자 11 와 대상자

[124] UN FAO <India at a glance> http://www.fao.org/india/fao-in-india/india-at-a-glance/en/ 접속일: 2019.08.13

12 는 농사를 집에서 먹을거리를 해결할 정도로 한다는 것으로 알려주었다.

대상자 11 은 지난 8-9 년동안 나바단야 회원으로 지냈으면 한달에 2 번 농사에 관한 수업을 참여하여 또는 나바단야가 추진한 마을 여성 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현재 집안에서 필요한 쌀 또는 채소를 농사하고 있다고 전하며 남는 것을 이웃에 판매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소득은 조금하게 낙농장과 도시에서 하는 공사 일로 채워진다. 대상자 11 의 딸과도 오래 얘기하면서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농사와 같은 3D 일보다 교육 또는 사무직 직장을 중요시했다는 것이었다. 딸은 컴퓨터 자격증과 뷰티와 헤어에 관한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딸은 또 많은 우타라칸드주의 젊은 세대처럼 농촌 외에 시집을 가서 잠깐 본가에 돌아와 있었던 것이었다. 본인이 농사일을 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대상자 11 의 답은 다음과 같다-

"농사는 조금 하고 또 다른 일을 해요. 저희 소도 몇 마리 있는데 우유 관한 일도 하고, 또 여기 밖에 도시에서 공사일도 하고요..그냥 이렇게 가정이 돌아가죠…마을에 저희는 다 서로를 알고 지냈으니까 혹시 네 농사에서 뭐가 남는다면 먼저 집으로 와서 다 받아가세요. 나바단야에는 양이 많으면 가지고 가는데 적다 보니까 동네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대상자 11)

대상자 12 는 대상자 11 과 같은 마을 주민이며 같이 여성단체를 다니는 여성농민이다. 그도 지난 5-6 년동안 나바단야의 '자이빅' (토종) 농사 수업을 한달에 2 번 다니며 여성농민단체에 활발이 활동하고 있다. 자이빅 농사는 나바단야 단체에서 추진하는 농사법이며 이는 토종 씨앗으로 하는 유기농 농사를 말한다. 대상자 12 도 대상자 11 과 같이 밭에서 한 집안이 먹을 양의 농사를 했었으나 나바단야에서 트레이닝 받은 다음에 농사가 늘렸다고 전했다. 나바단야 덕에 농사에서 얻는 소득이 올라갔고 다른 일을 줄였다고 전했다. 이는 대상자 12 의 다음 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토종(자이빅) 농사를 하는데 쌀 농사를 하고 있어요. 또 여러가지 채소도 키우고. 조금은 우리 식구가 먹을 것을 남기고 나머지는 판매를 해요. 원래 농사를 조금만 해서 씨를 사서 했는데 나바단야와 같이 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배우면서 토종 씨앗을 지켜서 농사를 하는데 원래보다 농사를 많이 하게 되고 우리 소득도 이제 전보다 잘 내는 것 같고 가사를 처리할 돈만큼은 버는 것 같애요…저는 집에서 일하고 또 우리 가족은 여기 마을 밖에 도시에서 공사일도 하는데 이제 농사일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원래 밖에서 거름 사고 그랬는데 이제 밖에서 사오는 농자재도 없어요.” (대상자 12)

대상자 12 는 나바단야와 트레이닝과 지역 유기농 판매자와 소비자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소득의 안전을 다른 생산직일 보다 농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으나 이직도 집안에서 생산직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으로 우타라칸드주의 여성 농민들은 나바단야의 회원이 되고 나서 농사 관한 소득이 올라갔으나 전체적으로 농사 외에 다른 일들도 계속 해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는 씨앗 지키는 여성농민들은 시장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c) 나바단야의 토종 농사 판매 네트워크 형성과 여성농민들의 소득

나바단야와 손 잡은 뒤 여성 농민들의 삶에서 한가지 크게 바뀐 것은 마을 여성단체에서 하는 창업 프로젝트이다. 나바단야의 마을 여성 단체에 관해서 다음 장에서 더 깊이 살펴볼 것이나 전여농의 ‘언니네텃밭’ 프로젝트와 비슷한 것이다. 언니네텃밭은 이미 전여농 중앙에서 꾸러미 시스템을 설치하고 여성들은 본인이 생산한 토종 농산물을 꾸러미에 놓는 방식이면 나바단야의 마을 여성단체 창엽 프로젝트는 여성들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다. 물론 전여농에서도 언니네텃밭만 써야 될 규정이 없다. 전여농에서도 거창의 경우에서 본 듯이 한실림, 아이스크림 가게, 커피 가게, 팥 전문점 등 여성농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토종 농산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이 가능하다. 나바단야의 마을 여성단체에서는 ‘극소 기금’ (microfunding)을 하여 이는 자체적으로 토종 농사 관련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이 되어 창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나바단야는 트레이닝, 소비자 네트워크 또는 지원까지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다. 대상자 8 은 이에 관해서 같이 일해본 한 여성단체와 그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했다-

"When we become part of a community group, our message is never that we are coming with money or that we are here to directly buy your product. That's never the first thing because if it's going to be based in money it's never going to be a true relationship. If there is an exchange of money, it's always about monetary gains…. For example, there are seed related projects. There is a group in Uttarakhand that wanted to become seed producers so we helped them in seed selection, after a season they sold lauki (bottle gourd) seeds that were just sitting there before, for thousand rupees. So basically, out of nothing they made something. So that's a step one. People selling seeds is a whole process by itself, to select and all. So even in the field- having a patch of land, all the women have to come together to collect seeds and have that much quantity to sell it- in substantial and good quality. We help with entire process… In the mahila samooh (마을 여성단체) the women do food processing, they make dal papdi, badis, etc. So they do things that their region is known for, their culture always had." (대상자 8)

활동가인 대상자 8 은 진정한 관계는 금전적 이득을 바탕을 해서 만들어지지 않다고 한다. 여성농민들은 씨앗지키기와 토종 농사를 선택하는 데에 소득 외에 더 많은 이유들을 언급했으나 소득이 중요하다는 것이 외에 언급된 여선농민 대상자들의 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 8 은 토종 씨앗을 가지고 한 가지에 사업을 기획하는 여성농민들의 이야기 둘려졌다. 이러한 창업 아이디어 본 논문에서 만난 회원 대상자 11 와 대상자 12 의 마을 여성 단체에서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아직 우리 마을에서 그런 일이 시작을 못했는데..아직 돈 더 모여야 되니까 그때까지 뭐할지 생각중이거든요. 그 중에 텃밭을 같이 빌리고 망고를 토종으로 농사를 하고 그것으로 피클 만드는 얘기도 있었고..어떤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직 생각중이죠. 나바단야와 얘기중인데

거기서도 말을 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도 봐야죠 우리 여성농민들이 얼마나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 되면 우리도 나바단야에게 수익에서 좀 나누어 주고…프로젝트는 나바단야 쪽에서 항상 판매하는 데에 도와줘요. 밖에 가서 판매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항상 여기 우릴 위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농산물을 여기서 배달하는 과정을 다 해주고 우리가 그쪽에 힘을 안써도 된다고. ” (대상자 12)

외에 대상자 12 가 말한 바와 같이 창업에서 소득과 원초 투자- 이러한 금전적 문제들이 여성농민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여성 농민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도 농산물 가공하는 창업으로 통해 소득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나바단야는 토종농산물의 시장적 가치를 높이 만들고 나바단야의 마을 여성 단체는 농민들에게 소득의 한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나바단야에서 추진하는 공급 시스템도 존재한다. 전에 언급한 듯 나바단야는 인도에서 가장 큰 공정거래와 유기농직거래 네트워크를 확립했다. 이는 나바단야 중앙에서 운영하는 “Navdanya Natural Products Private Limited’ 이다. 여성농민들 중에 직접 나바단야에게 판매한 식품은 델리 또는 뭄바이와 같은 대도시에서 나바단야 유기농 농산물 가게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또는 주문을 받기도 한다. 전여농과 나바단야의 이러한 중재의 역할은 부정부패가 흔한 PDS 시스템과 다르게 농민들에게 적정가격을 주는 시스템이다. 대상자 8 은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We also have a trade unit, called Navdanya Natural products private limited, that unit has four outlets in India, one in Mumbai and 3 in Delhi. We procure from our member farmers at a premium, for example, this place is mainly known for its *Dehraduni Basmati* rice which has reduced a lot but we have been trying to have it keep going for many years…so the procurement happens, we don’t take everything because the idea is that first they produce for themselves, and then the produce for local carts to sell at regional level… we also have Tuesday and Wednesday vegetable delivery system and grains too, coming from Meerut, Mahipal mostly. And yes, farmers market in Delhi. But the women’s groups here (in

Uttarakhand), most of them have carts or they sell locally at the Friday market. Different places have different systems." (대상자 8)

대상자 13 은 대상자 8 와 같이 나바단야 여성 활동가이며 그도 구즈라트주(Gujrat)에서 토종농사를 조달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바단야 델리 본사와 연결시켰다. 나바단야 지역마다 다른 공급 시스템이 존재하나 모두 나바단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지역 내에서 판매할 수 없는 양의 농산물은 주문 또는 도시 아울렛으로 판매된다. 대상자 8 은 나바단야도 전여농과 같은 꾸러미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했었으나 소비자쪽에서 원하는 채소와 곡물을 받고 싶어 하여 이는 농민들이 계절에 때라 만든 꾸러미를 받기보다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주문 받아서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정해졌다고 전했다. 여성농민들에게 나바단야의 커다란 유기농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것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됨으로써 토종 농사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럼으로 토종 씨앗은 농민들을 시장 원리에서 벗어나 식량주권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토종 농사도 한 가지의 상품이 되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상자 10,11,12 는 모두 시장에서 토종 유기농 식품의 수요가 있고 가격이 더 비싸다고 알려주었다.

d) 나바단야의 토종 농사 네트워크 외에 여성농민들의 소득 보장 방안

대상자 9 와 대상자 10 은 오래동안 나바단야 캠퍼스 안에 있는 토종 유기농 밭에서 일을 하며 나바단야는 지역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일거리와 월수를 주는 단체이기도 한다.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에 관해 질문한 결과 대상자 10 는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

"나바단야와 일을 하게 되어 돈을 잘 받고 우리 가족을 잘 보살피고 애들 키우는 데에 도움이 엄청나게 되었어요…나바단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었거든요. 일도 좋고 우리 전통 농사 방식을 지키는 것이니까... 저 딸 도 있는데 지금 23 살인데 이번 4 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대상자 10)

나바단야가 운영하는 농장을 위한 많은 농민들을 고용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는 마을 여성들에게 창업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마을을 떠나지 않고도 생계를 보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대상자 10 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알 수 있었다.

"나바단야에게 좀 특이한 토종 씨앗이 있으면 우리에게 와서 그 씨앗을 주거든요. 또는 농사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밖에 가서 일을 못할 때도 많으니까 사업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르쳐주거든요- 피클이나 파파돔 만들기 같은 것. 또 농사를 할 밭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토종 농사 외에 새로운 기술의 트레이닝을 진행해요."(대상자 10)

대상자 10 또는 대상자 9, 그리고 대상자 11 와 12 모두 토종 씨앗을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씨앗의 값이라고 언급했다. 대상자 12 은 본인에게 씨앗 지키기가 왜 중요한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

"나는 나의 씨앗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씨앗을 사오면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어떤지. 근데 모르면서도 돈 내서 사야 되는데 만약에 잘 안 나오면 큰 문제가 되죠. 씨앗이 비싸잖아요. 사람들 사 오면은 얼만지 물어볼 때, 정말 비싸다고 느꼈거든요." (대상자 12)

기업에서 만든 씨앗의 값은 인도에서 만난 모든 토종씨앗지키기 하는 여성농민들에게 부담이라고 전해졌다. UP 지역에서 갑자기 토종 씨앗 쓰는 것이 부담이 되는 만큼 원래 토종 씨앗을 쓰는 우타라칸드주에 기업의 씨앗을 쓰는 것이 불안정하고 또한 비싸게 느껴진다.

iii) 여성농민 소득 보장에 관한 나바단야와 전여농의 정책 지향

나바단야와 전여농은 토종 농사 판매 네트워크를 부여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여성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단체만의 농민 소득에 관한 정책 개선 요구가 계속된다. 전여농의 경우에 2019 년 8 월 확립 30 주년을 맞이하여 7 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

2) 중앙부터 지역까지 여성농민 전담부서 실현
3)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4) 씨앗에 대한 권리를 농민에게, 종자주권 실현
5) 농민에게 농지를, 농지법 개정
6) 생활과 농사에서 성평등 실현
7) 자주·민주·통일 세상 실현"[125]

위에 보다시피 전여농은 농민수당, 농산물 생산비 보장 등 종자주권 뿐만 아니라 농민의 현실적인 필요의 소득에 관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상자 6 은 설명해봤다-

"거창 뿐만 아닌데 기본 먹거리도 넘어서 소득 관련의 문제. 한국은 아직 그 '농사물최저가보상'이라는 게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이 농사를 치었을 때 내가 이거 제값을 받고 파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파, 마늘 값 확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천만원을 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것을 다 팔았을 때 적어도 천만원을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거 못 받고 천만원을 이하로 받을 수 밖에 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직도 한국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거창 뿐만 아니라 동등한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선이고 그게 방제하기 위해 그것 과 더불어서 기본소득. 나라에서 농민에 대한 기본 대우가 적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 소득이 이뤄진다면 내 기본적인 소득이 내기, 짓고 싶은 농사는 더 충실하게 지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양, 더 개량화된 씨앗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걸 시도를 해야 되는데 방향은 계속 소득화된 작물로 가요." (대상자 6)

대상자 6 은 정책의 개정 없이 농민은 농법을 토종 농사로 바꾸는 것이 힘들다며 먼저 농민수당으로 소득을 보장해야 농민에게 선택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여농은 이러한 정책 개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요구안, 집회 등으로 권장하고 있다. 현재 불안정적 농식품체제에서 농민들은 토종 씨앗 지키고 농사하는 대안 외에도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적인 변화를 권유하고 있다. 전여농 활동가 모두

[125] 농민신문 (2009) <전여농, 모든 농민에 수당을 '7 대 요구안' 발표>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FRM/314701/view 접속일: 2019.08.12

농민의 토종 씨앗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나 무엇보다 정부에서 농민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야 진정한 식량주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이 장의 시작에 담론 부분에서 본 듯이 나바단야는 농민들의 씨앗에 대한 권리가 보장이 생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다. 나바단야에게는 몬산토 등에 대한 농민들의 로얄티를 끊길 수 있다면 농민들이 더 이상 빚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생각을 따라 나바단야의 정책 개정 또는 정부에게 요구는 모두 인도의 먹거리 시장을 독점하려는 초국적 기업에 발길을 막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한 나바단야는 정부에 인도의 IPR 법에 강화를 요구하고 청원을 제출하고 인도에서 UPOV 를 대면할 독점적 법을(sui generis) 만들었을 때도 나바단야 창립자는 법안을 구성하는 데에 참여하였다. [126]

[126] Seed Freedom (Navdanya) (2019 년 4 월) The Seed Bill 2019 is a Threat to India's Seed Sovereignty and Farmers Rights. https://seedfreedom.info/the-seed-bill-2019-is-a-threat-to-indias-seed-sovereignty-and-farmers-rights/; 접속일: 2019.10.23

2. 씨앗 지키기와 여성농민들의 지위 향상 및 공동체 형성

i) 농촌 노동의 성분업

태곳적부터 여성 농민은 씨앗을 지켜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이 역사상 농촌 사회인 아시아에서 특히 중요한 작업이었다. 본 논문에서 실시한 인터뷰에서도 인도와 한국의 여성농민 대상자들 모두 씨앗을 지키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배운 것을 전달해주었다. 또한 전여농에서 처음 씨앗을 수집하는 단계에서 운동이 시작하기 도 전부터 씨앗을 지키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할머니들이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주었다. 한국의 거창 지역의 거주하는 여성 농민 대상자 7 과 나바단야 활동가 대상자 8 은 이의 이유 즉 한국과 인도의 농촌 노동의 성분업에 관해서 설명했다-

"가부장제가 되면서 남자들은 힘을 쓰고 기계를 사용하고…남자들은 서서 하는 것들은- 캐는 것 등 하면 옛날부터 여자가 앉아서 쪼그려서 하는 섬세한 일들은 했었어요. 여성 농민에게 기본인 거 같아요. 자식을 키우듯이 씨앗도 키우고 지키는 거죠. 그게 여성들이 밭에서 다품종 소령 생산에 주역이었어요. 남성은 힘을 써서 논에 가서 벼를 생산하는 게 주역이었다면. 여성들은 모든 종료의 식량을 만드는 주역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할머니들은 굉장히 씨앗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고 계세요. 몰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여성들이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지키는 사람이 여성 농민일 수 밖에 없고 할머니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상자 7)

"In any part of the world, as in India here in Doon, where agriculture is the main backbone of the society women play the most integral role in not only the society but also the household. From specially saving the seed, then also planning of the field, sometimes even sale and trade part is held by the women. That's when you realize how working with the women farmer

is fruitful and has a better impact because they just take it down, as they have an understanding of the bigger picture. Otherwise why would they want an organization like Navdanya to come into their lives and telling them what to do." (대상자 8)

농업-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위에 대상자들이 언급한 듯이 다양했으나 씨앗 지키는 일은 대부분 여성의 주역이었다. 대상자 7 의 말과 같이 고령화 여성들은 특히나 씨앗을 지키고 씨앗에 관한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인도에서도 여성은 남성 농민보다 씨앗 지키기 운동을 잘 받아준다. 씨앗을 지키는 일이 여성들과 그들의 가정의 식량안보, 생계 또는 문화와 기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60 년대 이후 인도와 한국에서 녹색 혁명이 되어 산업적 농업이 들어오고 산업화 동시에 이촌향도형 인구이동이 일어나면서 농촌 사회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농촌이 고령화 되고 여성화가 되었다. 인도에서는 젊은 세대와 남성이 도시로 향하여 농촌은 현재에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여성화 되고 있다.[127] 이러한 과정에서 농촌 공동체가 파괴되어간다는 것이다. 많은 사회 변화 가운데 여성농민들의 삶에서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는 기업의 잡종 씨앗으로 인해 여성농민들의 씨앗에 관한 특별 지식이 약화되었다. 이는 산업적 농업과 함께 온 씨앗들은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정부에서 보급되면서 여성들이 생계를 잃게 되며 농업 외에 다른 분야에 일을 구하게 된다. 한국 개발사에서 중요한 주제인 '여공'은 대부분 농촌 여성이었다. 씨앗과 씨앗의 지식이 소용없게 되며 여성농민은 현재도 소득 보장 부분에서 볼 듯이 생계 유지하는 데에 열악한 상황이 계속된다.

[127] FAO <India at a glance> (http://www.fao.org/india/fao-in-india/india-at-a-glance/en/) 접속일: 2019.9.20

ii) 여성농민의 지위 향상과 씨앗 지키기 운동

여성농민의 생계 손실로 인해 한국의 농촌 여성들은 식당/유흥업소 서빙, 행상, 성매매, 노동단지 근무 등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28] 인도에서도 농촌 여성들에게 식량 생산이 주역할이었기 때문에 식량 생산은 시장과 국가로부터 이루어지면서 남성은 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들도 공사, 성매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들의 중요한 전문 지식과 협상력은 잃게 된다.[129] 본 논문의 대상자들도 토종 농사 외에 다른 일을 같이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인도의 경우에는 대상자 11 와 대상자 12 는 토종 농사와 함께 낙농 또는 공사 일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대상자 9 와 대상자는 10 집에서 토종 농사와 같이 나바단야 캠퍼스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소득 보장' 부분에서 볼 듯이 토종 농사와 대량 농사를 같이 하는 경향이 보였다. 이와 함께 이 모든 인도와 한국의 여성들은 가사 노동 또는 돌봄 노동을 같이 한다는 것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여성은 토종 씨앗을 지키고 토종 농사를 시작함으로써 소속 단체의 판매 네트워크로 인해 소득을 내는 것도 인정해주었다. 이의 관련해서 '소득 보장' 부분에서 더 깊은 분석이 있으나 이번 부분에서 농민 여성들의 생계와 함께 소신된 농촌 여성의 지위에 관한 분석을 할 것이다. 경제적 가치를 놓친 농민 여성은 국가 정책과

---

[128] 정책 부장; 류미경; (2004) <신자우주의와 세계화와 여성농민의 삶> 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Report)

[129] Programme on Women'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WESCR) Report (2009) on Women and the Right to Livelihoods; World Social Forum Belem, Brazil;
Carine Pionetti . (2006).<Seed diversity in the drylands: women and farming in South India> *Gatekeeper* Vol. 126. Inter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제도적으로 빠졌고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는 존재이다. 씨앗 지키기운동은 여성농민의 가치와 지위를 향상하는 데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터뷰와 단체들의 정책 지향으로 통해 볼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 거창 주민 대상자 7 은 이의 관해서 설명해봤다-

"토종 씨앗도 중요하지만 전여농에서 같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는 농민수당이에요. 우리 나라가 고령화가 되면서 저출산- 고령 연금 주잖아요. 또 아이들을 위한 아동수당을 줘요. 지금 농촌에 고령화가 되면서 진짜 물러가는 거예요. 같이 농촌 마을이 없어지고 고령화가 되면서 임금수준 적은 데다가 돈이 안되니까 농촌에 안돌아오는 거에요. 악순환이 뭐가 있냐면 같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지만 농사만으로 한 가정을 돌볼 수 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여성농민들이 쉽게 말하면 요양사 아니면 공장 같은 데 일을 하러 다녀요. 그래서 잠잠히 농사를 해가면서 일을 하는 거에요. 생계의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농사 지어가지고는…이거 보세요 지금 양파가 폭락 되었잖아요. 이 물량은 우리 나라가 보존을 안해주는 거에요. 생산 값도 못 건지는 씨앗 값도 못 건지는 사태가 빈번하거든요. 또 어떤 문제냐면 우리 나라 양계 농장에 병이 왔다 그러면 다음날에 금방 수입을 해요. FTA 체결되면서 이런 것들은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에 관련되가지고 농민들도 기본수당을 달라. 농촌을 지키는. 우리도 식량주권을 정부에서 책임져 달라고 그래서 옛날에 농업정책이 뭐냐면 한 가구당 남편도 농사 짓고 여자도 농사 짓고 하 가구당 10 만원 주는 정책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가구당 수당 하면 안된다, 남편도 하고 저도 하고 공동경영체로 둘다 받고 다 줘야 된다. 그게 도움이 받으러 간다면 남편통장으로 돈 다 들어가요. 남자들은 그것을 인식을 못해요. 몇십년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70% 농촌을 지키고 있는 여성농민의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계속 전여농에서 우리 요청하고 있어요. " (대상자 7)

여기 대상자 7 은 다른 대상자들의 경험에서 본 것과 같이 여성 농민은 농사만으로 가정을 돌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농촌의 절반 이상은 여성인 거에도 불고하고 여성들의 생계와 지위가 보호 받지 못하면 대상자 7 은 농촌 마을조차 없어질 수 있는 미래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으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을 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연결된 방법이라고 보았다. 여성 농민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 수당 또는 공동경영체 시스템을 언급을 하고 있다. 전여농은 공평 거래 네트워크를 통해 토종 농사 판매를

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경영체와 같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여성의 농민으로서 가치를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오래동안 요구해와 마침내 불과 3 년전 2016 년 8 월에 성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 4 차(2016～2020 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 여성 농민을 농업 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인정해 직업적 지위가 부여되었다. 이때까지 농업 경영체 등록 하는 데에 공동경영주 개념 없어 남편은 '경영주'로, 아내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제도가 있었다. 여성 농민은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전여농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다. 공동경영주로 인정받으며 직불금 신청·등록을 할 수 있고 정부지원 사업이나 면세유 등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었다.[130] 즉 여성 농민도 자신이 지은 농사로 벌어오는 소득을 남편 허락없이 공동통장에서 접촉하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공동경영체로 바뀌더라도 사회적으로 아직 농촌에서 이것에 관한 인식은 바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상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알 수 있었다. 대상자 2 는 횡성 여성 농업인 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에 자주 참여를 하면서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저희 나라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농사나 이런 거는 남편한테 수입이 들어오게 되어있고 남편으로 이름이 나가고 여자보다는. 근데 저번에 또 교육을 했다시피 공동으로 이름을 등장하면 여자한테도 수입이 같이 갈 수 있더라고요. 교육이 필요한 거죠…작년에도 횡성 여성농민회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양성평등 교육을 해도 여자도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우리가 다 늙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한 50 대 후반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분들은 이제 우리 다 늙어서 이제 귀찮아 교육받는 것도 힘들어하고. 50 대 분들은 나도 내 자리를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현실과 부딪치면 또 쉽지 않아요, 남자들의 인식도 되게 중요하고 그 교육은 남자분들도 같이 받아야

[130] 연합뉴스. (2016 1 월) <농촌 남녀평등…여성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인정> https://www.yna.co.kr/view/AKR20160108196800030 접속일: 2019.9.20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근데 남자분들도 안받고 싶어 해요. 다 안다고…여자의 지위를 높이려면 남자도 같이 해야 돼요. 왜냐면 여자가 어디 나가서 교육을 듣고 오면 그거 향상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가서 이상한 짓 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상자 2)

이러한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킬 교육이 필요하다. 전여농의 성평등 교육은 지역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 여성들에게 그들의 가치와 그들을 보호할 법과 정책에 관해서 알려주는 강사단을 만들어서 모든 마을에 돌아가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줬다.

인도의 경우에 나바단야의 창립 회원인 반다나 시바는 농업에서 여성의 씨앗 지킴이 또는 식량 생산자로써 역할을 공식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나바단야 단체도 '여성이 지도한 성인지 운동' 으로 자신들을 설명한다. 나바단야에서 토종 지키기 운동과 '여성 씨앗 자치' ('Mahila Anna Swaraj')프로젝트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풀뿌리 운동들을 강화시켜 발판을 마련해주다. 나바단야에서 '여성 씨앗 자치' 매년 '할머니 대학교'를 열고 온 인도에서 오는 여성 멤버들이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는 자리가 된다. 우타라칸드주에 자리한 나바단야의 캠퍼스와 농장에서 '씨앗 학교' (힌디어로 "Bija Vidyapeeth")에서 '에코페미니즘'과 여성 및 생태학을 가르치는 수업이 개최되며 농민, 소비자와 학생 모두 참석한다. '소득 보장' 부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전여농과 나바단야에 어쩌면 제일 큰 차이는 정책적 지향이다. 전여농은 여성 농민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과 복지에 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모와 지정을 해왔으나 여성 농민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나바단야의 모든 노력은 종자주권과 식량주권과 직접적 관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나바단야에게는 여성 농민의 가치는 씨앗이 기업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없어졌다면 지위를 향상하는 것도 씨앗을 되찾으면서 지위를 되찾을 것이라고 큰 제도적 변화를 원하고 있다.[131]

배경에서 본 듯이 현실적으로 인도에서도 농업 분야의 노동자 50~65%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 농민들의 역할이 정책적으로 인정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공동 경영체 등록과 같이 여성 농민들도 토지를 구입할 수 있고 정부가 부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여성 농민 신분증을 인도에서 활동하는 다른 비정부 단체인 Oxfam India 에서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나바단야는 씨앗의 독립으로 통해 여성의 독립을 찾고 있다. 나바단야는 회원들을 각 마을에서 동원하여 여성의 단체를 구성하며 성평등과 여성농민의 농사일의 가치감 또는 토종 농사에 관해서 트레이닝을 실시하는데 나바단야 활동가인 대상자 8 의 말을 따르면 그 다음은 마을 여성 단체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운동을 벌인다. 다음 공동체 형성 부분에서 이것을 더 깊이 분석할 것이다. 그럼으로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을 하는 여성 농민들은 전여농과 나바단야로 통해 여성으로써 권리를 알아가며 지위 향상을 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

[131] 예를 들어 나바단야 인터내셔널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선언한 진정의 첫 부분이다- (Ecofeminism/□□□□□ : :Liberation of both nature and women from violence and exploitation): “We women, in all our vibrant and fabulous diversity, have witnessed the increasing aggression against the human spirit, human mind and human body and the continued invasion of and assault upon the Earth and all her diverse species. And we are enraged. We demand of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individual men who share our rage, that they address the crisis that has been caused by the creation of mono cultures and the reduction, enclosure, and extinction of biological and cultural diversity. We insist that those who would address the crisis listen to and take leadership from women, indigenous peoples, farmers, and all who have raised these concerns at the local level. We ask them to heed those whose wisdom, stewardship, knowledge and commitment has already been demonstrated by the preservation of the diversity we celebrate today.” http://www.navdanya.org/site/statement-of-concern. 접속일: 2019.10.09

iii) 여성농민의 공동체 형성과 씨앗 지키기 운동

한국과 인도에서 이촌향도형 이동이 일어나면서 남성과 젊은 세대는 계속적으로 농촌과 농업을 떠나며 대상자 7 의 말과 같이 마을이 없어지는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농촌에 남은 여성농민들이 사회적으로 소외가 된다. 그러나 씨앗을 지키는 과정에서 나바단야와 전여농의 여성들은 씨앗을 보관하는 뿐만 아니라 씨앗을 나누어 쓰여 '씨앗 도서관/은행'을 만들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앞 부분에서 본 듯이 복지 관한 요청도 하여, 없어진 마을 공동체를 되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다.

인도의 나바단야 회원 여성 농민들은 '마을 여성 단체' (힌디어로 "Mahila Samooh")에서 활동하며 혼자 고독한 노동에 익숙한 삶에서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씨앗을 나누어 쓰고, 토종 농사에 대한 지식을 교차하고, 토종 농사 창업 프로젝트를 같이 계획하며 소득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여성들의 공동체이다. 대상자 8 은 우타라칸드주의 현재 농촌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에 대한 알려준다-

"It's the culture, it's the nature they exist with is that is important to them…but they also have to think in terms of how their future generations are going to progress…even people here in Doon valley are like 'yes we have to educate our children, need to teach them computer science', things like that. In the newer generations, there is a lot of migration happening. The villages in the hills are emptying out, the younger generation does not see the incentives in farming, you know it's also how it perceived, that it is the poor man's job."[132] (대상자 8)

대상자 8 이 언급한 이 비어가는 'Doon' 산에서 라딴뿌르 마을이 위치한다. 이 마을에 거주하는 여성 농민 대상자 10 의 자식들도 교육을

[132] "Doon"- 우타라칸드주의 Dehradun 지역의 줄임말

받아 농촌을 떠난 상태이다. 남편은 농촌 외에 공사 일도 하고 낙농을 하며 대상자 10 은 농사를 하고 있다. 그도 마을 여성 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마을 사람 간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여성 농민은 농사를 혼자 할 때 대하는 문제들 또는 새로운 기술을 발달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내 아이들은 모두 밖에 살고 있어요. 10 일에 한번쯤 오는데 그래서 저 혼자 일을 하죠. 어느 날 나바단야에서 우리 마을에 왔어요. 마을에서 여성 단체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속했죠. 최근에 또 우리 같이 나바단야 갔었을 때 이 계절에 어떤 렌틸 콩을 심을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농사를 할 수 있는지..또는 만약에 소 한 마리도 집에 없으면 어떻게 거름을 만들 수 있는지…그리고 물론 좋은 씨앗도 나누어 주죠. 좋은 것을 배워서 요새 우리 농사도 잘 되고 있어요." (대상자 10)

토종 농사는 한국의 대상자들도 말한 것처럼 따로 배우지 않고 실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위에 대상자 10 의 언급한 것은 마을 여성 단체는 그런 배움에 공간이 되었다. 산업적 농사가 농민들의 토종 지식을 대신하면서 농민들도 토종 농사를 하는 법을 점차 잊어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다. '문화적 기억, 건강과 환경' 부분에서 이에 관해서 더 깊은 분석이 있을 것이다.

자식들 모두 농촌을 떠났고 남편도 공사 일에 바쁘며 여성 농민은 혼자서 밭에서 할 일이 많다. 이럴 때 여성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구성원들의 밭에 다같이 일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토종 농사에는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김매기를 손으로 하는데 혼자 하기에 힘든 작업이다. 이런 경우에 마을 단체의 활동을 대상자 8 은 설명해봤다-

"This is paddy for example, organic farming is a lot of effort. Ordinarily for weeding, if you just spray the dilution which is readymade, that's all. The whole promotion of weedicide is also that women can do this, its pro-women, that it's a feminist option, if you see the propaganda for glyphosate, it is said to be for women as they work in the field and they have to do the weeding so you should spray glyphosate and weedicide so that women's time at labor is saved and nutrition is increased. The kind of lies they say…

At the Mahila Anna Swaraj, the areas that they have is a little unit mostly. If supposing they have to do weeding, the village's MAS group can collectively start weeding one house to the next house. The twelve women will spend a day on one's field and next someone else's. Its community-based." (대상자 8)

김매기는 평소에 여성들이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농자재 만드는 기업들에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특히 몬산토의 '라운드업'과 같은 제초제는 여성-중심적이다는 슬로건 아래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실제는 라운드업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지 않고 라운드업의 사용으로 인해 암에 시달렸다는 세계 곳곳의 농민들의 몇 천건 소송이 몬산토 제기되었다. 그럼으로 토종 농사에서 김매기를 옛날식으로 하는 것인데 공동체가 다소 파괴된 농촌에서 나바단야의 여성 마을 단체는 대신 돌아가면서 모든 여성들의 밭에서 김을 매는 작업을 같이 한다. 또는 혹시 어느 집안에 환자가 있거나 여성 농민 자신이 아파지면 밭의 일을 대신 해주는 것도 단체가 같이 하는 활동 중 하나이다. 다음 대상자 10 은 라딴뿌르의 마을 여성 단체의 활동을 설명한다-

"저희 마을 여성단체는요, 15-20 여성들이 같이 하는데, 우리 만날 때는 같이 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논의하고, 또는 우리 중에 가족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우리가 도와주고 그래요…만약에 누구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농사일이 우리가 대신하거나 도와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매월 가사를 처리하면서 모은 돈을 단체에 지불하고 그 것을 집안에 문제가 있는 언니에게 주거든요. 또 다음에 그분이 천천히 단체로 그것을 갚아요. 어떨 때 매월 단체에서 모인 돈이 많아지면 그것으로 조금하게 창업프로젝트도 하고. " (대상자 10)

나바단야의 마을 여성 단체에는 자조집단으로써 '소액금융'(microfunding)을 하며 돈을 모여 구성원 중 문제가 생길 때 사채업자들에게 갈 필요 없이 도움을 마을 여성 공동체에게 요청 할 수가 있다.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 농민으로 제도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농민 위주의 은행 대출이나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에 있는

본인이 벌어온 돈 또는 정부의 농민 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액금융' 대출을 마을 여성 단체에서 받을 수 있다.

"여성단체는 돈을 같이 모어요. 우리 집안에 형편이 나빠질 때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니면 농사 시작할 때도 필요하고 또는 아이들을 위한 돈이 필요하면 거기서 빌려줘요... 우리는 여성 단체에서 서로를 무조건 도와줘요. 그게 돈이든 농사일에 도움이든 다른 개인적인 문제라도 얘기하면 해결하려고 해요" (대상자 11)

이 외에 마을 여성 단체는 여성주의 활동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우타라칸드주에서 벌어진 음주 반대 운동에서 라딴뿌르 여성 마을 단체도 참여하여 지역의 모든 알코올 파는 가게들을 문 닫게 했다. 이의 이유는 어머니가 직접 참여하신 대상자 12 은 설명해봤다-

"최근 가네시뿌르 마을 또는 라딴뿌르 마을에서 둘다 가르왈리[133] 마을인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정말 없어서 일공을 하는데 (day wage), 만약에 하루에 200 루피를 번다면 그 중에 100 루피를 술을 사게 돼요. 아내가 어떻게 집안을 돌보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운동을 했죠. 술 반대하고. 적년인가 모두 술집을 문을 닫게 했어요. 데라둔에도 운동을 하고. 여자들의 술반대운동. 우리 엄마도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우리 언니들과 연대가 있으니까. 도와야죠. 술집을 다 문 닫았어요. 농민 여성들이었죠 모두. 여성들이 남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을 해요. " (대상자 12)

이러한 여성 연대를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은 마을 단체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토종 씨앗을 나누고 토종 농사에 관해서 지식 교차하는 이 공간은 없어지는 농촌마을에 필요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며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여성 농민은 다시 잊어진 씨앗을 찾고 잊어진 사회 관계들을 여성 간에 연대로 통해서 되찾고 있다.

한국 전여농의 경우에 지역마다 자리한 여성농민회센터는 토종 씨앗 지키기를 위한 씨앗 도서관을 운영하며 그 동시에 안전한 먹을거리, 성평등 등의 교육 프로젝트 또는 여성 농민들의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센터도 운영된다. 이 공간은 한국의 여성화 또는 고령화된 농촌에서

[133] "Garhwali": 우타라칸드 지역의 주 언어 중 하나.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Garhwali'라고 부른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횡성에서 토종 씨앗을 지키는 여성들은 만나서 같이 공동 채종포 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토종 씨앗 지키기를 함으로써 고령화 여성과 젊은 여성 농민들은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에서 씨앗도 지식도 전수받으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은 전여농 대상자들의 인터뷰에서 잘 나타났다. 처음에 어떻게 전여농과 씨앗 지키는 일에 대한 알게 되었는지의 질문에 대상자들은 '동네 언니가 전여농 교육에 대려 갔다'는 답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대상자 1 은 대학 시절 때 학생 운동을 하며 시집을 횡성으로 와서 한 달 안에 동네 언니들과 어울러서 전여농 활동을 1992 년에 시작했다고 한다-

"1992 년에 결혼해서 남편 따라 횡성 왔는데 오자마자 언니들이 찾아와서 여성농민회 하자고 손잡고 교육 글려갔어요. 초기 활동가 교육이었어요. 3 박 4 일." (대상자 1)

여성간 친구/언니-동생 관계가 전여농 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알 수 있다. 횡성 농민회센터와 거창 '아주마 날다' 카페라는 전여농 여성들이 만나고 또는 회의하는 공간에 머무는 시간 내내 농민 여성들은 자유롭게 개인적인 이야기 또는 토종 농사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대상자 4 도 대상자 1 의 영향으로 토종 씨앗 지키기 또는 언니네텃밭 사업 그리고 전여농 전반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대상자 7 의 이야기도 비슷하다. 그는 결혼 후에 거창에 내려와 농촌에 또래 여성의 없음으로 먹을거리 안전과 토종 농사 관해서 대화를 나누는 또래 여성들의 동아리에 '아무것도 모른 채' 가입했다가 전여농 또는 이제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 농민들은 긴 노동 시간 끝에 집에서 가사 노동과 아이를 혼자 돌보는데 여성농민회센터에 위치하는 돌봄 센터와 유치원은 농민 여성들의 돌봄 노동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황성 여성농민회센터 건물에서도 이런 유치원이 있으면 토종 씨앗 지키는 여성들의 아이

대부분도 여기서 유치원을 다녔다고 알려주었다. 대상자 1 의 경험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농촌에 기반이 없잖아요…이 여성농업인세터가 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었어요. 어린이집도 있고 공부방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게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곳, 여기 교육문화사업도 많이 하니까, 여기 2002 년도 여성농업인센터 사업 있는 것 공모해서 사업체로 성장되고 전여농센터로 운영되고 있어요." (대상자 1)

이 곳에서 아이들의 도서관 안에 씨앗도서관도 위치하고 있다. 그만큼 씨앗 지키기 운동은 여성 농민들의 삶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농촌에 보기 힘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이 곳에서 여성 농민들은 씨앗을 나누어 받고 언니네텃밭 사업을 운영하고 농업 또는 농민 여성, GMO 등에 관한 정책을 토론한다. 토종 씨앗을 수집하면서 많은 문을 두드려보며 여성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전여농의 '언니'들의 네트워크가 풍부해진다. 많은 대상자들은 '할머니' 여성 농민들을 만나면서 전수받은 씨앗에 관한 얘기를 하며 그 중에 대상자 6 에게도 이야기가 있었다-

"지난 해에 아는 할머니가 아흔 살이 되셨는데 지금은 93 세시고 생활 속에 모든 것이 토종 씨앗으로 이루어져요. 혼자 드실 것을 하고 계신데 이 할머니가 아주 젊었을 때 30 대 때 1960 년대 되기 전에 호박 씨 하나를 이웃에서 얻은 거에요. 이 이웃이 다른 친정에서 받았고 이거 좀 심어봐 맛있단다 하고 그 씨앗 하나를 가지고 60 년 재배를 하신 거에요. 그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든 이 책 여기서 나와 있을 거지만 호박을 왜 바꾸지 않고 한 품종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지 그랬더니 무엇을 해도 맛있다 이 호박이 그러시는 거에요. 가정을 지키는 듯이 지킨 거라고. 저희가 이제 그 씨앗을 할머니에게 받았죠." (대상자 6)

이촌향도형 이동이 일어나기 전에 존재했던 사회관계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1950 년대에는 아직 씨앗은 시장에서 팔지 않고 이웃끼리 주고받고 농사가 이루어졌다. 이웃 관계가 중요한 것이었다. 이 할머니가 이웃에서 받은 호박 씨앗이 60 년만에 또 다른 이웃에게 전수되었다. 그 60 년동안 바뀐 농업 방식 또는 파괴된 이웃 관계와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은 대상자 4 의 현재에 농촌 이웃 사이에 생긴 거리감에 대한 우려했다-

"이제 다들 사다 쓰다 보니까 거기 이웃집에 있어도 달란 소리 안하고. 지금말하자면 서로 친하게 지내서 했다면 지금 서로가 남 같은 거지. 예전 같으면 도와주고 모아 놓았던 거 서로 주는 거죠. 이제 우리 나라도 씨앗이 없어지니까" (대상자 4)

전여농의 씨앗 지키기 운동은 옛날의 그 이웃관계를 되살리고 씨앗을 동시 지키는 것이다. 할머니에서 전수 받는 씨앗 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에서 전수받는 지식이 씨앗 지키는 여성 농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문화적 지역, 건강과 환경'부분에서 깊게 볼 것이다.

현재 씨앗 지키는 여성들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공동체 공간에서 '지역 행복 바우처', 심리 상담, 성평등 등에 관한 정부 복지, 혜택, 정책들에 대한 논의 하고 하나같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다. 대상자 7 은 이중에 '행복 바우처'에 관해서 설명한다-

"여성농민은 정책적으로 같이 요구하는 것이 농산물 가격 보장, 직불제, 토종 씨앗 밭작물 등 있는데 또 우리 여성농민들을 위한 지역마다 문화적 바우처를 받는 것에 대해 요구했어요…경남은 행복바우처 카드를 받거든요. 여성농민들은 받을 수 있는 이 카드는 금액이 사실 적어요, 근데 금액을 떠나서 그것을 가지고 영화를 같이 본다거나 머리이나 마사지 한번 받는다거나 이런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거에요. 농촌은 이제 거리도 멀고 농사만 짓고 있으니까 문화적 혜택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는데 그렇지 못한 여성 농민들도 많거든요. 그 분들한테 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인정해 달라 해가지고 바우처를 받았어요. 운동을 해서." (대상자 7)

대상자 7 은 설명한 듯이 여성농민들에게 주어지는 이 지역 행복 바우처는 문화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여성농민들에게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는 전여농에서 운동한 결과로 주어진 혜택이다.횡성에서 여성농민회 센터 와 거창에서 '아줌마 날다' 카페는 씨앗 지키기 하는 여성농민들에게 쉼터에 공간이 되기도 한다. '아줌마 날다' 카페에 이름과 같이 여성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공간이며 또는 그들이 생산한 식품도

판매가 되는 공간이다. 여기서 작은 씨앗 도서관도 있으며 타로와 같은 문화적 갓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다. 이 곳은 인도의 마을 공동체의 사업과 같은 언니네텃밭 상업 또는 다른 판매 네트워크를 진행할 중심지이기도 한다.

언니네텃밭 사업은 이름과 같이 친한 '개인적 관계'에 바탕으로 하는 거래를 추구한다. 여성 농민들에게 소득을 낼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도시 여성들에게 이 '언니'들의 친한 (intimate) 네트워크의 속할 기회를 주며 생산자-소비자 관계에서 벗어나 언니-동생 관계로 통해 더 공평한 거래를 추구한다. 여성들의 공동체를 형성시킨다. 본 논문은 이러한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으로 형성된 이 공동체가 여성 농민들에게 씨앗 지키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는 씨앗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공동체, 토종 농사 지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공동체, 농산물을 공평하게 판매할 수 있는 공동체, 농민의 권리를 하나같이 요청을 할 수 있는 공동체 또는 개인적으로 친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3. 씨앗 지키기와 여성농민들의 문화적 기억, 건강과 환경

i) 씨앗 지키기와 문화적 기억

에스노이콜로지 인류학자 버지니아 나자레아는 <Cultural Memory and Biodiversity> (2006) 책에서 평소에 씨앗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생식질만 기록하여 씨앗을 둘러싼 문화적 정보는 일반적으로 빠지는 경향이 유전자를 그의 맥락에서 빼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나자레아는 유전자 은행과 '기역 은행'에 유사성을 주장하며 문화적 기억의 기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while genetic accessions are systematically documented *(in germplasm collection),* very little cultural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e collection data...this indicates a pressing need for the systematic documentation- or memory banking- of indigenous practices of local farmers associated with traditional varieties of staple and supplementary crops. Without this, the genetic information preserved in gene banks will be decontextualized in the sense that the cultural and ecological forces that shaped their selection will be largely ignored...In view of the mutually reinforcing trajectories involving cultural and genetic variability (or conversely, erosion) certain parallels can be drawn between a gene bank and a memory bank."[134]

농민은 대대손손 전수한 씨앗은 흙에 토착화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문화적 식생활에도 토착화된 것임으로 농민은 문화적 또는 환경 등을 고려해 양질의 종자를 선택해 왔다. 산업적 농업의 진입과 종자의 시장화로 인해 씨앗은 더 이상 그의 맥락에서 벗어나 씨앗과 함께 토종 지식도 점차 없어지고 있다. 전여농과 나바단야와 같은 농민 단체에서 진행하는 씨앗 지키기 운동은 과학적으로 씨앗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과 함께 존재하는 문화적 배경과 지식도 함께 기록해 나가는 것이다.

---

[134] 5-6 쪽 Nazarea, Virginia D. (2006) *Cultural Memory and Biodiversity*. University of Arizona Press.

잉글하트의 연구에서 본 듯 근대화 과정 뒤에도 문화의 계속된 끈기가 있으며[135] 나자레아의 연구에서 문화의 끈기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지지한다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꾸로 생각한다면 생물대양성의 보존은 토착 문화를 지키는 데에도 유용하다는 것이다. 토종 씨앗을 없앤 세력들은 토착 문화를 없앤 것과 같으며 이번 부분에서 볼 듯이 토종 씨앗을 지키는 것이 토착 문화를 지키는 것이기도 한다.

인도와 한국에서 만난 토종 씨앗을 지키는 대상자들은 토종 씨앗을 왜 지키는지에 질문의 답으로 많이 언급한 것은 문화와 식생활 또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지식을 지키고 싶은 것이었다. 이 지식은 토종 씨앗을 받는 법부터, 문화적 중요성, 토종 농사를 하는 기술 또는 토종 농산물을 요리하는 법까지 포함한다.

a) 전여농의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과 문화적 기억

배경에서 본 듯이 아시아는 90 년대부터 서양 GM 종자 생산하는 대국적 기업과 중국 잡종 (f1) 쌀 씨앗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대상이 되었으며 종자 시장이 독점되고 있다. 이 씨앗들을 추진하는 정부와 기업들은 아시아의 씨앗 관한 법을 개정하려고 힘 써왔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법 또는 국제신품종보호동맹 (UPOV)이다. 배경에서 본 듯 UPOV 는 '신품종' 개발된 씨앗에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제동맹이며 한국은 이에 2012 년에 가입하게 되었다. 당시 전여농 또는 다른 농민 단체에서 반발을 컸으며 앞으로 대상자 1 은 설명한 바와 같다-

"식물신품정국제조약에 (UPOV) 2012 년도에 발표 되었잖아요… 이 조약이 발효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 준비를 못했어. 우리도 어느 집의 씨가 좋다 그러면 갖다가 심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등록 된

[135] 20 쪽. Inglehart, Ronald, and Wayne E. Baker. (2000)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5, no. 1, pp. 19–51. JSTOR, www.jstor.org/stable/2657288.

씨앗이면 그것을 다 불법적인 행위가 되는데 그것을 사실 사전에 교육들이 없었던 거였고 그 국제조약 발휘되고 여성농민에게는 이거는 대대로 내려오던 (옥수수 보여주면서) 토종 옥수수인데 누구한테 이에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수천년인지 수백년인지 가져온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어느 기업이 가져가서 이거를 종자 개량을 해서 품종 등록을 딱 해버리면 이 씨앗이 원래 있던 것인데도 쓰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여성농민회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해야지 생각했어요. 현재는 여성농민회는 토종씨앗지키기를 운동을 한다는 것만 있지 아무 것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적재산권이란 게 없어서 그때 여성농민회에서 했던 일이 뭐든 것을 기록하자. 기록으로 남기자, 그래서 생산이록- '횡성 지역에서 누가누가 심던 옥수수다; 한 몇년 된거다' 이런 것 다 데이타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조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ISP 기록물로 남기는데 저작권 출판물의 의한 출판 권리를 할 수 있게끔 책들이 내자고 그랬어요. 그게 가장 우리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몇몇 지역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출판을 했어요. 우리도 그랬고 제주도도 그런 작업을 하고..여성농민들이 씨앗의 권리를 주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만 쓴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원래 농민들에게 권리이기 때문에 공유한 개념의 권리…" (대상자 1)

UPOV 는 농민들의 씨앗에게 권리 또는 씨앗을 관한 지식에 권리를 위반하는 조약으로 받아진다. 씨앗이라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며 어떤 개인이나 기업에게 그것에 권리가 있는 것이 않기 때문이다. 지식 재산권은 여성 농민들의 토착 지식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은 씨앗에 지식을 지키는 운동이기도 한다. 위에 대상자 1 이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에 불공평한 특허법을 반대하고 토착 지식을 지키기 위한 할머니들의 지식을 다음 세대로 이어 가게끔 전수받는 것 뿐만 아니라 농민의 지식을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목표이다. 그러기 위한 전여농은 할머니의 지식 즉 문화적 기억을 담은 책을 출판하고 기업의 지식 재산권을 토착 지식으로 맞서고 있다.

전여농이 씨앗과 함께 수집하고 있는 문화적 기억은 토종 씨앗에 관한 농사법, 한반도의 토종 먹을거리의 레시피 또는 그 씨앗의 문화적 중요성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기억은 지난 50 년동안의 산업화, 횡성의 경우에는 <횡성에서 살아온 씨앗들>라는 책을

출판되었으며 강원도 횡성군에서 농사지으며 살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 서른 한 명이 평생 지켜 온 씨앗과 그 사연을 기록한 책이다. 책에서는 달래, 갓끈동부, 쥐이빨옥수수, 찰옥수수, 돼지(자주)감자, 울타리콩, 토종오이, 지레호박, 메밀, 횡성채포집 딸기 등 31 가지 작물 농사와 채종법에 대해 보유자의 설명과 사진을 실었다.[136] 예를 들어, 63 세 배영희 '할머니' 여성 농민의 이야기는 그 중에 하나이다. 이 분이 어렸을 때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돼지감자'란 토종 품종을 한 곳에서 100 년넘게 대대손손 받아온 것을 알려주었다. 이 감자는 흔히 보급되는 하얀 수미 감자와 다르게 단단하며 맛이 다르다고 했다. 옥수수가 귀한 시절 60 년대에는 친정 11 남매와 바닥에 앉아서 감자를 까고 모양 때문에 웃어버리는 기억이 나며 이 감자로 어머니께서 하시던 요리를 그대로 하고 있다고 전달하며 요리 또는 채종과 농사 법을 알려주었다.[137]

거창에서도 최근에 횡성과 같이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과 관련해서 책을 출판했으며 제목은 '토종씨앗 거창에서 만나다'이며 책 표지에서는 책을 "신원에서 만난 씨앗들은 그 자체로 지역의 역사"라고 설명했다.[138] 황성과 마찬가지로 토종 씨앗 수집활동에서 만난 할머니들의 인터뷰와 함께 사진이 실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씨앗 및 그에 대한 지식이 실려 있다. '토종 밥상' 부분에서 토종 먹을거리로 만든 거의 멸종된 요리들의 레시피를 토종 씨앗을 지키는 할머니들에게 또는 토착 요리를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물어봐 거창의 토착 요리들을 소개한 바가 있다. 거창과 횡성 또는 전여농에서 실리는 모든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에 관한 책들은

---

[136] 알라딘 서점.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10432910 접속일: 2019.08.20

[137] 56 쪽. 오숙민. 한영미 (2007) <토종 농사 이야기 수첩_강원도 횡성-횡성에서 살아온 토종 씨앗들>도서출판 시금치

[138] 거창군여성농민회 토종살림 (2018) <토장 씨앗, 거창에서 만나다>

지역마다 발견된 토종씨앗과 그것을 수유하고 있는 농민의 이름, 여사, 문화적 특성 등 표로 나타내어 기록되어 있다.

본 논문의 대상자들도 개인적으로 씨앗을 지키기는 것을 시작한 것도 이러한 지식과 문화를 보존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상자 4 에게도 문화적 기억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터뷰로 통해 확인했다. 그는 '소량 농사' 토종농사를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었으나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콩을 다시 심고 싶어 다시 시작했다고 답을 했다. 다음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 어머니 따라서 소량 농사를 해보니까 힘이 드는 거에요. 우리 집에 친정이 모두 대량이거든요...어머니 가져 있던 거…참깨 같은 거 잘 먹으니까 이런 것만 빼고 녹도, 토종 녹두를 진짜 그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콩도-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해요- 제일 먼저 앴앤 게 콩인데 대신 대량 콩은 심는데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콩을 안심는 거야 (웃음). 그러고 싹 진짜 다 없앴는데 어느 날 (대상자 1) 언니가 찾아와서 옛날에 가졌던 웅다리콩을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콩, 내가 다 없앤 것을 가져왔어요..심어 달라고. (대상자 1) 언니 말을 안들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한테 주었어요. 어머니가 심으면 밥해 드릴게요 했더니 저희 어머니 그때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하면서 재미있고 사실 농사도 많이 줄였어요. 제가 대량 농사 말고는 조금 먹을 것 위주로 토종을 좀 많이 심는데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토종을 많이 왜 안심고 왜 저희가 사서 하는 게 씨 받기가 정말…어렸을 때 보고 배워서 하면은 쉬운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언제 수확을 해야 하는지. 수확하러 가면 이미 싹이 나와 있고 그러니깐 이건 집에서 안배운 거라서 어려워요" (대상자 4)

대상자 4 의 위 답에서 띄는 것이 대상자가 씨앗 지키기를 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수확물에서 씨앗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의 이유는 본인 친정 집에서 대량 농사만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씨앗을 받는 지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지식은 전여농 언니들부터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다시 받는 것이며 공동체의 문화적 기역을 되살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자 6 도 어렸을 때와 지금의 농촌 '문화의 차이'를 토종 씨앗을 지키게 된 데 제일 큰 원이었다고 밝혔다. 오렸을 때 본 농촌의 나누는 문화- 그것이 씨앗이든 먹을거리든 대상자 6 은 그러한

문화 제도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답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화에 대한 차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씨앗을 사본 적이 없는 거죠. 엄마랑 농사를 지었을 때 늘 우리가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자급자족이 기본이었죠. 어느 순간 우리가 자급을 못하고 자본의 위해서 이렇게 다 사야 되는 사회적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충돌이 오는 거죠. 내가 먹는 게 뭐지 모르겠더라구요. 어디서 와서, 이 먹거리가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모르고. 끊임없이 내가 이것을 먹는 게 아니라 자본을 나를 먹는 느낌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소비를 하는 소비자로서 늘 그것을 접할 수 밖에 없는데 내가 만약에 생산자가 된다면 내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에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남에게도 먹게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있어요. 내가 좋은 것은 나만 먹는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나눠야 되겠다는 욕심. 일반 소비자들은 그것을 모르거든요. 저도 몰랐으니까. 조금 도 토종씨앗 운동을 하면서 그것을 확산 시켜야 할 생각이 있어요." (대상자 6)

대상자 6 애게는 토착 농산물을 그리워하는 것이었다면 대상자 5 는 씨앗을 지키는 이유 중 하나를 '자존심'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식민지 시기 또는 전쟁의 역사를 거쳐온 씨앗들은 대상자 5 가 '자존심'과 비교하면서 그 문화적 기억과 역사를 담긴 씨앗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는 쉽게 표현하면 자존심이에요. 우리 거 지킨다는 거는. 내가 교육 받으면서 충격적인 게 IMF 이후에 한국 종자 회사가 다 넘어갔어요 다국적 회사들에게…우리 거 라는 게 없는 거죠. 다 사서 와야 되고 의존해야 되고 나를 지킬 수 없는. 그래서 그게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 역사 공부하다 보면 옛날 선교사들이 우리 나라 와 갖고 콩 종료 다 가져가 미국에 갔는데 우리 나라 다시 와 갖고 이제 우리에게 파는 거에요. 밀도 우리 안쟁뱅이 밀을 가져가서 자기네가 유전자를 바꾸고 개량을 해서 다시 우리 나라로 역수출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주권은 침해 당하는 거죠…우리의 자존심인 것 같아요. 우리 지켜내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는 하나도 안남겠다 싶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아이고, 3 년만 빨리 오지.' '한 해만 빨리 오지' 다 없어지는 상태에요. 어른들이 지키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받아서 심을 생각을 안하고 배운 세대들은 배웠다는 지식이 좋은 게 아니라 정책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실천하다 보니까 그 지식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에요. 그거 모르고 있는데 그런 거를 알게 되면서 이 일이 나를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에요."(대상자 5)

위와 같이 대상자 5 는 씨앗을 지키는 것이 자존심 또는 '나'를 지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씨앗이라는 것이 농민의 정체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잘 들어났다. 토종 지식을 수집한 책 출판과 함께 전여농은 여러가지 토종 씨앗/먹을거리 행사 참여와 언니네텃밭 사업 등으로도 이 문화적 기억을 도시에 거주하는 소지바들까지 전수하고 있다. 씨앗과 같이 없어지는 농촌 문화와 먹는 관습들을 지키는 갓이 토종 씨앗을 지키는 일에 큰 동기부여라고 본 논문이 주장한다.

b) 나바단야의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과 문화적 기억

나바단야는 전여농과 유사하게 여성 농민들에게 문화적 기억은 씨앗을 지키는 일의 중요한 원인이다. 나바단야의 기업들의 지식 재산권에 대한 싸움은 오래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대상자 13 은 나바단야의 활동가 중 하나이며 법과 토종 농사 관한 학술논문을 분석하는 일을 맡고 있다. 그는 나바단야의 '신품종' 특허법 반대의 오래된 역사를 소개했다-

"We have a rich history of struggle and resistance against corporates starting against bio-piracy of neem, corporations took neem from India and tweaked it a little and said they will own the neem products that they sell so they patented the neem which is our traditional knowledge, this particular plant. The neem plant itself. For any Indian person it is a ridiculous thing to think that they took the neem and experimented on it so its theirs now. This is typical corporate masculine arrogance. They can swoop in and call it their own. This is colonialism. So it started with the neem and we resisted the patent, led a whole international struggle against it and finally the American patent and European patent office said that this doesn't work so it is void, there was a similar thing with the Haldi, which is turmeric, we resisted and won again, then there was wheat, again we won. So, there has been a constant resistance. If you look at the TRIPS-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regime even there the corporations tried to shape laws that favour them but people like Dr. Shiva resisted and made sure there were systems in the national law that

safeguards our seeds so India has the Indian patents act and we created an exception is section 3 which allowed for no patenting on seeds, plants on life. So, the reason that exception exists is because of a lot of work Navdanya did." (대상자 13)

여기서 대상자 13 은 설명하는 'Indian Patents Act' (1970)의 3rd Act 는 식물과 농사가 특허법에서 면제된다는 것이다. 씨앗은 공유 재산으로써 모든 농민들의 권리가 지켜졌다. 그러나 1999 년, 2002 년, 2005 년 계속 약학 분야에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농업에서도 특허법 개정을 위한 몬산토와 다른 다국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약학 기업 바이에르가 몬산토를 인수한 다음에 'Indian Patents Act'에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139] 한국과 다르게 인도는 아직 UPOV 가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이유도 나바단야와 같은 농민 단체의 반대에 있기도 한다. [140] 인도의 2001 년 India's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and Farmers' Rights Act (PPVFR) 도입도 농민들의 씨앗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나바단야 및 다른 농민 단체의 주장이다. [141] 배경에서 본 듯이 이러한 법에 존재함에도 불고하고 몬산토는 씨앗을 판매하여 인도 농민들에게 엄청난 로얄티를 받아 왔다.[142] 이러한 지식 재산권에 맞서는 나바단야의 여성농민들도 전여농과 유사하게 씨앗으로 통해 문화적 기억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139] 43 쪽 Ramanna, Anitha. (2005) "Bt Cotton and India's Policy on IPRs." *Asian Biotechnology and Development Review.*

[140] The Hindu Business Line. (2019) "India not obliged to be compliant with UPOV: Experts to Minister"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economy/agri-business/india-not-obliged-to-be-compliant-with-upov-experts-to-minister/article27083729.ece# 접속일: 2019.08.20

[141] V. Shiva." SEEDS, BIODIVERSITY AND IPRs" https://medium.com/@drvandanashiva/seeds-biodiversity-and-iprs-845187d00951 접속일: 2019.08.20

[142] Reuters. (2018) <Monsanto loses Indian legal battle over GM cotton patents>

나바단야는 없어지는 렌틸콩과 수수의 다양한 품종 또는 쌀의 품종 등을 되살리기 위한 델리에서 식당과 '슬로우 푸드' 카페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멸종위기에 있는 토종 요리들을 소개하고 식사할 수 있게 마련된 식당도 있다. 이 요리 레시피들을 나바단야가 수많은 책에서 출판하고 문화적 기억을 다시 살아있는 문화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지식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전파하고 있기도 한다. 나바단야가 우타라칸드주에서 매월 진행되는 수업에서 가르치는 '자이빅' 농사 방법은 인도의 토착 농사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농사 법을 말한다. 나바단야에서는 토양 연구실에서 근무중인 농업 과학자 또는 농업인 출신의 대상자 15 는 자이빅 농사를 설명하였다. 이는 농사를 하는 데에 한가지의 품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주 품종과 주변에 다른 상호 보완적인 품종들을 같이 심는 관습을 말한다. 예를 들어 목화씨와 같이 나무콩 또는 오크라를 심으면 목화를 해체하는 목화다래벌레는 오크라로 쏠려가 목화가 안전하게 수확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도의 자이빅 농사에서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다품종 토종 농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이빅' 농사를 실천하고 있는 인도 여성 농민 대상자들은 문화를 중요시하고 문화를 고스란히 이끌어가고 싶은 것이 씨앗을 지키는 데에 동기부여로 나타났다. 트레이닝을 받으러 오는 여성들은 토종 농사와 함께 토종 레시피, 문화적 중요성 등을 알게 된다. 그리고 트레이닝 후에 나바단야 캠퍼스 안에 위치되어 있는 '공평 식당'에서 무료 식사를 한다. 이 식사는 나바단야 캠퍼스에 있는 1000 에이커의 논밭에서 수확된 '자이빅' 토종 농산물로 준비되어 있다.

---

https://www.reuters.com/article/us-india-monsanto-nsl/monsanto-loses-indian-legal-battle-over-gm-cotton-patents-idUSKBN1HI2MV
접속일: 2019.08.20

트레이닝을 흔히 진행하는 대상자 8 은 우타라칸드주의 여성들의 토종 씨앗 지키는 데에 첫 반응에 대한 알려주었다-

"It's mostly all good. Food and agriculture is a part of the culture and their life. Most of the times the communities receive us well because it's something that belongs to them, we are not imposing, we are asking. Its inherent in their society. So, when we talk about how they conserve seeds, select and what are their agricultural systems etc, they feel happy to talk about it. Because it's not a project. It is their life." (대상자 8)

대상자 8 의 말과 같이 여성농민들의 반응은 대부분은 긍정적이라는 이유는 문화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씨앗 지키는 일이 농민들의 삶에서 또는 문화적으로 잘 받아지며 농민들에게 씨앗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문화를 지키는 것과 같다. 한국과 같이 인도도 식민지였으며 이는 인도의 농촌 문화 또는 지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상자 8 의 다음 답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Culturally, how we were colonized is very different. Green revolution's onslaught in Haryana, UP and Punjab was a lot. These areas were really attacked by first British, then the companies. So, Uttarakhand is slightly different, they are proud of their culture. And the food culture. But you'll also see in UP, the food culture has been eradicated in areas…. It's decreased the knowledge system…So, if you go to Uttarakhand, they receive these kinds of conversations very differently from UP." (대상자 8)

식민화 과정 또는 녹색혁명에 따라 토종 지식이 더 없어진 또는 덜 없어진 지역들 간에 차이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화적 맥락과 역사는 씨앗을 지키게 되는 결정에 큰 변수가 된다는 것은 대상자 8 의 활동 경험이다. 우타라칸드주는 산으로 둘러싼 지역이기 때문에 식민화와 독립 후 녹색혁명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아직도 전통 농업 문화의 많은 것을 사람들이 놓치고 싶지 않는 것을 대상자들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었다. 여성 농민 대상자 10 는 나바단야 논밭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에게 이 일에 대한 좋은 점을 설명하고 본인 어릴 때의 기억과 풍습을 언급했다-

“저희는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따라 논에서 김매기, 베기 등 다 했어요..엄마가 씨앗을 집에 따로 보관 했거든요, 먹을 것을 빼고 그 씨앗을 계속 섰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받아온 그 같은 씨앗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좋은 씨앗이 있다면 이웃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좋은 게 있으면 교체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섰어요...나바단야는 다시 그것을 살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었거든요. 일도 좋고 우리 전통 농사 방식을 지키는 것이니까…우리 조상에게 배운 것인데 우리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상자 10)

나바단야는 지역 자급자족의 정책을 추구하여 지역의 문화를 기반한 제도들을 통한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음 대상자 8 의 말과 같다-

“The kind of system that culturally belongs to the place, like traditional water conservation system, eating systems, sanitary habits should be inculcated and harnessed more. They should be recognized first.” (대상자 8)

개발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제도들을 폐쇄하는 과정이기 보다 본래의 인간관계 또는 문화 등을 인정하여 그것 바탕을 해서 ‘풀뿌리’로부터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적 농업은 위로부터 아래 형식의 개발이었다면 ‘자이빅’ 토종 농사는 아래로부터의 개발형식으로 새우고 있다. 마을 여성 단체에서 여성들은 같이 추진하는 사업 프로젝트는 토종 지식을 바탕을 하여 창업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상자 8 은 예시를 준다-

“The women’s group will help you do so many things. The women do food processing, making *dal papdi, badis* etc. So, they do things that their region is known for, that their culture always had.” (대상자 8)

그러므로 나바단야에서 씨앗 수집과 함께 토종 지식 수집과 책 출판 사업이 이루어지며 농촌 마을에서 농사를 하는 데에 그 문화적 기억을 실천하는 트레이닝 그리고 전통 먹거리와 관습을 되살리고 있는 것은 여성 농민들에게 씨앗을 다시 지키게 되는 데에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이 문화적 지식과 기억을 씨앗과 같이 기업에게 넘어가는 것을 나바단야는 법적 절차로 막으려고 하는 꾸준한 노력도 볼 수 있었다.

ii) 토종 씨앗 지키기와 건강과 환경

UN 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988 년 11 월 창설)에 따라 농업은 모든 인위적 지구 배출물의 10%~12%이며 전 온실 가스 배출물의 4 분의 1 을 차지하고 있다.[143] 아시아의 전체 물 소비량의 5 분의 4 는 농업이다.[144] 세계의 대부분 삼림 벌채의 원인도 농업의 확대이다. 흔히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농업은 기후 변화의 제일 큰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모든 농업 방식은 기후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소량 및 진환경 농사의 영향은 산업적 농사의 영향보다 훨씬 적다. 산업적 농업은 지구 온난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145]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은 기후 변화에 대처할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며 1 년에 1 에이커의 7000 파운드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킬 수 있다. [146] 전세계 농민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영향을 받기도 하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본 논문의 대상자들은 산업적 농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직접 경험해 봤으며

---

[143] 6 쪽. Lin, Brenda & Chappell, M. Jahi & Vandermeer, John & Smith, Gerald & Quintero, Eileen & Kerr, Rachel & Griffith, Daniel & Ketcham, Stuart & Latta, Steven & Mcmichael, Philip & Mcguire, Krista & Nigh, Ron & Rocheleau, Dianne & Soluri, John & Perfecto, Ivette. (2011). Effects of industrial agriculture on climate change and the mitigation potential of small-scale agro-ecological farms. *CAB Reviews: Perspectives in Agriculture, Veterinary Science, Nutrition, and Natural Resources*. 1-18. 10.1079/PAVSNNR20116020.

[144] UN FAO. “Prospects for the Environment,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http://www.fao.org/3/y3557e/y3557e11.htm 접속일: 2019.09.10

[145] 6 쪽. Lin, Brenda & Chappell et al. (2011)

[146] CIDSE. (2015) Agriculture: From Problem to Solution-Achieving the Right to Food in a Climate-Constrained World. Brussels, Belgium: CIDSE; 2012; NAS. Climate Intervention: Carbon Dioxide Removal and Reliable Sequestration. Washington, DC, USA: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e National Academies,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씨앗을 지키고 토종 농사를 선택한 것에도 이런 경험의 영향을 볼 수 있었다.

여성농민들은 또 하나 매우 중요시하는 것은 건강의 영향이었다. 그 중에 GM 종자와 화학물질로 인한 생기는 병들에 대한 염려가 큰 편이었다. 산업적 농업은 흔히 논의되고 이슈화된 GM 종자의 기원이다. GM 종자는 배경에서 본 듯이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며 꾸준하게 논의가 되어왔다.[147] 이번 부분에서 씨앗을 지키게 되는 결정에 인도 나바단야와 한국의 전여농의 회원 여성 농민들에게 환경과 건강의 중요성을 살펴봤다.

a) 전여농 여성 농민들의 토종 씨앗 지키기와 건강과 환경

한국 전여농에서 씨앗을 지키는 여성들은 잡종 씨앗과 함께 '세트로 나오는' 화학제품에 대한 염려를 표출했다. 대상자 5 는 잔료농약으로 인해 환경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짐으로 최근 2019 년부터 실시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인한 농민 삶의 변화에 대한 대상자 5 는 염려 하고있다-

"농약을 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 미치는 것이고 친환경을 하지않는 한. 어떤 게 있냐면 씨앗을 팔고 그거를 재배를 하면 농약이 세트로 나와요. 무슨 농사에는 뭐를 쳐야 된다. 올해는 , 작년부터 정책이 바뀌었어요- 잔료농약허용기준, 전에는 예를 들어 0.3 밀리 강화가 돼서 소비자에게 농약 없는 건강한 식품을 놓게 하기는 했는데 이제 농민은 농약 하고 씨앗 하고 세트가 돼서 나오는 거라서 그만큼 농약에 구비해야되는 게 많아지는 거죠…농약은 다양해졌다. 전에는 약 하나 샀으면 감자벌레에 치다가 배추에도 치고 했는데 이제 감자 따로 배추 따로 그 다음에 마늘에 친 약은 이제 엄청 까다로워서 농민들이 진짜 어르신들이 농사를 못치어요. 검출하면 다 걸리게 돼요." (대상자 5)

---

147 FAO. <Weighing the GMO arguments: against> http://www.fao.org/english/newsroom/focus/2003/gmo8.htm 접속일: 2019.08.22

이 제도를 의하여 농산물에 허용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품종마다 맞춤형으로 처방된 약만 써야 한다는 것이며[148] 위에 답에서 본 뜻이 같은 회사에서 씨앗과 맞춤형의 농약이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농민은 이 두개를 같이 쓸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밭에 한가지 품종만 심는 게 아니며 품종마다 다른 농약을 구매해야 되고 물과 바람으로 인해 농약이 썩기도 하고 검사할 때 문제가 되는 뿐더러 그 다양하고 많은 양의 화학물질을 모두를 쓰지 못해 보관해야 한다. 당사자인 여성 농민 대상자 3 은 이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알려준다-

"집-집 마다 날짜가 지난 아마 약은 많을 거예요. 저도 진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머니 쓰시던 약이 7-8 년 된 것들도 있고 쓰지 않는데 어디다 갖다 버리기에는 딱 이만큼(애매한 양) 남아있고 버리기에는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수거해가지고 가는 게 빈통만…어디다 쏟아버려야 되는데 쏟아 버리지도 못하고..이런 약들이 너무 많은 거에요. 그리고 작년에 쳤던 약이 올해는 못치는 거에요. 이게 법이 바뀌면서 언니가 말한 대로 적년에는 배추에 쳤는데 이제 안치는 거에요 근데 약 병은 똑같아- 500 밀리 장이다 이렇게 그게 나오니까 조금씩 농사를 지는 사람은 약이 많이 남아 있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약을 그냥 집에 가지고 있는 거에요..버리면 오염이 되니까. 이게 오늘 만약에 제초제를 쳤는데 이게 좀 남았어.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이게 못버리니까 물을 좀 많이 받아서 어디 하수가 있는데도 버리거든요. 근데 그 하수가 보니까 우리 개울로 연결 되어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것은 오염이 되고. 이거는 양을 다 치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 일반 사람은 약이 많이 남아요. 내가 10 밀리 칠라고 했는데 한 20 밀리가 남아요. 다 쳤는데 더 칠 때가 없어요. 내가 좋은 데 사는 게 우리 뒤 아저씨가 약 칠 때 게 없다고 하면 우리 뒤 마당에 뱀 나온다고 이제 뱀은 없어졌어요." (대상자 3)

여기서 대상자 3 은 몇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주었다. 약은 매년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매년 쌓이는 약이 농가마다 존재한다고 알리고 또는 최근에 법개정이 되면서 품종마다 약을 다르게 사야 되어 양이 많아지긴 했으나 '병이 똑같다'고 알려주었다. 이의 의미는 전에 쓰던 농약과 별 다른 점이 없어도 다시 시장에서 그 같은 회사의 농약을

[148]중앙일보. (2019) "농약 안 쓸 수 없고…" 귀농인이 숙지하면 좋은 이것" 접속일: 2019.10.16

구매해야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약이 조금씩 쌓이면서 이제 집에 농약이 너무 많아져 걱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버릴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집 근체에 있는 하수에 버리는데 이것이 개울과 연결되어 있어서 수질오염이 되고 있다. 또한 환경에 더 하나의 영향은 농약에 많은 사용으로 주변에 뱀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대상자 3 의 답에서 본 듯이 대량 농사의 환경에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이 알 수 있다.

고령화 여성 농민 대상자 3 은 하루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혼자서 농약을 뿌리는 것이며 가장 큰 비용도 농약을 구매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농약과 같은 농자재는 비용과 무개의 문제뿐 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 또는 여성농민들의 자식의 건강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다양해진 농약을 보관하는 데에 문제에 대한 답을 해준 대상자 3 에게는 씨앗을 다시 지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가족의 안전한 먹을거리였다. 다음 답에서 그는 농약-집약적인 농사에서 먹을거리-집중적인 농사로 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주변 언니들도 좋고 사먹는 것 보다는 우리 애들이 아토피가 있고 또 먹는 게 좀 바뀌면 몸에 바로 나타나는 스타일이라서 그거 위주로 농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언니한테 물어 봤을ㅜ때 그런 거 농사 질 때 약 안치고 그러면 되게 좋아진대. 진짜 그 말이 맞았어요. 먹는 거에 우리 애들 피부랑 뭐 건강이 좋아지거든요…사먹는 거에 우리가 길이 들어져 있어서 그렇지 제가 직접 농사해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솔직히 이게 토종씨앗인데 맛있으면 심잖아. 근데 이게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너무 맛있으니까 아이들도 맥여 보고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그 씨앗이 아니면 안되는 거야…" (대상자 3)

위 답에서 보면 농민도 자신이 농사를 짓는데 밖에서 먹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량 농사에 한 품종만 심고 농민 자신의 끼니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토종 다품종 농사를 하면서 자신이 먹을 것을 해결 할 수가 있으며 대상자 3 의 의하여 자식의 건강을 위한 토종 친환경 농사를 시작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대량 농사 하면서도 토종 씨앗 농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종 씨앗을 지키는 운동은 토종 씨앗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초국적 기업의 개량된 씨앗을 반대하는 것이며 특히 GMO 씨앗에 대한 적극적 반대를 한다. 대상자들 중에 여성농민 겸 전여농 활동가들은 GMO 수입물의 '완전표시제' 를 계속적 유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여농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의 10 년 자료집에서 보면 GMO 반대운동은 2000 년대 GMO 옥수수 전분당 공식적 수입 허가 승인의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많은 농민단체와 시민사회와 함께 시작을 했으며 특히 2005 년 GMO 반대생면운동연대에서 토종씨앗을 GMO 식품의 대안으로 내세우며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을 수렴하게 되었다. [149]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건강 또는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전여농은 2005 년을 비롯하여 협동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2011 년부터 주도적으로 토종 씨앗 지키기와 함께 지역마다 GMO 씨앗과 먹을거리 안전, 식생활 등에 관한 교육 활동, 간담회, 회의,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몬산토 반대 행진, 등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GMO 반대 정책적 요구도 계속 해왔다. [150] 전여농의 소속 여성농민들에게 씨앗을 지키는 데에 건강과 환경이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b) 나바단야 여성 농민들의 토종 씨앗 지키기와 건강과 환경

본 논문의 나바단야 회원 대상자들은 위에 전여농과 유사하게 건강과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바단야가 우타라칸드주에 활동을 나서기 전에 산업적 농사는 우타라칸드주에 진입하면서 토양의 질을 산성을 띄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바단야와 근무하는 토양과 친환경 농사 전문가들은 나바단야의 입장 후에 토양의 질이 다시 균형을 찾았다는 것이 토양 연구실에 근무중인 대상자 15 가

[149] 93 쪽. "전여농 토종 씨앗 지키기 시작과 발전"
[150] 같은 자료 94 쪽.

설명해본 것이다. 대상자 8 은 UP 와 펀자브주에 관해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상자 15 도 UP 주의 농업과 환경에 관해서 전문적 경험을 알려주었다-

"Earlier there was biodiversity, there was one main crop and around it you would put 4 more kinds of complementary crops with it, like arhar lentil, then you put okra- because it attracts the insects away from the main crop- but they brought in monoculture- which is to put the same crop- usually rice or wheat, that killed maize and pulses. Pulses wouldn't grow in the soil that has no micronutrients neither and is polluted with chemicals through and through…crops' function is like a human body-it needs nutrients in available form and after absorbing nutrients it releases toxins into the soil. Plants like humans, absorb the nutrient they need more than they require, if available, for example in a monoculture citrus plant field, copper gets exhausted, after which the plants catch deficiency related disease so the crops would fail. The toxin it released made the soil impossible to grow in at all too. For at least 10-15 years. For example, I am from UP where from Aligarh to Farrukhabad mostly the entire belt they grew only potato, chilli and bell peppers…now it doesn't grow it at all. The monocrop system is only motivating greed, and brought the debt cycle." (대상자 15)

대상자 15 는 토종 다품종 농사법을 추구하는 식물다양성은 산업적 농업으로 인해 토양의 미량요소의 부족으로 인해 수확을 실패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특히 UP 주의 한 지역(대상자의 고향)에서 단일 품종 농사가 대세가 됨으로써 이제 불모의 토양이 되었다는 예시를 들어주고 있다. 인도 곳곳에서 기후 변화가 선명해지면서 물 부족으로 인한 가몸, 비가 많이 와서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가 일어나면서 농민들을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나바단야에서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씨앗을 나누어주며 그것을 심고 수확할 수 있는 지식까지 전파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관해서 나바단야 논밭 관리인 여성농민 대상자 9 은 말해주었다-

"나바단야에 오는 농민들은 자기 경험도 알려주고 주로 반복되는 문제는 씨앗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씨앗이 나오지 않는 것 또는 진짜 큰 문제는- 물의 부족인

거에요. 또는한꺼번 에 너무 많이 비가 오는 것이에요. 이럴 때 나바단야 에서 주는 트레이닝은 토종 씨앗 농사하는 데에 물이 필요하지만 물을 최소화하는 밥법의 '우크디' 농사이에요." (대상자 9)

그러므로 홍수를 견디는 품종을 주기도 하고 특별한 방법을 가르치기 한다. 또는 다른 자연 재해- 예를 들어 최근 네팔 지진이 났을 때도 나바단야는 토종씨앗 은행에서 네팔에 씨앗을 보내기도 했다. 대상자 9 는 앞으로 환경과 같이 건강도 본인이 토종을 지키게 되는 데에 원인으로 선택했다-

"토종 농사는 건강에도 좋고 환경을 해롭지 않고요. 요새 사람들의 농사는 농약을 많이 써서 병도 많아졌어요..우리 할아버지 때는 그런 병이 없었고 음식에 영양도 많았지요..요새 사람들이 화학제품을 농사에 하도 많이 써서 환경에도 우리 몸에 그것이 남아 있는 거지…" (대상자 9)

위에 본 것과 같이 건강은 여성농민에게 씨앗을 지키는 데에 큰 이유로 나타났다. 여성농민들은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남성 농민들 비해 귀를 기울이며 나바단야 활동가들은 여성들과 토종 씨앗에 관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마을 차체에 교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다. 대상자 15 도 건강이 여성농민들에게 중요한다는 것의 입장이었다-

"Monocropping brought disease. Diseases we had only heard of in books. In a family in a small town, one person in every fifth family may have had BP, now every family has diabetes and BP. Diabetes was really a disease of the rich people. Kidney diseases also, when we talk to farmers, they tell us how prevalent it has become…fertile Punjab was the hub of activity for the companies, the soil has now become poisonous- microbes are getting exhausted. Hunger struck and most youth of Punjab left abroad as we know. But also, Punjab has the highest rates of cancer in the country... The money means nothing if you fall sick. Not going to the doctor is the biggest saving. They have chosen indigenous seeds again because they want to be healthy again. They want to eat the food that they grew up eating" (대상자 15)

대상자 15 에 의한 나바단야에서 토종 씨앗을 빌려가는 농민들은 다시 건강을 찾기 때문에 토종 농사를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대상자 15 의 경험에는 어릴 때 농촌에 없는 병들은-고혈압, 당뇨병, 암 등 마을-마을 전개되어간다는 것이다. 화학물질에 긴 시간 동안 노출, 수질오염 또는

대기오염, 바뀐 식생활 등은 산업적 농업과 함께 농촌에 들어오면서 전에 있지 않는 병들은 사람들이 쉽게 걸린다는 것은 대상자 15 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또다시 친환경 '자이빅' 농사를 찾는 이유라고 여긴다. 대상자 12 는 라딴뿌르 마을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바단야와 함께 마을 근처 수질오염 또는 대기오염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공장의 건설을 막는 데에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바단야 왔을 때부터 도움이 된 거에요. 예를 들어, 근처에 어떤 기업에서 콜라 공장이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리 환경이 엄청 오염이 될 뻔했는데 나바단야가 우리와 함께 나섰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마을에 정부가 쓰레기, 폐기처리 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도 우리를 도와주었죠.." (대상자 12)

나바단야는 지난 30 년 동안 환경과 건강을 중요시하면서 교육활동을 진행했으며 정책적 자원에서 세계 GMO 종자를 반대하는 세력 중 제일 유명하고 강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부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의 건강과 환경에 관한 이유로 인해 나바단야 여성농민들은 씨앗을 지키는 일에 나서게 되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 고도성장하고 있는 인도와 급속한 산업화 끝에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한국에서 전여농과 나바단야 농민 단체들의 여성 농민은 어떤 이유로 소위 '낙후된/미발발된' 농업 방식의 "씨앗 지키기"를 되찾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인터뷰와 단체 소재를 분석한 결과 3 가지의 이유가 보였다. 이를 간략하게 설명해볼 것이다. 첫째는 '여성농민과 소득 보장'이다. 이 부분에서 먼저 전여농과 나바단야의 담론을 살펴봤다. 전여농은 토종 씨앗을 "미래의 열쇠"와 비교하며 식량주권의 근본으로 보았으며 나바단야의 담론은 더 강력해 씨앗을 지키는 일은 생계를 지키는 데 중심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 한국 여성농민들과 인터뷰로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토종 농사가 힘이 많이 들고 정부 수매와 다른 판매 경로가 없으며 토종 농사의 현실은 담론과 달랐다. 한국에서 여성 농민들은 토종 농사 및 구매한 씨앗으로 작물 농사 2 가지를 따로 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인도에서 여성들이 밭 농사를 토종으로 하되 농사 외에 다른 일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단체의 담론과 현실 간에 차이를 지냈지만 여성 농민들은 그래도 씨앗을 지키는 이유는 단체들의 토종 농산물 판매 네트워크 때문이었다. 나바단야의 'Navdanya Natural Products' 사업 또는 전여농의 '언니네텃밭' 사업, 그리고 그 외에도 지역 판매 네트워크 등 토종 농사의 핵심적인 소득의 원천이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두번째 이유로 '여성 농민의 지위 향상 및 공동체 형성이었다. 여성농민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전통 농촌사회에서 여성의 씨앗 지키는 역할은 씨앗과 함께 사라져 여성의 지위도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씨앗을 지킴으로써 여성농민들은 한 곳에 모여 '여성'으로써 남녀평등 교육을 받고, 농민수당, 공동경영체 시스템,

여성농민의 행복바우처 등을 청한다. 나바단야에게 여성 농민의 가치는 씨앗이 기업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없어졌다고 보며 지위를 향상하는 것도 씨앗을 되찾으면서 되찾을 것이라고 큰 제도적 변화를 원하고 있고 운동에서 여성들을 위한 리더십 교육, 창업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화로 비어가는 농촌에서 씨앗을 주고 받으면서 다시 공동체가 '참애애'로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씨앗 지키기 운동과 함께 여성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여성농업인센터의 유치원에 보내고 돌봄 기반이 없는 농촌에서 큰 도움이었다고 한다. 인도에서 나바단야의 '마을 여성단체'는 극소기금 (Microfunding)을 하여 창업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도 보였으며 토종 농사에서 서로 도와주는 것도 목격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세번째 이유는 '여성농민과 문화적 기억, 건강과 환경'이었으며 이 장에서는 토종 씨앗을 지키는 것은 토종 씨앗과 함께 토종 지식 또는 문화적 기억을 되살리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연자원이 지식재산권으로 기업이 소유하게 된 오늘 시점에서 다시 전통 지식을 되살리는 것은 여성농민들에게 중요한 사업이었다. 이와 함께 잡종 농사로 인해 악화되는 환경 또는 약화되는 가족의 건강도 씨앗 지키게 된 이유였다.

이 모든 이유는 '왜 토종 씨앗을 지키는지'의 답이었으나 반대로 보면 '왜 주요의 농법에서 쓰이는 씨앗을 구매를 해서 쓰지 않는지'의 답이기도 했다. 이 '낙후된' 농업 관습의 선택은 농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 약화된 농촌 공동체와 여성의 지위, 소멸되는 문화적 기억과 환경 또는 건강에 악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개발과정과 녹색혁명에서 농민들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할 약속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20 세기의 개발과정을 거친 인도와 한국에서 농민, 특히 여성농민들은 그 수익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이 운동은 담론을 넘어서 매우 현실적이며, 동시에 개인적이고 또는 정치적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한계점”은 서로 다른 나라인 인도와 한국의 농식품체제의 문제점, 역사 또는 여성농민들의 운동들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두 나라 (또는 다른 선진국-개발도상국) 간에 비교분석할 때 다른 점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일쑤이다. 또한 이 두 나라 간에 비교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개발경로를 걸어온 인도와 한국 간에 농민계급에서 많은 비슷한 문제점 또는 저항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를 실시해보았다. 이 연구의 목표는 두 나라의 여성농민들의 저항 또는 농식품체제의 문제들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자본주의적 개발의 부작용은 널리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이러한 ‘매크로’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하면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자본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20 세기 중반 2 차대전 후 많은 신생국가들 태어나 서양 사회학자들은 이 제 3 세계에서 인구 폭발을 크게 우려하였다. 말슈스이론이 대중화되고 전세계적으로 식량부족과 기아가 예상되었다. 이를 맞서기 위한 미국을 비롯하여 산업화된 농업 또는 세계화된 농식품체제가 제 3 세계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오늘의 식량 제도를 보면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의 절반 정도가 낭비되고 있고 세상의 가장 취약한 인구- 최하층 10 억은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과잉 인구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발주의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선행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이 문제적인 농식품체제를 반대하는 전세계 개발도상국에서 농민들의 식량주권운동과 종자주권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본 듯이 목적론적인

개발주의는 근대화 과정에서 농민층이 없어질 예상을 하였으나 농민들은 현재에도 존재하고 저항하고 "소농민의 길"("la via campesina")를 주장하고 있다. 이 길/대안은 다양하나, 무엇보다 농민의 식량에 또는 토양과 종자 같은 자연자원의 권리를 주장하고 세계적인 것보다 로컬 식품 공급 사슬을 추구한다. 농민들 중에서 소외된 집단인 여성농민의 운동도 전세계에서 빈번하다. 본 논문은 그 중 두가지의 운동을 선보였다. 그 외에 볼리비아 여성농민의 GMO-반대 국가적 캠페인,[151] 브라질의 비아 캄페시나 여성농민들의 펄프공장 유칼리나무 재배지를 공격하고 단일품종 농사의 영향을 반대하는 운동,[152] 아르헨티나에서 커피수출형 개발 모델로 먹거리작물의 파괴와 삼림 발채를 반대하는 여성 토착민들의 운동,[153] 초국적 기업의 진입으로 인해서 토종쌀이 없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씨앗 지키는 태국 농민 여성의 운동[154] 등 여성농민들의 식량 또는 종자주권 운동이 세계 농식품체제의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고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

---

[151] 231 쪽. Potter, George Ann, and Leonida Zurita. 2009. "The Peasant Women's Movement in Bolivia: 'Bartolina Sisa' and COCAMTROP." In *Rural Social Movements in Latin America:* Organizing *for Sustainable Livelihoods*, edited by Deere Carmen Diana and Fredrick S. Royce, 229-247. Gainesville: University of Press of Florida.

[152] Rainforest Movement Bulletin. (2006) "Brazil: Peasant Women's Action Against Monoculture Eucalyptus Plantations on International Women's Day." WRM's Bulletin N° 104, March 2006. http://www.wrm.org.uy/oldsite/bulletin/104/viewpoint.html 접속일: 2019.09.02

[153] World Rainforest Movement Bulletin. 2009. Argentina: Wichi and Guarani Women Raise Their Voices Against Deforestation Linked to Soyabean Expansion, Iss. No. 145. http://www.wrm.org.uy 접속일: 2019.09.02

[154] 6 쪽. Seed Forum Document. 2008. "Seed Heritage of the People for the Good of Humanity: From the Women Seed Forum of South Korea, 28th January, 2008. http://www.viacampesina.net. 접속일: 2019.09.02

그러므로 주로 성공적으로 여겨지는 1960 년대 인도의 녹색혁명의 경험과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인도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고 한국은 OECD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으나 문제적인 농식품체제로 인해 아직 농민층, 특히 여성농민들의 삶에 고독한 문제들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서 '씨앗 지키기'와 같은 식량주권 운동이 열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Sen, Amartya (1981). *Poverty and Famines: An Essay on Entitlement and Depriv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Brown, T. (2018). *Farmers, Subalterns, and Activists: Social Politics of Sustainable Agriculture in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 Fry. (2016) *Seeds: A Natural Hist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Caouette, D. (Ed.), Turner, S. (Ed.). (2009). *Agrarian Angst and Rural Resistance i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London: Routledge,

Clapp, J. (2016). *Food* . 2nd Edition. Polity Press. UK.

Ghosh, Madhusudan. (2017) *WTO, Trade Liberalization and Indian Agriculture. Indian Agriculture Under mult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petitiveness and Food Security Concerns,* Edition: First, Chapter 2, Centre for WTO Studies, and Bookwell, pp.19-43

Karl Marx, (1852)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Napoleon,* Dodo Press. Gloucester. (2009 Trans. D.L. D.DL.)

Nazarea, Virginia D. (2006) *Cultural Memory and Biodiversity*. University of Arizona Press.

Mouzelis N.P. (1978) Capitalism and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Modern Greece*. Palgrave Macmillan, London:

Phillips, C. (2013). *Saving More Than Seeds*. London: Routledge,

Robles, Wilder, Veltmeyer , Henry (2015), *The Politics of Agrarian Reform in Brazil: The Landless Rural Workers Movement.* New York : Palgrave Macmillan US.

안철환 (2016) <호미 한자루 농법, Volume 1> 들녘 출판사

엄영애. (2007) <한국여성농민운동사: 농민생존권위기와 여성농민의 조직적 투쟁>나무와숲.

오숙민. 한영미 (2007) <토종 농사 이야기 수첩_강원도 횡성-횡성에서 살아온 토종 씨앗들>도서출판 시금치

거창군여성농민회 토종살림 (2018) <토장 씨앗, 거창에서 만나다>

이석하. (2014).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 종자는 누가 소유하는가 / KBS 스페셜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제작팀 지음 ; 장경호 엮음. Print.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2017) <전여농 토종씨앗지키기 10 년 자료집: 생명을 담은 토종씨앗, 함께 지켜요!>

학술지 논문

Amin, Shahid. (1984) Of Peasants and Peasant movement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19, No. 1 January 7 1984. Pp. 23-27

Pandey, Anupam (2013) Globalization and ecofeminism in the South: keeping the 'Third World' alive, Journal of Global Ethics, 9:3, 345-358,

Araghi, F. (1995). Global Depeasantization, 1945-1990. *The Sociological Quarterly, 36*(2), 337-368

Ashraf AM, Lokanadan S. (2017) A review of rice landraces in India and its inherent medicinal values -the nutritive food values for future. Int J Curr Microbiol App Sci.6(12):348-35

Ben McKay, Ryan Nehring & Marygold Walsh-Dilley (2014) The 'state' of food sovereignty in Latin America: political projects and alternative pathways in Venezuela, Ecuador and Bolivia, *Journal of Peasant Studies*, 41:6, 1175-1200

C. Altenbuchner, S. Vogel, M. Larcher, (2017) Effects of organic farming on the empowerment of women: A case study on the perception of female farmers in Odisha, India,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Volume 64, Pages 28-33, ISSN 0277-5395,

Carine Pionetti. (2006). Seed diversity in the drylands: women and farming in South India. *Gatekeeper* Vol. 126. Inter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IDSE. (2015) Agriculture: From Problem to Solution-Achieving the Right to Food in a Climate-Constrained World.

Brussels, Belgium: CIDSE; 2012; NAS. *Climate Intervention: Carbon Dioxide Removal and Reliable Sequestration.* Washington, DC, USA: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e National Academies,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Roy, Debal K. Singha (1995). Peasant Movements and Empowerment of Rural Women.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30(37), 2306-2311. Retrieved from http://www.jstor.org/stable/440321

Eliazer Nelson, A.R.L., Ravichandran, K. & Antony, U. (2019) The impact of the Green Revolution on indigenous crops of India. *Journal of Ethnic Foods* 6:8; Dec. 2019. https://doi.org/10.1186/s42779-019-0011-9

Fabricant, Nicole (2010) Between the Romance of Collectivism and the Reality of Individualism: Ayllu Rhetoric in Bolivia's Landless Peasant Movement *Latin American Perspectives*, July 2010, Vol.37(4), pp.88-107

Harlan, J.R. (1975) *Crops & Man.* 2nd Edition, American Society of Agronomy, Crop Science Society of America, Inc., Madison.; Wilkes, H. (1977). Hybridization of Maize and Teosinte, in Mexico and Guatemala and the Improvement of Maize. *Economic Botany, 31*(3), 254-293.

Inglehart, Ronald, and Wayne E. Baker. (2000).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5, no. 1, pp. 19–51. JSTOR, www.jstor.org/stable/2657288.

Jefferson Boyer. (2010) Food security, food sovereignty, and local challenges for transnational agrarian movements: the Honduras cas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7:2, pages 319-351.

Lin, Brenda & Chappell, M. Jahi & Vandermeer, John & Smith, Gerald & Quintero, Eileen & Kerr, Rachel & Griffith, Daniel & Ketcham, Stuart & Latta, Steven & Mcmichael, Philip & Mcguire, Krista & Nigh, Ron & Rocheleau, Dianne & Soluri, John & Perfecto, Ivette. (2011). Effects of industrial agriculture on climate change and the mitigation potential of small-scale agro-ecological farms. *CAB Reviews: Perspectives in Agriculture, Veterinary Science, Nutrition, and Natural Resources*. 6. 1-18. 10.1079/PAVSNNR20116020.

María Elena Martínez-Torres & Peter M. Rosset (2010) La Vía Campesina: the birth and evolution of a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7:1, 149-175

Miguel A. Altieri & Victor Manuel Toledo (2011) The agroecological revolution in Latin America: rescuing nature, ensuring food sovereignty and empowering peasants, *Journal of Peasant Studies*, 38:3, 587-612

Nilton Manoel Lacerda Adão; Valmir Luiz Stropasolas; Maria José Hötzel. (2011) The peasant women movement and the seeding of new perspectives: the meanings of (re) production of creole seeds for women in the west of Santa Catarina. *INTERthesis*.8(2):160-198

Noha Shawki (2015) Transnationalism and Diffusion: A Study of the Food Sovereignty Movements in the UK and Canada, *Globalizations*, 12:5, 758-773,

Omvedt, G. (1977). Women and Rural Revolt in India. *Social Scientist*, 6(1), 3-18.

P. Eashvaraiah (2001) Liberalisation, the state and agriculture in Indi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1:3, 331-345

Patnaik, U. (1983). On the Evolution of the Class of Agricultural Labourers in India. *Social Scientist*, 11(7), 3-24. doi:10.2307/3520354

Pena, Mariela (2017). "Las políticas de la vida cotidiana en el Movimiento Campesino de Santiago del Estero - Vía Campesina, Argentina". En: Boletín de Antropología. Universidad de Antioquia, Medellín, vol. 32, N.º 53, pp. 210 – 231

Peter Michael Rosset, Braulio Machín Sosa , Adilén María Roque Jaime & Dana Rocío Ávila Lozano (2011) The Campesino-to-Campesino agroecology movement of ANAP in Cuba: social process methodology in the construction of sustainable peasant agriculture and food sovereignty,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8:1, 161-191

Philip McMichael (2006) Reframing Development: Global Peasant Movements and the New Agrarian Question, *Canadia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 Revue canadienne d'études du développement,* 27:4, 471-483,

Potter, George Ann, and Leonida Zurita. 2009. "The Peasant Women's Movement in Bolivia: 'Bartolina Sisa' and COCAMTROP." In *Rural Social Movements in Latin America:*

Organizing *for Sustainable Livelihoods*, edited by Deere Carmen Diana and Fredrick S. Royce, 229-247. Gainesville: University of Press of Florida.

Ramanna, Anitha. (2005) "Bt Cotton and India's Policy on IPRs." *Asian Biotechnology and Development Review.*

Roy, T., & Borowiak, C. (2003). Against Ecofeminism: Agrarian Populism and the Splintered Subject in Rural India. *Alternatives*, *28*(1), 57-89.

Singh, R.B. (2000).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 case study from the Green Revolution state of Haryana, India. *Agriculture, Ecosystems & Environment*.. 97-103.

Soper, Rachel (2016) *Food Sovereignty on the Ground: Export Agriculture, Peasant Communities, and the Indigenous Movement in Ecuador*. UC San Diego: Sociology

Thomas Paul Henderson (2017) State-peasant movement relations and the politics of food sovereignty in Mexico and Ecuador,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44:1, 33-55,

강경희, 강수정 (2006). 신자유주의, FTA, 그리고 새로운 농민운동. 이베로아메리카, 8(2), 105-124

공석기 (2014). 한국 농민운동의 초국적 전략. 국제개발협력연구 제 6 권 제 2 호: 73-97

권영근 (2006). [특집/한국의 농업과 농민을 위한 변론] 해방 후 농민운동의 전개와 성격. 내일을 여는 역사(23), 69-86

김정희 (2017) 전남 토종농사를 짓는 여성농민들의 이야기. 제 6 호 동향과 전망

김효정 (2011). 여성농민의 토착지식에 기반한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의 특성 과 과제. 농촌사회, 21(2), 263-300

박신규, 정은정 (2010). 여성농민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여성농민운동의 발전. 농촌사 회, 20(1), 89-129

송원규, 윤병선 (2017). 식량주권의 제도화와 농민권리 선언에 관한 고찰. 농촌사회, 27(2), 7-43

윤병선 (2010). 대안농업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농촌사회, 20(1), 131-160

윤병선, 김철규, 김흥주 (2012). 한국과 일본의 식량주권운동에 관한 비교 연구. 농촌사회, 22(2), 233-269

장상환 (2010). 해방과 전쟁, 그리고 전쟁 이후의 농민운동. 농촌사회, 20(1), 7-46

정경숙 (2005). 여성농민운동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5(1), 59-101

정명채 (2003). 해방 이후의 농민운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215-254

인터넷 뉴스 자료

BBC. (2005) India wins landmark patent battle. http://news.bbc.co.uk/2/hi/science/nature/4333627.stm;

BBC. (2019 년 10 월 25 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앞으로 달라지는 것들>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0177839

BBC. Mark Overton, (2011). Agricultural Revolution in England 1500 - 1850.

BBC. Soutvik Biswas (2019) 'How Britain's opium trade impoverished Indians'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49404024

New York Times (2012) "As Grain Piles Up, India's Poor Still Go Hungry" https://www.nytimes.com/2012/06/08/business/global/a-failed-food-system-in-india-prompts-an-intense-review.html;

NPR News.<'Green Revolution' Trapping India's Farmers In Debt> (2009) https://www.npr.org/2009/04/14/102944731/green-revolution-trapping-indias-farmers-in-debt

Reuters. (2018) <Monsanto loses Indian legal battle over GM cotton patents> https://www.reuters.com/article/us-india-monsanto-nsl/monsanto-loses-indian-legal-battle-over-gm-cotton-patents-idUSKBN1HI2MV

The Hindu Business Line. (2019) "India not obliged to be compliant with UPOV: Experts to Minister"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economy/agri-business/india-not-obliged-to-be-compliant-with-upov-experts-to-minister/article27083729.ece#

The Hindu. (2012) From 1,10,000 varieties of rice to only 6,000 now. India; http://www.thehindu.com/news/national/karnataka/from-110000-varieties-of-rice-to-only-6000-now/article3284453.ece

The Wire.(2018) The Centre Is Barely Serious About Recognising Women as Farmers; https://thewire.in/women/women-farmers-agriculture-rights;

과학동아.(2018) <작년 GMO 수입량 줄었지만…연구용 전년 대비 24% 증가>;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3480;

농민신문 (2009) <전여농, 모든 농민에 수당을 '7 대 요구안' 발표>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FRM/314701/view

농민신문. (2019) 곡물자급률은 '세계 최하위'…농약 사용량은 '선진국의 10 배'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12279/view

연합뉴스. (2016 1 월) <농촌 남녀평등…여성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인정> https://www.yna.co.kr/view/AKR20160108196800030

연합뉴스. (2016) <종자는 '농업의 반도체'… 금값 2 배 이상도> https://www.yna.co.kr/view/AKR20180330170700980

과학동아. 과학동아. (2005 년 4 월) <세계는 종자전쟁 중-녹색 황금 노리는 식물 사냥꾼>

조선비즈. (2019.3.9) "정부,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한 콩 전량 수매키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6/2019030602683.html?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utm_campaign=biz;

중앙일보 (2007 년) <국내 멸종 토종 씨앗 34 종 반세기 만에 돌아온다>

중앙일보; (2012년) "우리가 개발한 고추 종자, 외국서 수입 왜?"

중앙일보. (2019) "농약 안 쓸 수 없고…" 귀농인이 숙지하면 좋은 이것"

중앙일보. (4 월 2019 년) "여성 농업인이 52.7%인데 지위낮아"…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전담팀 올해 상반기내 구성"

한겨래. (2006 년) <한반도 종자사냥> 일.미 차례로 쓸고 지나가> http://www.hani.co.kr/arti/PRINT/177396.html

한겨레. (2010) < 그 시절 통일벼의 녹색혁명, 박정희의 농업정책> http://scienceon.hani.co.kr/35781;

한국농정뉴스. (2012) <언니네텃밭은 농촌의 활력소>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6759

환경일보.(2019) <수입 콩·옥수수 80~90% GMO… 이력관리는 깜깜>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881

정부 자료

Hall WF. *Agriculture in India.* Regional Analysis Division, Economic Research Servic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1964. https://archive.org/details/agricultureinind64hall.

Indian Council of Food and Agriculture report. <Indian Seed Market>https://icfa.org.in/assets/doc/reports/Seeds.pdf

The Government of Punjab *(2004).* Human Development Report 2004, Punjab. Section: "The Green Revolution", pp. 17-20

국립종자원. <제도 도입 배경과 의의> http://www.seed.go.kr/seed/962/subview.do

농림수산식품부. (2010) <이슈분석보고서 제 2 호 종자산업>

농림축산식품부. (2019.09.17) "밥쌀 수입 불가피…국내 쌀산업 영향 최소화 노력"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4702;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18)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16

UN FAO 자료

Srivastava, Nisha, and Ravi. Srivastava. (2009) "Women, Work and Employment Outcomes in Rural India." Paper presented at the FAO-IFAD-ILO Workshop on 'Gaps, Trends and Current Research in Gender Dimensions of Agricultural and Rural Employment: Differentiated Pathways out of Poverty'; FAO, Rome; 31 March-2 April.

UN FAO <India at a glance> http://www.fao.org/india/fao-in-india/india-at-a-glance/en/

UN FAO; <What is Happening to Agrobiodiversity?> http://www.fao.org/3/y5609e/y5609e02.htm;

UN FAO. "Prospects for the Environment,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http://www.fao.org/3/y3557e/y3557e11.htm

UN FAO. <Weighing the GMO arguments: against> http://www.fao.org/english/newsroom/focus/2003/gmo8.htm

비정부 단체 보고서

Programme on Women'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WESCR) Report (2009) on Women and the Right to Livelihoods; World Social Forum Belem, Brazil;

Rainforest Movement Bulletin. (2006) "Brazil: Peasant Women's Action Against Monoculture Eucalyptus Plantations on International Women's Day." WRM's Bulletin N° 104, March 2006. http://www.wrm.org.uy/oldsite/bulletin/104/viewpoint.html

Seed Forum Document. 2008. "Seed Heritage of the People for the Good of Humanity: From the Women Seed Forum of South Korea, 28th January, 2008. http://www.viacampesina.net.

World Rainforest Movement Bulletin. 2009. Argentina: Wichi and Guarani Women Raise Their Voices Against Deforestation Linked to Soyabean Expansion, Iss. No. http://www.wrm.org.uy

정책 부장; 류미경; (2004) <신자우주의와 세계화와 여성농민의 삶> 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Report)

제작팀. (2014)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KBS 스페셜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시대의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년) <녹색혁명과 녹색성장>

학위논문

Louis, E. C. (2012). *The Political Ecology of Food Sovereignty Movements in Neoliberal India* (Doctoral dissertation, [Honolulu]:[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London, Jennie. (2013) Seed Saving: A Comparison of Three Seed Saving Organizations in Support of Social-Ecological Resilience. M.A. Prescott College.

응웬티탄타오. (2015) < 1960 년대 박정희 정부의 농업정책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태호 (2009) <통일벼와 1970 년대 쌀 증산체제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관련 단체 사이트와 이외 자료

Navdanya International. https://navdanyainternational.org/seed-freedom-and-the-future-of-farming/;https://navdanyainternational.org/the-farmers-crisis/

Navdanya: An Overview; https://www.navdanya.org/about-us/overview 접속일: 2019.09.10

Navdanya. Seed Sovereignty. https://www.navdanya.org/earth-democracy/seed-sovereignty

Seed Freedom (Navdanya) (2019 년 4 월) The Seed Bill 2019 is a Threat to India's Seed Sovereignty and Farmers Rights. https://seedfreedom.info/the-seed-bill-2019-is-a-threat-to-indias-seed-sovereignty-and-farmers-rights/;

V. Shiva." SEEDS, BIODIVERSITY AND IPRs" https://medium.com/@drvandanashiva/seeds-biodiversity-and-iprs-845187d00951

언니네텃밭 공식 사이트. sisterskitchengarden.co.kr.

전여농 공식 사이트. http://www.kwpa.org/index.php

Via Campesina. (2018) <Food Sovereignty Now! European Coordination> https://viacampesina.org/en/wp-content/uploads/sites/2/2018/02/Food-Sovereignty-A-guide-Low-Res-Vresion.pdf

비아 캄페시나 공식 사이트. <소개> https://viacampesina.org/en/who-are-we/

La Via Campesina. Our Seeds, Our Future (2013) https://viacampesina.org/en/our-seeds-our-future/

알라딘 서점.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10432910

Peled, Micha. (2013) *Bitter Seeds*; https://itvs.org/films/bitter-seeds)

Abstract

Asian Women's Seed Saving Movements

-Focusing on South Korea's KWPA & India's Navdanya-

Snigdha Gupta
Korean Studies Maj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gricultural practice of seed-saving has been one of the central tasks shouldered by women in rural farming-based societies across the world. However, with the onset of twentieth century, events like colonialism, industrialization, green revolution and globalization caused a fundamental shift in the agricultural and food systems of the world, especially in newly independent countries like India and South Korea. Food consumed worldwide is increasingly based on fewer crop varieties and seeds have widely become a commodity. As such, the majority of indigenous seeds have been lost and the practice of seed-saving has seen a rapid decline. This paper attempts to study two indigenous seed-saving movements by the women members and peasants of Korean Women's Peasant Association (KWPA) in South Korea and the women-bas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avdanya, in India. The paper also seeks to answer why the members of these two organizations chose to seed-save indigenous varieties of crops, in spite of it being considered a "backward"

or "pre-developmental" practice, by analyzing textual materials produced by these organizations and conducting personal interviews conducted at KWPA centers in Hoengseong (Gangwon-do) and Geochang (Gyeongsangnam-do) in South Korea and at Navdanya biodiversity farm in Uttarakhand, India.

Three similar reasons could be identified from the respondents' answers across the two organizations. The first amongst them was the need for livelihood. Partaking in the movements proved to be a source of income contributing to women's livelihoods. Over and above the discourse of food sovereignty, the movements were seen to have realistic market networks which enabled the women to get a fair price for their indigenous crop produce. The second reason was seen to be women's need for strengthening their status and developing new community bonds. With the loss of indigenous seeds, women lost their important seed-saving role in rural society. In addition, during the development period in Korea, most men and young women from rural villages and towns moved to the cities in search for work which resulted both in the 'feminization' and displacement of rural communities. Such a phenomena can also be witnessed in India presently. Therefore, it was seen that the mobilization of women under the cause of seed-saving and the sharing of seeds developed bonds of 'sisterhood' equipping the women with the solidarity required for lobbying and protesting for the various causes relevant to rural women and also created a sense of community that had fast evaporated in their respective towns and villages. The third and final cause was the women's need to preserve cultural memory, health and the environment. Preserving local food culture, rituals and other practices surrounding

indigenous crops was an important factor for women of both organizations in preserving seeds. In addition, in the face of polluting influence of fertilizer/weedicide-heavy hybrid and GMO farming, the preservation of their local environment and health of their families proved to be important concerns as well.

While there exist vas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organizations, all of these three major reasons were largely similar, proving that the present food and agriculture sector has caused distress to peasants worldwide, especially women peasants in the global south. In spite of India being one of the fastest developing countries in the world and South Korea joining the list of developed countries of OECD, the position of women peasants in both of these countries has been affected negatively by the events of twentieth century as well as corporate monopolization of food and agricultural market, unfair trade policies and the commodification of natural resources like seeds and hence, they are engaging in food and seed sovereignty movements like saving indigenous seeds. Similarities between these two women-based movements from two Asian countries throw light at the transnational nature of the problem of agriculture in the present age and as such, suggests that the way forward may also be transnational.

Keywords: Women's Movements, Peasant Movements, Women in Agriculture, Seed-Saving, Transnational Feminism, Global South

Student Number: 2017-27110

Acknowledgement

Firstly, I would like to thank my thesis advisor Professor Erik Mobrand for listening through my ever-changing ideas and helping me navigate research and make sense of it at every stage, and the members of my thesis faculty- Professor Park Tae-gyun and Professor Kim Bo-myung for their guidance and help during the course of my masters and thesis writing process in Korean. I am also immensely grateful to Korean Women's Peasant Association for allowing me to visit them in Hoengseong and Geochang and to Navdanya, for allowing my visit and kindly arranging my stay at their farm in Dehradun. I would especially like to thank my respondents who took time out to speak to me, aiding my research immeasurably.

Most of all, I am indebted to my mother Supriya Gupta who always has my back and father Raj Gupta who was always loving and encouraging. I am also thankful to Fergus Dunne for his timely ideas and help, Saurabh and Jacky, baby Ahana, Beau the dog and Morty the cat for their most calming, pleasant company this past year.